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아침 운동이든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뭐든지 하는 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신협 모델
조보아

제43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KOREA PHOTO EXHIBITION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2025

YeongWol Storytelling

Photo Exhibition

20

2005-2025

동강사진박물관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이향룡_그들만의 버스킹

동강 사진 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 전시기간: **2025. 05. 13(화)~06.29(일)**
- 전시장소: 동강사진박물관(공모), 영월문화예술회관(추천작가)

■ 개전 및 시상일시: 2025년 5월 31일(토) 2시 ■ 시상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강당 (2025 PASK AWARDS)

주최 | 주관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영월문화관광재단
Yeongwol Culture & Tourism Foundation



대한민국예총
FACO

Contents

June 2025 Vol.539

Cover Story



이숙현(중랑구)_아름다운 동행

03

Headnote

사진예술의 내일을 준비하며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시묵

06

특집

2025 PASK AWARDS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화려한 개막'

28

전시광고

[김남호 개인전] 비바람 머금고 바위 틈에서 미소짓다

천상의 산꽃을 찾아서 - 김남호(인제)

32

전시광고

[연도흙 개인전] '이젠 역사' 잊히지 않을 기록, 이젠 역사 속으로

골목길에서 찾은 시간의 선물 - 연도흙(화성)

36

전시광고

[조영신 사진전] 자연과 인간 담아낸 따뜻한 시선

The Earth, 사진이 그림을 품다 - 조영신(광주)

40

지상전 1

자연 속의 '침표'일까? 카메라 앵글 멈춘다

갯가의 흔적 - 정종관(나주)

44

Photo Essay 01

전통과 현대건축 그 점과 선, 색채

조형의 미 - 이상순(구미)

48

지상전 2

믿음으로 안내하는 예술, 인간 내면을 밝히다

빛과 어둠 - 김상수(용산구)

52

Photo Essay 02

고요한 올림 따라가는 끝 없는 여정

디자인의 감성과 사진의 직관이 만나다 - 서상철(송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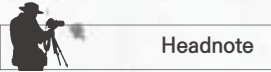
32



40



52



Headnote

사진예술의 내일을 준비하며

6월의 풍경처럼 녹음이 짙어질수록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지듯, 오늘날 사진 예술 역시 새로운 빛을 찾는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진의 경계가 점점 확장되고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사진의 정의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진예술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한 도전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진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사진예술 및 문화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예술이 국가 문화정책 속에서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창작자들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또한 사진계의 미래와 회원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와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사진예술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회원 여러분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진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행사 추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진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와 호흡하며 창작의 진정성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닌 가장 강력한 대응이자 제안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시대의 거울이며, 동시에 미래를 비추는 창입니다. 협회는 사진예술의 본질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길에 있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 시 묵

Contents

June 2025 Vol.539



한국사진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5년 6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점용, 최영대,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56 **KYOTOGRAPHIE 2025**
JR 크로니클 교토 2024 (JR Chronicle Kyoto 2024)
교토역 빌딩 북쪽 통로의 벽 - 편집자주
- 60 **Review & Preview**
흑백 계조에 담은 '투명한 울림' 관객 앞으로
이모젠 커닝햄 사진전 - Stillness - 김재훈

- 사진강좌**
- 66 **Travel destination**
자유 평등 평화 실현할 곳 어디일까?
民國이나 vs 王國이나 - 최승언

- 70 **Photo Theory**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
AI 시대의 새로운 사진 예술 - 조주은

- 협회소식**
- 74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 업계소식**
- 95 **Gallery**
이수연 출판기념 저자 특강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

사진공모전

사협 입회점수 없음

대상 500만원

참가요강

- 주 제 : 찬란한 세계유산 고창고인돌과 생명의 자연유산 고창갯벌
- 작품내용 : 고창군에 소재한 고인돌과 고창갯벌에 관한 사진으로 역사·생태·문화·경관적 가치를 표현한 사진
- 접수기간 : 2025. 8. 1. ~ 2025. 8. 30.
- 작품규격 : 흑백 및 컬러 인화지 11"×14"
- 출 품 수 : 1인당 분야별 4점 이내(갯벌 4점, 고인돌 4점)
- 출 품 료 : 없음
- 출품요령 : 각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
- 작품명,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촬영장소, 촬영일자 정확히 기재
- 심 사 일 : 2025년 9월 6일(토) 예정
- 심사발표 : 2025년 9월 8일(월)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통보
- 시상및전시 : 추후 공지
- 문 의 : 세계유산축전 추진단 063-560-8632, 8634
- 접 수 처 : (56443)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고창군세계유산보존협의회

시상내역(고인돌 분야)

- 대 상 : 1명 5,000,000원
- 최우수 : 2명 각 2,000,000원
- 우수상 : 3명 각 1,000,000원
- 장려상 : 5명 각 500,000원
- 입 선 : 30명 각 300,000원

기타(유의) 사항

-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상 및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고창군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30년간 복제, 배포, 전시, 인쇄물 제작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타 공모전 수상작 또는 대리작은 심사와 시상에서 제외되고 수상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시상이 취소될 수 있음
- 디지털 합성, 과도한 조작 및 변형, 규격미달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 심사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7일 이내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별도 공지)
- 상금은 원천세 공제후 지급하며, 수상자는 시상식에 참석해야 함
- 모든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후 출품자 전원에게 개별 발송함

시상내역(갯벌 분야)

- 대 상 : 1명 5,000,000원
- 최우수 : 2명 각 2,000,000원
- 우수상 : 3명 각 1,000,000원
- 장려상 : 5명 각 500,000원
- 입 선 : 30명 각 300,000원



주최·주관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



2025 PASK AWARDSs 시상식 후 영월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테이프커팅을 하는 외빈 및 내빈과 대상 수상사 이항룡 작가와 유수찬 이사장

2025 PASK AWARDSs

사진예술의 고장 영월에서 성황리에 개최 -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화려한 개막'

글. 사진. 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 오건호(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2025 PASK AWARDSs 개최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2025년 5월 31일 오후 2시, 강원도 영월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에서 '2025 PASK AWARDSs' 시상식이 박주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PASK AWARDSs는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시상 행사로, 한국사진문화상,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우수작품상,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자리다.

식전 공연으로 LED 쇼를 공연하고,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이 개막을 선언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배택수 상임이사가 내빈을 소개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전대북 영월군 부군수, 김상태 영월군 군의원,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박상현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최차열, 선종백, 백만중, 이항룡, 김시묵 부이사장, 이덕만 본부장사, 조건수 고문, 김양평 고문, 홍창일 고문, 강부만 고문,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 문제진 교육



2025 PASK AWARDSs 축사를 하는 전대북 영월군 부군수



2025 PASK AWARDSs 축사를 하는 김상태 영월군의회 의원



2025 PASK AWARDSs 축사를 하는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2025 PASK AWARDSs 내빈을 소개하는 배택수 본 협회 상임이사



2025 PASK AWARDSs 축사를 하는 조건수 고문



2025 PASK AWARDSs 축사를 하는 김양평 고문



2025 PASK AWARDSs 축사를 하는 홍창일 고문



2025 PASK AWARDSs 축사를 하는 강부만 고문

전문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장, 문철상 대외협력위원장, 최재영 한국바른언론인협회 이사장, 양경창 자문위원. 김용권 자문위원, 손석윤 이사, 정희명 영월팀장, 양범석 전 부이사장.”

유수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협회의 숙원사업인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1차는 법사위에서 부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사진 진흥법이 발의돼서 5월 1일 사진 진흥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 진흥법이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협회의 자랑거리는 장학기금 제도를 도입해서 사진대학이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쪽에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 협회가 사진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사진아카데미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장학기금관리위원회가 법인 재단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목표 집행되면 여러분들께서 사진인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대북 영월군 부군수는 축사에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신 이항룡 작가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지난 2001년에 동강사진마을을 선언한 후에

2005년도 7월에 국내 최초의 공립 사진전문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을 개관하고 사진 문화의 메이커로 자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20년간 사진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영월의 문화적 위상을 느껴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강국제사진제가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며 오는 7월 11일부터 동강사진박물관을 중심으로 두 달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사진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동강국제사진제에도 사진작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상태 영월군의회 의원이 축사했다. 조건수, 김양평, 홍창일, 강부만 고문이 차례로 축사했다. 제1부, 제63회 한국사진문화상 시상식에서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이 유수찬 이사장으로부터 우수회원을 받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어서 공로상 권순형, 이정환, 차일현, 특별공로상 신영식, 장재기. 작품상 이항룡, 출판상 마석두, 신명현, 임동일, 부산지회 강종관 지회장, 고양지부 박충곤 지부장, 원주지부 윤영돈 지부장이 지회 지부 발전공로상. 우수회원상 권미라 외 22명에게 시상했다. 제62회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시상식에서 우수작품상 김광진 외 16명에게 시상했다.



공로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 이정환, 유수찬 이사장, 권순형 대리 수상)



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오른쪽 이항룡 작가)



출판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오른쪽 마석두)



특별공로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 신영식,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 장재기)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사진 오른쪽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지회지부 발전공로상-부산지회(사진 오른쪽 지회장 강종관)



지회지부 발전공로상-고양지부(사진 가운데 지부장 박충곤)



지회지부 발전공로상-원주지부(사진 가운데 지부장 윤영돈)



지회지부 발전공로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김양평 고문과 수상자들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강부만 고문과 수상자들



우수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과 수상자들



우수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문철상 대외협력위원장과 수상자들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조건수 고문과 수상자들



우수회원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홍창일 고문과 수상자들



우수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과 수상자들



우수작품상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과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자 이항룡 작가 '그들만의 버스킹' 대상 수상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는 이항룡 작가(사진 오른쪽)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평을 하는 김양평 심사위원장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 수상소감을 말하는 이항룡 작가

2025 PASK AWARDSs 2부는 제43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양평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위원장과 이경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운영위원들이 소개되었으며, 김 위원장은 대상 수상작에 대한 심사평을 전했다.

“2025년도 대한민국 사진대전에 470명의 작가 가 총 1850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제와 시선이 담긴 작품들이 모였고 이를 통해서 예술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사진대전에는 규정에 따라서 인물, 다큐, 생명 행태, 특히 디지털 창작 및 특수하게 그리고 관광 스포츠 기타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부문별 출품 수를 고려해서 입상작과 특별작을 비율에 따라서 선정했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최우수상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김금자 작가(사진 오른쪽)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우수상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김상수 작가(사진 맨 왼쪽) 김화분 작가(사진 맨 오른쪽)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상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사진 맨 왼쪽부터 이병화, 유수찬 이사장, 최임순, 위수환 작가)

니다.”고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항룡 작가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열렬하다”며 “앞으로도 시각적 표현을 통해 감정과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는 작가가 되도록 끊임 없이 고민하고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 시상된 수상자는 최우수상에 김금자 작가, 우수상은 김상수, 김화분 작가가 수상했으며, 특선은 국형숙 외 36명의 수상자, 입선 대표로는 정의목 작가 외 7명이 시상대에 올랐다. 아울러 추천작가상은 위수환, 이병화, 최임순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상식 종료 후에는 영월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내·외빈 과 수상자, 협회 임원들이 함께 개전식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며 전시 개막을 알렸다. 이후 동강사진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촬영과 수상작 전시 관람이 이어졌고, 이날 모든 공식 일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수상작 전시는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공모부문은 5월 13일(화)부터 6월 29일(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추천부문은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협회 회원 및 동반인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습니다.

특히 특선 이상 수상작은 예술성과 창의성, 완성도를 별도 평점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개별 채점해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이항룡 작가의 ‘그들만의 버스킹’이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쇼윈도 마케팅, 거리에서 노래하는 예술가, 그리고 무심히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세 존재를 대비시켜서 현대 사회의 관계단절과 감정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넘어서 통찰력 있는 시선과 높은 예술적 안정도는 본 대회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심사위원단 최고 점수로서 대상으로 생각되었습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작 시상 후 최차열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작 시상 후 선종백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백만중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김시묵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최재영 한국비문언론인협회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이덕만 본부 감사와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양범석 전 부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시상 후 박상현 영월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시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 이항룡 작가와 대상 수상 전시작 앞에서 축하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와 내빈들 (사진 맨 왼쪽부터 신현하 위원장,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 유수찬 이사장, 이항룡 대상작가, 김양평 고문, 최차열 부이사장)



2025 PASK AWARDSs 시상식 후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장인 동강사진박물관에서 테이프커팅을 하는 외빈 및 내빈과 대상 수상사 이항룡 작가와 유수찬 이사장

제 7 회

천태 사진 공모전

공모 개요

주 제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지역 자연 풍경, 사찰 및 불교 정신을 담은작품, 천태종 관련 사진 우대.
자 격	제한 없음
규 격	장별 3,000픽셀, 해상도 300dpi, 용량 10MB 이상 JPEG파일. 출품작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것으로 한함. 작품의 파일명은 반드시 <작가명-작품명.jpg>로 할 것. 규격 파일형식 영수, 규격 파일형식 미달은 심사 제외.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타 공모전 출품 및 타인명 출품 심사 제외. (추후 인지 시에 수상 취소)
출품방법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 E메일로 접수.
출 품 료	없음.
접수기간	2025년 9월 17일 ~ 24일
접 수 처	Email : cheontaecmb2@kakao.com Tel: 02-723-1559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금 상	1명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은 상	1명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동 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가 작	10명 상장 및 상금 각 30만 원
입 선	20% 이내. 상장 및 상품

*입상자에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입회 정수가 부여됩니다.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주관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 운영위원회
후원 금강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불교천태종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사진예술로

승화하여 21세기 기록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 9월 17일~24일

전시 12월 3일~8일, 한국미술관

(서울시 인사동길12 대일빌딩 한국미술관2층)

입상자발표 10월 중 개별 통보

● DSLR, 드론(촬영허가서 첨부)으로 촬영한 작품만 심사(허가관련 위
법 사항은 작가 책임).

●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사용권은 천태종에 있음.

● 작품의 초상권과 관련한 사항은 작가의 책임.

● 출품 후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 및 수신이 불가할 경우 주최 측에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 A.I 작품은 심사
제외. 창작적 의도로 보정을 한 경우 원본도 첨부(심사 참조용).

● 수상작과 동일작을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수상할 경우 수상 취소.
상금반납은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가 유보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의함.

＋ 월간 한국사진 6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문 제 민
· 백령도 두무진
니콘Z7



· 홍 이 선
· 靑(푸르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하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의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 배부하며, 추가 구매 가능)

구상, 비구상 뿐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임원, 지회 · 지부장 추천 투고 신설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 이사위원회 출판팀 선정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ask / 비밀번호 kpask
접속 후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추천투고 중 택1 폴더
선택 – 선택 폴더에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
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확한 촬영데이터(촬영일자, 장소, 카메라 기종, 사용 렌즈, Filter Interval 외)를 공개해야 함.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기금모금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 협회가 이 만큼 발전하였고 명실상부한 사진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전개하는 여러 활동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학사업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까지 이어간다면 사진예술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협회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1계좌 갖기 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장학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 350만원 이상 기탁자는 운영위원으로 위촉 가능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② 자문위원단

- 2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단 회의 참여 가능

③ 참여위원단

- 1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단에 참여 가능

④ 10만원 ~ 100만원 미만

- 이사장의 감사장 수여
- 위원장의 감사장 수여

〈전체 사진작가 1계좌 갖기 운동〉

1계좌를 100,000원으로 하여 장학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송고한 마음이 모여 후진들을 위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학기금 계좌 국민은행 293201-04-258248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 제30대 유수찬 이사장 3,000만원 기탁

2025년 6월 1일 기준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항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심재안 장학위원회위원장 1,000만원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훈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윤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종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송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호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오만태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상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흥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장일미 평택지부장 20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김남규 자문위원 50만원
신성우 자문위원 50만원
윤종근 자문위원 50만원
이판수 자문위원 50만원
윤상섭 자문위원 50만원
김동민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완기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박용덕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달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윤식 자문위원 30만원
신우식 자문위원 30만원
안판중 자문위원 30만원
양범석 자문위원 30만원
오상석 자문위원 30만원
임계환 자문위원 30만원
홍성광 자문위원 30만원
김경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삼경 자문위원 20만원
김석원 자문위원 20만원
김은곤 자문위원 20만원
김중호 자문위원 20만원
박국인 자문위원 20만원
박충순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규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조용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서산지부 2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호숙 자문위원 30만원
손석운 이사 10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중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지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지부 20만원
장흥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원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양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권선자 드론분과위원장 1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회원 100만원

■ 2025년 장학금 기탁

강동영 이사 30만원
강경희 자문위원 30만원
박해섭 이사 50만원
민웅기 이사 30만원
산악사진분과위원회 50만원
양성근 나주지부장 20만원
하봉걸 이사 50만원
이창훈 이사 30만원
김종호 고문 20만원
박인호 이사 30만원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50만원
한용상 이사 30만원
전영복 자문위원 20만원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100만원

김시목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해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호숙 자문위원 30만원
손석운 이사 10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중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지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지부 20만원
장흥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원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양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권선자 드론분과위원장 1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회원 100만원
양경창 자문위원 1,00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100만원
심재안 장학위원회위원장 1,00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시목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해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현재 잔액 270,813,313원



f-stop



ICU 파티션 시리즈

듀라 다이아몬드 원단으로
더욱 강해진

틸로파 50L

아즈나 37L



쉽고 간편한 필터 교체 시스템

Haida® M10 필터



초광각 렌즈를 위한 렌즈 후면 장착 필터

Haida® 리어렌즈 필터



자석을 이용해 빠른 장착이 가능한 필터

Haida® 마그네틱 필터



DJI 드론 기초와 드론촬영 전문가과정

매달 진행하는 가성비 넘치는 강의

세미나 일정

1일차 실내이론강의 [오전 10:00 ~ 오후 17:00]
2일차 야외실습강의 [오전 10:00 ~ 오후 17:00]

모집 인원

15명

수강료

2일 15만원 (점심제공)

세미나 장소

실내: 벤로코리아 본사 4층강의실
야외: 인천 서구 정서진 (예정)

참가자 혜택

- 15만원 상당의 벤로 할인쿠폰 증정
- DJI 제품 구매시 다양한 혜택
- DJI 드론 최신기종 전체 체험



신청하러가기



드론최고과정 조한광 교관님 약력

(사)첨단기술안전점검 협회 회장
지도 조종자, 시설/재난안전 전문가
前 사진 동호회 회장 역임
(사)스마트건설드론협회 김상환연구원장
(실기평가 조종자)

실습강사: 김상환, 전소령

조한광 회장

메인강사

CYAN BIRD [MAX]

사진용 여행용 삼각대 **벤로 사이언버드 맥스**

휴대성과 안정적인 20kg 페이로드

20KG
페이로드

36mm대형 볼 직경



BALL
+
Low Profile

볼 + 역방향
로우 프로파일

CARBONE
LEG

강도, 진동흡수
카본재질 레그

47.3
FOLD

접었을 때 높이
47.3cm

156
HIGH

최대높이
156cm

20
PAYLOAD

페이로드
20kg

대한민국 사진대전 사진축전

작품출력 및 액자제작
-회원전, 사진작품전 전시기획 대행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매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가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한사전, 사진축전, 그룹전, 개인전, LED전시, 도록제작, 전시기획 대행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ArtPlus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Artluxe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한국사진 광고 중]



“마음을 담는 작품”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ArtPlus
LINE UP CARD



ArtPlus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Plus PEBB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진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rtPlus FINEART 파인아트

은은한 색감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Plus KOREAN PAPER 한지

한국적인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LINE UP CARD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SUREVUE 슈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 아트룩스 유사상호, 출력필름 합성지, 중국산 필름 사용등
불량제품 피해 주의바람.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제 43 회

대한민국사진대전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사진정밀보정, 사진출력, 사진배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대행
대한민국사진대전 접수대행

사진대전 입상 입선 작품액자제작 특전

입상 입선 작품제작 접수대행 무료

전시 후 작품철수 택배배송

전국 택배배송 대행(배송비 별도)

잔국최저가 사진정밀보정 및 사진인화 액자제작 접수대행까지.



사진대전 바로가기

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모바일 두진아트 가기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에 관한 모든것! 두진아트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사진전시는 두진아트에서 최신 트렌드 작품액자로 준비하세요.

D5띄움 액자 뒷면



D5띄움 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디아섹 뒷면



독일제무반사 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 사이즈 (3R, 4R, 5R, 6R, 8R, 11R)



아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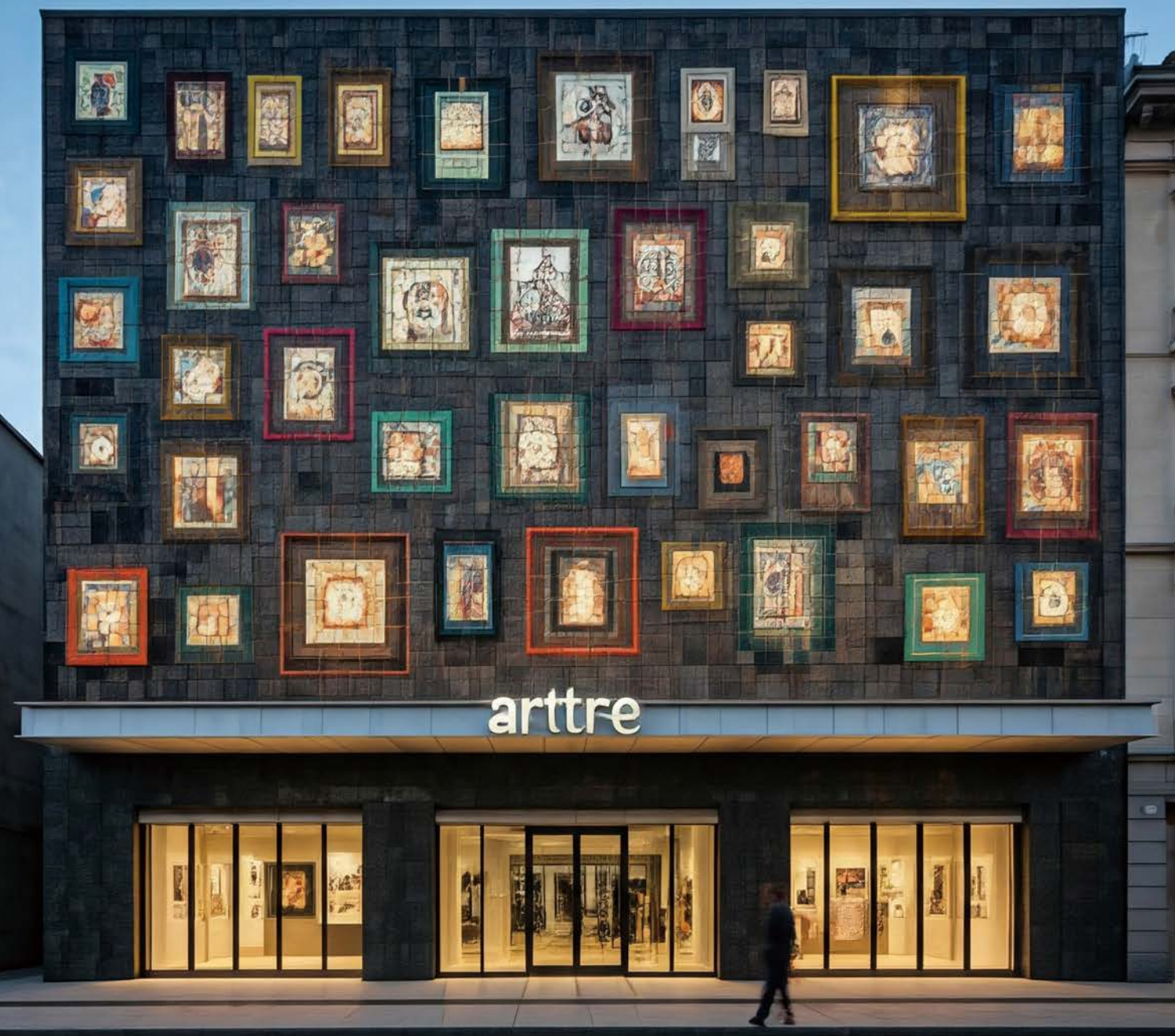
·
·

1544-2188
<http://arttre.co.kr/>

아뜨레는 액자공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ARTTRE_GALLERY



DOMKE

Made in USA

사진작가를 위한 선택



F-2

프로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카메라 가방

- 6개 렌즈 + 2대 바디 수납
- 클래식한 디자인
- 가볍고 빠른 접근성



F-5XB

가볍게, 빠르게, 자연스럽게

- 미러리스 & DSLR 1대 + 렌즈 1~2개 수납
- 부드럽게 밀착되는 슬림한 디자인
- 숄더백이자 힙백으로도 활용 가능



Everyday Backpack

일상과 촬영, 그 사이를 잇는 단 하나의 백팩

- 미러리스 + 렌즈 2~3개 수납
- 최대 17인치 노트북 전용 슬리브
- 외부 삼각대 홀더와 물병 포켓



HEIPI

W28SMA

3-in-1 Travel & Magic Arm



K10

69g 초경량 설계
간편하고 안전한 벨트 버클형 고정장치
랜야드/스트랩 연결을 위한 듀얼 링 구조



C100

평면/사각 구조물, 원형 구조물 고정 가능
데스크탑 삼각대로도 활용



MA175

360도로 회전하는 듀얼 볼 헤드
더욱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한
볼 헤드 러버 패드



MA137

4개의 볼 헤드로 자유로운 회전
190mm의 길이
양 끝에 제공되는 1/4" 스크류

- 일본 3박4일 장노출195만원(대한항공)
- 아이슬란드 14박15일, 7월(650만원)
- 남모라비 10박11일, 대한항공(450만원)

- 솜바 5박6일 350만원(대한항공)
- 롬복 4박5일 270만원(말레이시아항공)
- 스리랑카 사진여행 330만원
- 아이슬란드 14박15일(가을)

- 사진여행의 시작 사진을 전문으로...

2025년 촬영계획

- 1월
- 중국패상 초원촬영
 - 일본 비에이 촬영
- 2월
- 일본 비에이 촬영
 - 아이슬란드 오로라 촬영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3월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인도네시아 솜바/롬복 촬영
- 4월
- 체코 남모라비 봄풍경 촬영
 - 일본 장노출/후지산 반영 촬영
- 5월
- 일본 장노출/네모필라/등나무 꽃 촬영
 - 인도네시아 솜바/롬복 촬영
- 6월(일본 비에이 꽃/호수 촬영)
- 이탈리아 돌로미티 봄 촬영
 - 인도네시아 솜바/롬복 촬영
- 7월(일본 비에이 꽃/호수 촬영)
- 아이슬란드 봄 풍경 촬영
 - 인도네시아 솜바/롬복 촬영
- 8월(말레이시아 섬포르나 촬영)
- 스코틀랜드 장노출 촬영
 - 인도네시아 솜바/롬복 촬영
- 9월(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 스리랑카 사진 풍경 촬영
 - 인도네시아 솜바/롬복 촬영
- 10월
- 체코 남모라비 가을 풍경 촬영
 - 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 11월
- 스리랑카 사진촬영 여행
 - 인도네시아 솜바/롬복 촬영
- 12월
- 남인도 차발 촬영(World Photo)
 - 일본 비에이 촬영



PHOTOTOUR



모나 용평 제휴사 패키지 할인안내

패키지구성



객실 1박

하반 조식뷔페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할인권 7종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40% • 용평위티파크 40% • 공릉해양랜드 30%
애니포레 20% • 모나 베이커리 10% • 더 샬레 10% • 유지엄 망고 25%

정상가 : 450,000원 > 120,000원(74% 할인)

예약방법

1. 모나 용평 홈페이지 접속
2. 단체행사 → 제휴사예약 페이지 접속
3. 제휴사 코드 번호 입력 (고객번호: 1190519)
4. 패키지 선택 후 객실예약

모나 용평 제휴사 패키지 예약방법안내

01. 모나 용평 홈페이지 접속



02. 단체행사 ▶ 제휴사 예약 접속



03. 사전 안내 받은 고객번호 입력



04. 제휴사 패키지 선택



05. 날짜 선택 및 객실 선택 후 예약 진행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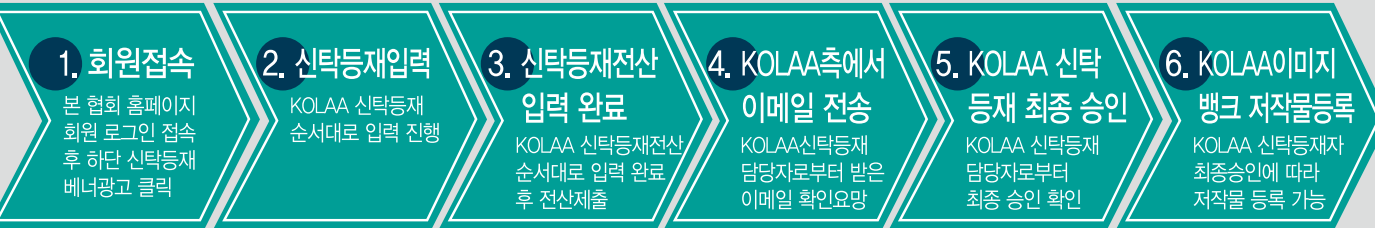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진저작권자인 본 협회 회원들의 사진저작물 침해 방지의 최선은 신탁등재로 사진저작물 침해시 최선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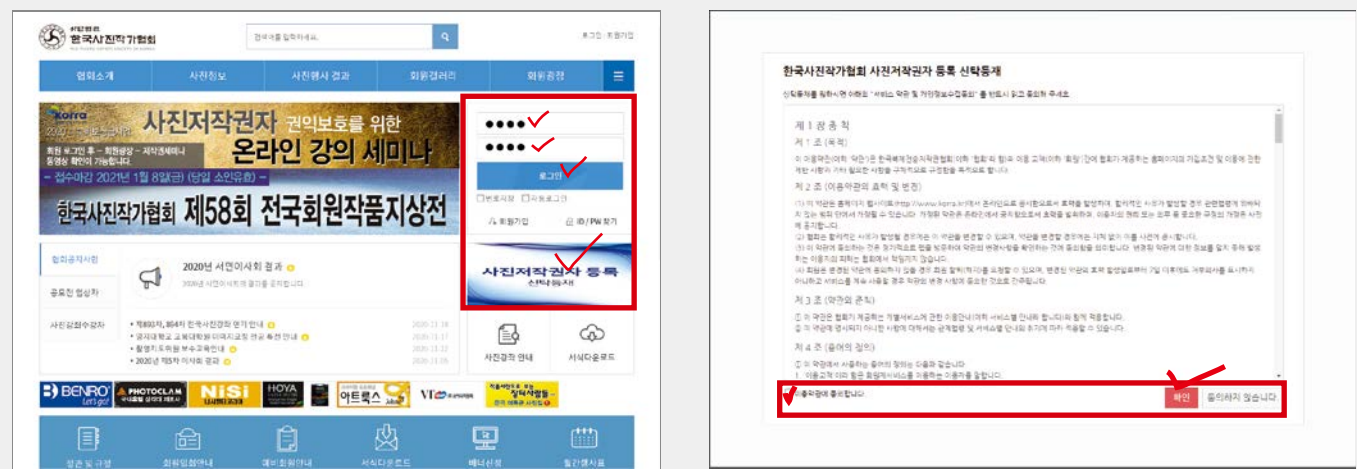
이에 본 협회 회원만으로도 신탁등재를 희망하는 누구든 신탁등재만으로도 신탁자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시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탁등재 등록이 가능하며, 사진저작권자로서 신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 1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배너광고 클릭
- 2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망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3

아이디(+)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①
비밀번호(+)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②
비밀번호(+)	재확인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③
작가명(+)		④
작가명(영문)		⑤
일명		⑥
소속단체 (단체내 번호)	한국사진작가협회 1555	⑦
저작권자(이름)	✓ 사진작가 본인	⑧
이메일(+)	0000@0000000.000	⑨
생년월일(+)	예)19801201	⑩
휴대전화(+)	예)01012345678	⑪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순번 대로 필수 입력사항,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⑧~⑩번 입력 진행,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4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①
주소(+)	우편번호	주소입력	②
주소상세(+)	주소	상세주소	③
계좌정보	계좌은행명	계좌예금주	④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5

계좌번호	계좌번호	①
통장사본	찾아보기	②
신분증 사본	찾아보기	③
프로필	250자 이내	④
	가입하기	⑤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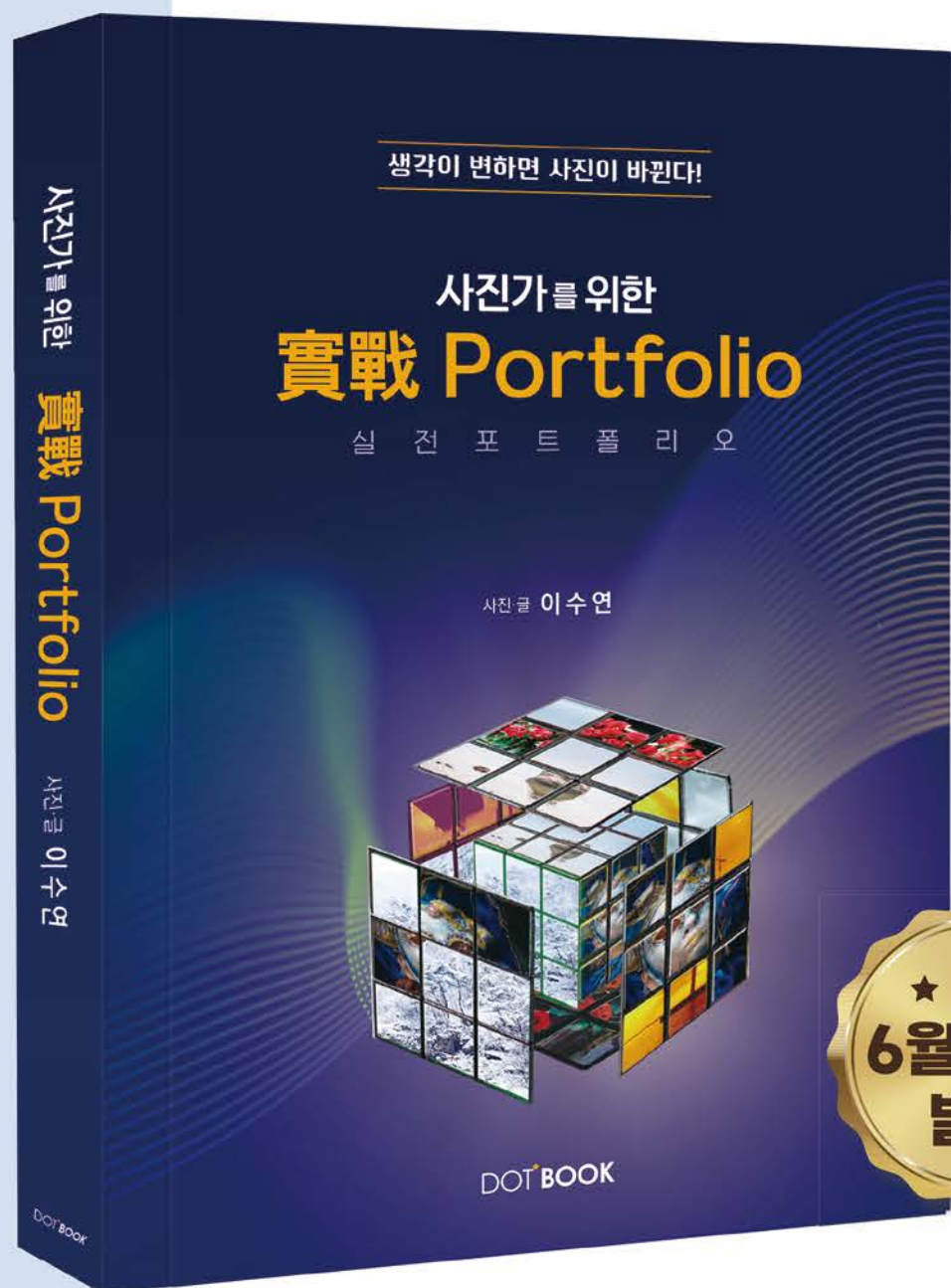
- ※ 신탁등재 전산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ram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1.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2. [관리자] 신청확인 후 가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3.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4.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5. [작가] 코라이미지 사이트(www.korram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사진가를 위한 實戰 Portfolio

실 전 포트폴리오

사진·글 이수연



★★★
**6월 15일
발간**

생각이 변하면 사진이 바뀐다!

사진계의 새로운 흐름, 포트폴리오 리뷰!

사진 포트폴리오 기법의 이론과 실제를 담은 최초의 책!

서평 ★★★

개념 중심의 난해한 현대사진이 유행하는 오늘날,
전통적 사진 양식에 집중한 방향성 제시, 주제 발견과 주제의 시각화
그것을 언어로 엮어내는 실제 방법론 수록
반복과 훈련 관찰과 편집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수록한 책.



발행처 닷북, A4판형, 본문 272p
10% 21,600원
(정가 24,000원)
(포장 및 배송비 포함)

출판기념 저자 특강 (무료)

6월 28일(토) 14:00

평택시 평택학습센터 대강당(평택시 이충로)

평택 바깥전 포트폴리오 리뷰 선정작과
경기도 향토작가 초대전 선정 작 중심으로
당장 활용 가능한 실전 기법 강의!



전시광고

[김남호 개인전]
비바람 머금고 바위 틈에서 미소짓다
천상의 산꽃을 찾아서

김 남 호(인제)



©김남호_소나무(수꽃)



©김남호_거미줄



©김남호_솜다리



©김남호_복수초



©김남호_수정난풀



©김남호_삼지구엽초

전시일시 2025년 6월 24일(화) ~ 7월 6일(일)

전시장소 박인환 문학관 2층 갤러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2F)

작가와의 만남 2025년 6월 28일(토), 6월 29일(일), 7월 5일(토), 7월 6일(일)

전시작가 김남호(010-6373-2603)

※ 매주 월요일 휴관 ※ 별도 개전행사 없으며, 전시장 여건상 화환 및 화분은 마음만 듬뿍 받겠습니다.



©김남호_청가리



©김남호_붉은매미나방 동충하초



©김남호_월굴

하늘에서 내린 물은 순환과 생명의 근원이고, 비, 안개, 눈, 물방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물의 흐름과 순환은 자연의 법칙이다. 대지에 풀과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며 꽃과 열매로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진다.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며 바위틈에도 삶은 이어지고, 죽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탄생하고, 물은 수억의 윤회 속에 바위에 문양을 갈고 닦았으며, 이러한 질서 속에 꽃님이 친구들은 생명의 연결자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늘에서 내린 인제 땅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이 숨 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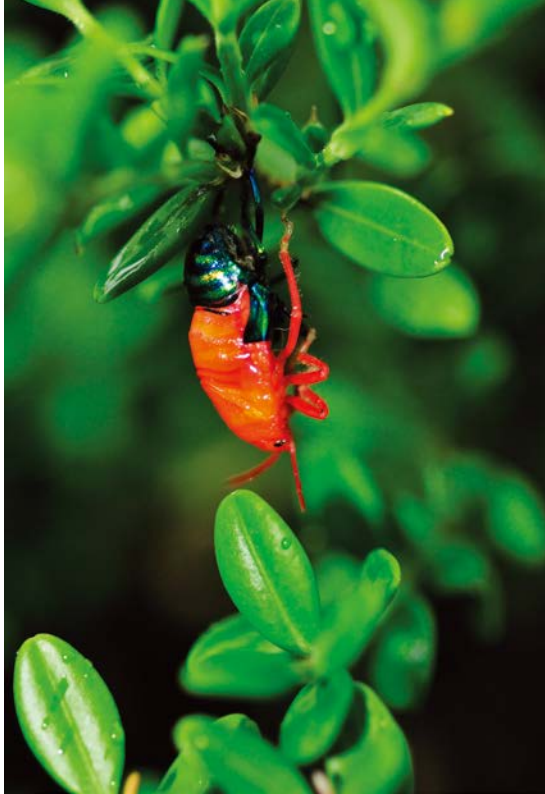
©김남호_고깔갈색먹물버섯



©김남호_분비나무(암꽃)



©김남호_바위재송화



©김남호_큰광대노린재(탈피)

『하늘내린인제』는 인제군을 의미하며, 여기에 실리는 사진 대부분은 인제의 산하에 생장하는 것이고, 꼭 찾고 싶은 몇 종은 이웃 지역이다. 『천상』은 많다, 하늘을 의미하고, 1,000종 이상, 1,000m 이상의 인제의 산천을 뜻하며, 『산꽃』은 우리의 자생식물을 의미하고, 『찾아서』는 나의 발길이 닿았음을 의미한다.

하늘내린인제에서 의미하듯이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 물은 인제의 산천을 보듬어 문 생명을 키웠으며 인제의 물산을 한 양(서울)으로 나르는 소통의 줄기였다.



©김남호_은행나무(암꽃)



©김남호_분비나무(수꽃)

또한, 그곳에서 피어나는 물꽃, 풀꽃, 나무꽃, 하늘내린꽃, 바위꽃은 서로 공생과 상생을 통하여 서로 교감하며 어울려 살아왔다. 이러한 자연을 꽃으로 투영하여 우리만의 정체성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자연의 중심지 인제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카메라라는 친구를 가지고, 기록한 한장 한장을 정리하며, 반추하고 렌즈의 관점으로 때로는 자연다큐의 관점으로 인제의 일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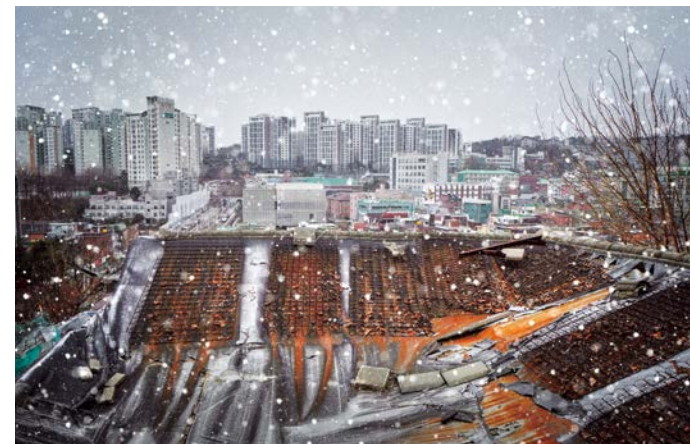
[연도흙 개인전]
 ‘이젠 역사’ 잊히지 않을 기록, 이젠 역사 속으로
잊혀가는 골목길에서 찾은 시간의 선물

연도흙(화성)



©연도흙_북아현동 골목길

우리 삶의 체취가 담긴 것들은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그것은 단절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뇌세포 속에 다시 살아 우리의 문화로 다시 회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골목길 좁은 돌계단에서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있고, 담벼락에 남은 벽화 하나도 우리의 감성을 일깨운다.
 사라져 가는 것은 더 깊은 감흥으로 돌아올 것이다.



©연도흙_북아현동 골목길



©연도흙_서산동 골목길



©연도흙_서산동 골목길

전시일시 2025년 7월 5일(토) ~ 9월 4일(목)
 전시장소 에스티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402)
 전시작가 연도흙(010-8759-3696)

어느덧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를 매료시켰던 넓고 조용한 골목길들은 이제 모습이 바뀌거나 사라져 버렸지만, 그 순간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제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찍어온 수많은 골목길 사진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작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의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수많은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 시절의 골목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얹혀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골목길의 담벼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고, 이러한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절의 골목길들이 가진 소중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자각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입니다. 옛 것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각 사진 속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낡은 건물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으며, 무엇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골목길에서 마주한 일상의 소소한 장면들은 결국 우리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데서 시작된다



©연도흙_정릉 골목길



©연도흙_순천 골목길

고 믿습니다.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오늘날보다 더욱 다채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로부터 배운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튼튼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옛날 골목길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그리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위로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연도흙_정릉 골목길



©연도흙_호미마을 골목길



©연도흙_호미마을 골목길



©연도흙_순천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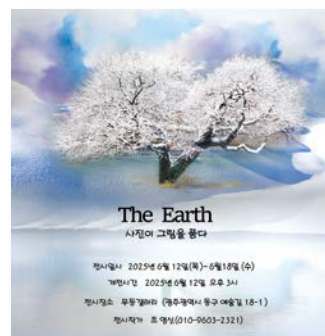


©조영신 생의 숨결을 품다

[조영신 사진전] 자연과 인간 담아낸 따뜻한 시선 The Earth, 사진이 그림을 품다

조영신(광주)

전시일시 2025년 6월 12일(목) ~ 6월 18일(수)
전시장소 무등갤러리(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18-1)
개 전 식 2025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전시작가 조영신(010-9603-2321)



©조영신 나목

살면서 여행하면서 감동을 만나고 새로운 풍광과 조우합니다.
그 감동을 카메라의 감성으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여 잊히지 않을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구촌의 신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조영신 호반



©조영신_길 없는 길



©조영신_오아시스



©조영신_여명의 마차무차레



©조영신_장가계



©조영신_독수리



©조영신_우리 사랑 영원히

지금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우연히 카메라를 든 그 순간, 제 삶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꿈꿀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고,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작은 감동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담고 다시 꺼내어 보는 일은 제게는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과 회화의 경계가 통합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풍경과 순간들을 담은 사진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채화와 유화의 감성을 덧입혔습니다.

'사진이 그림을 품다'라는 부제처럼 렌즈로 포착한 현실 위에 회화적인 해석을 더함으로써 익숙한 장면이 낯선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과 인간, 일상 속 찰나의 시간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따뜻한 시선과 순간의 작은 이야기들이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쁩 것 같습니다.



자연 속의 '심표'일까? 카메라 앵글 멈춘다 갯가의 흔적

정 종 관(나주)

끝없이 펼쳐지는 배경은 하늘과 바다와 섬이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풍경에 사람이 만든 흔적들이 카메라의 시선을 빼앗는다.
잠시 쉬어가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인공 구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삶의 궤적에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한다.

©정종관_#자연의 화음_150×110cm

해안의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장노출을 통해 부드럽고 고요함으로 전달하고 녹색 이끼가 덮인 갯바위는 자연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조화로운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멀리보이는 섬과 등대는 고요한 분위기를 주고 바다와 하늘의 서서히 저물어가는 석양의 따뜻한 색조를 반영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① ©정종관_#고요한 수면 위의 시간 속에서_100×100cm

부두 끝의 끈은 인간의 흔적을 상징하며 물 속에 자리한 기둥들은 오랜 시간의 유적처럼 고요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끈이 맺혀있는 방식은 단순한 연결 이상의 의미이며 자연과 인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은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

② ©정종관_#시간의 흐름_100×100cm

바다와 인공 구조물의 대비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물의 흐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며 부드러운 안개처럼 표현된 물결은 고요한 평화를 상징하고 물 속에 서 있는 바위와 테트라포트는 강인하고 고정된 모습으로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의 흔적을 나타내 본다.

③ ©정종관_#흐름과 경계_100×100cm

물은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흔적이 자연의 흐름과 만나 교차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장관을 이룬다. 물의 흐름은 자연의 섭리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찾는다. 자연과 인간, 물과 구조물, 시간과 순간의 경계는 과연 명확한 것일까? 아니면 서로를 품으며 흐르는 것일까? 물은 흐르고, 구조물은 서 있지만, 결국 모두 같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

④ ©정종관_#독살_100×80cm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돌담은 단순한 어로 도구 이상의 존재이며, 이 구조물을 통해 인간의 흔적과 시간이 영겨있는 풍경을 표현한다.
석책은 파도에 의해 마모되고 침식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물살을 이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여전히 삶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장노출로 인해 부드럽게 흐르는 구름과 바닷물은 무한히 변화하는 자연을 상징하며, 고정된 돌담과의 대비를 통해 시간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시각화는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사라져가는 어촌의 전통과 그 속에 깃든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행위이다.



©정종관_경계의 대화

전국의 해변을 수없이 다니며 촬영한 결과물들이 극한의 고요함으로 가슴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가 수십 번을 겹치며 해변에 마치 물안개를 부린 듯 부드러운 분위기가 세상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움을 고요로 덮어준다.
해변가의 갯바위와 물속에 잠긴 구조물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환상의 세계로 탈바꿈해 주고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다가

운데 떠있는 어선들 또한 보초를 선 듯이 바다를 지키며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겹다.
갯가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감탄하며 지난 수년동안 전국 해안 갯가를 미친 듯 돌아다니며 해왔던 사진 작업은 나에게서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다.



©이상순_회정당



©이상순_용상

전통과 현대건축 그 점과 선, 색채 조형의 미

이 상 순(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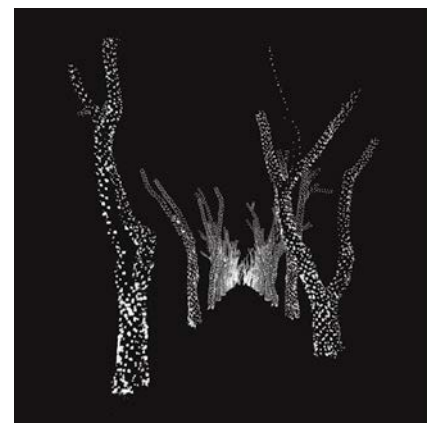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집이 껍데기라면 사람은 알맹이다.
껍데기가 허장성세 쓰잘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의
품격을 보여준다. 전통과 현대 어느 시대든 건축물은
그 시대의 정신과 그것을 건축한 주인과 장인들의
생각과 사람됨을 보여준다.



©이상순_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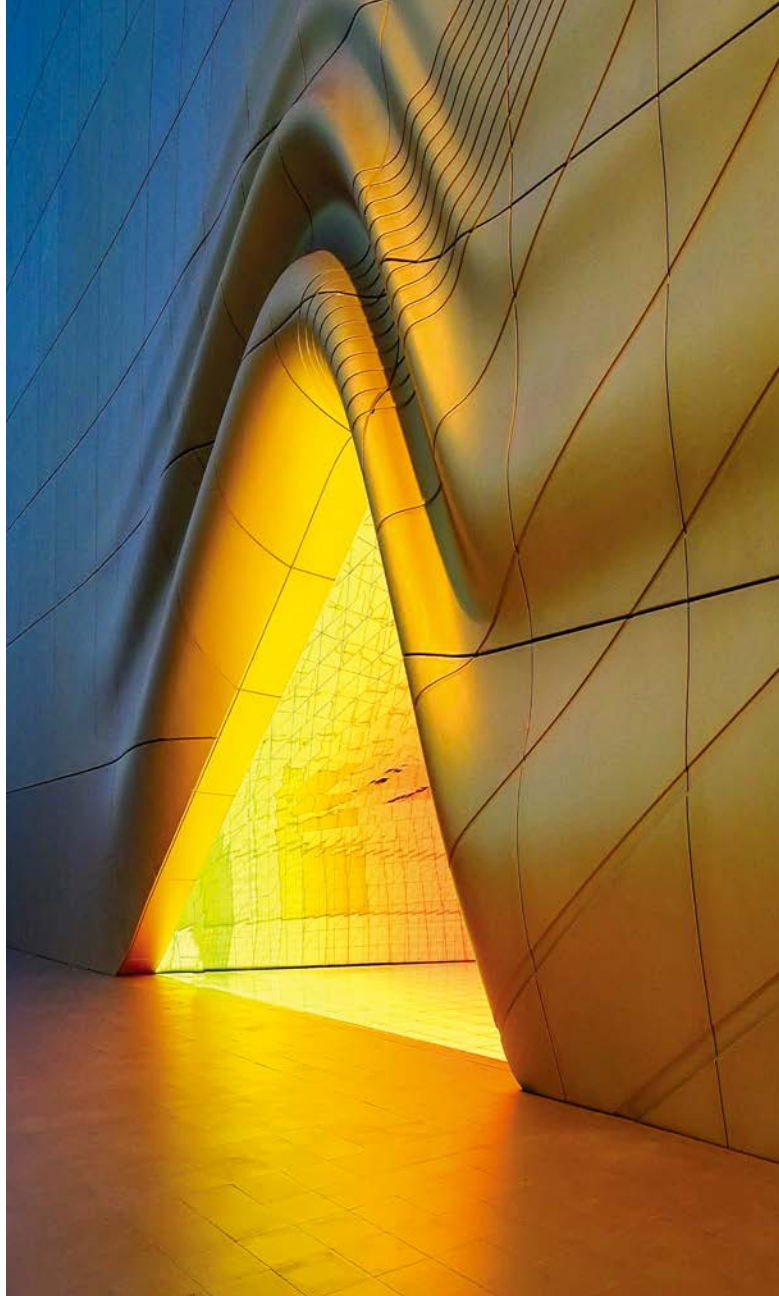
©이상순_활래정



©이상순_판타지(fantasy)



©이상순_터널 2



©이상순_이색지대

나는 대목집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하는 건축 현장에서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건축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넓은 벌판에 기둥이 서고 어느새 지붕 위에 기와를 놓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때면 감탄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사진을 시작하면서 예전의 건축물이 더 새롭게 보이고

한옥 특유의 색감과 정교함에 시선을 머물게 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축물이라고 여겨왔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때면 언젠가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조형의美라는 작품으로 전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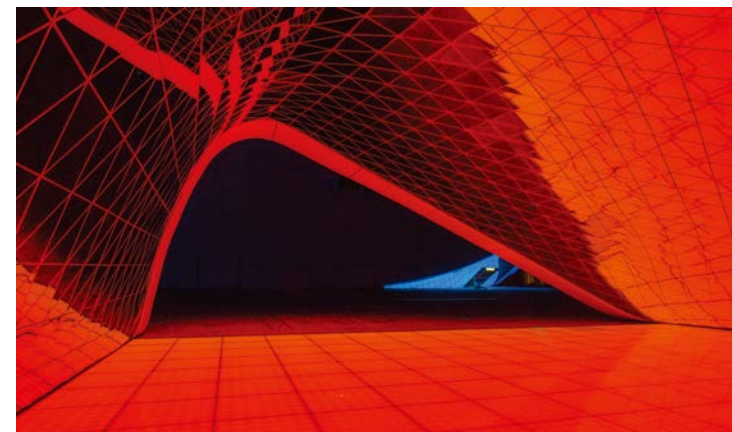
다양한 조형물을 몇 컷의 사진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인 내용과 가치에 한계가 있겠지만 나의 미적인 측면에서 작업을 하였다.



©이상순_트라이 볼(Tri -bowl)

곡선의 미적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옛 전통가옥과 현재의 독특한 건축물에서 점, 선과 색채와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건축 조형물이 문화생활과 하나 되어 화려함 속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은 작품을 보여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작품으로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이상순_이색지대



©김상수_21세기를 바라본다, 50×50cm

믿음으로 안내하는 예술, 인간 내면을 밝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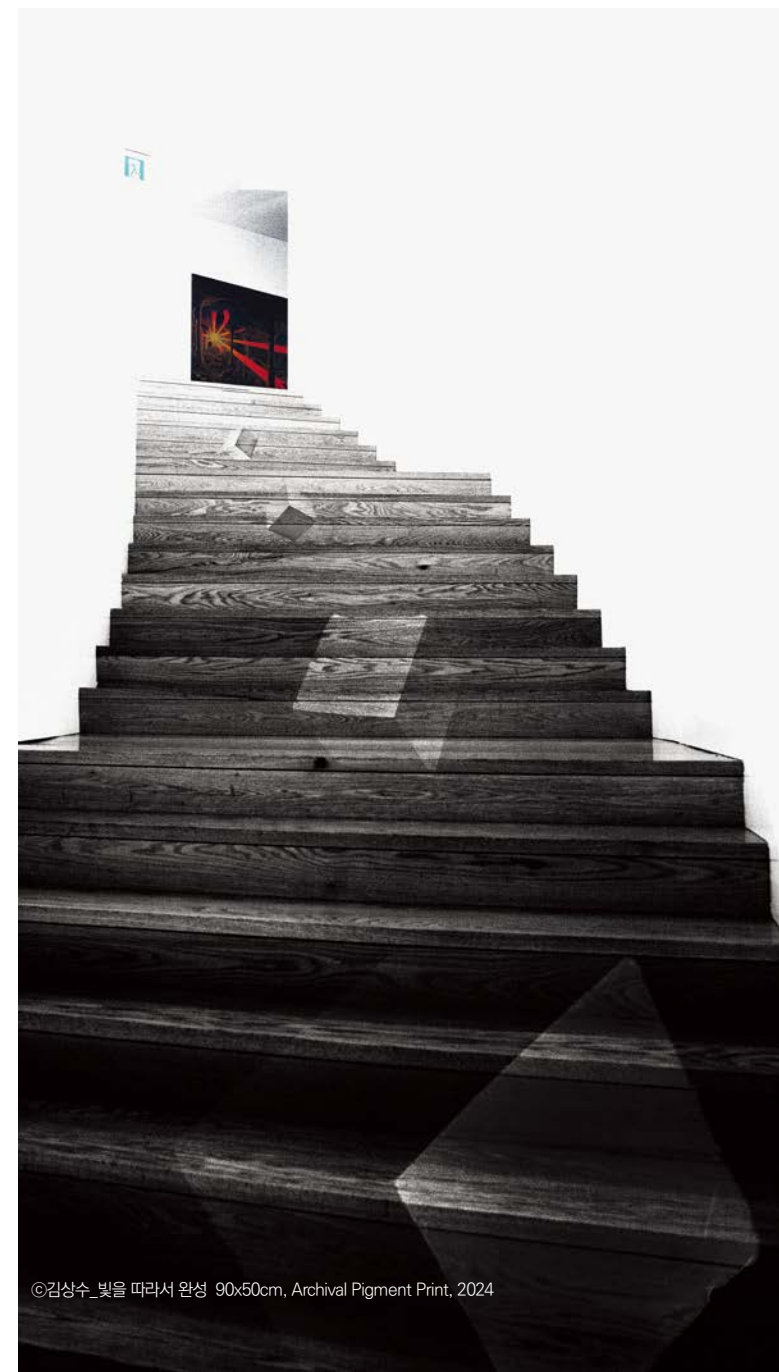
빛과 어둠

김 상 수(용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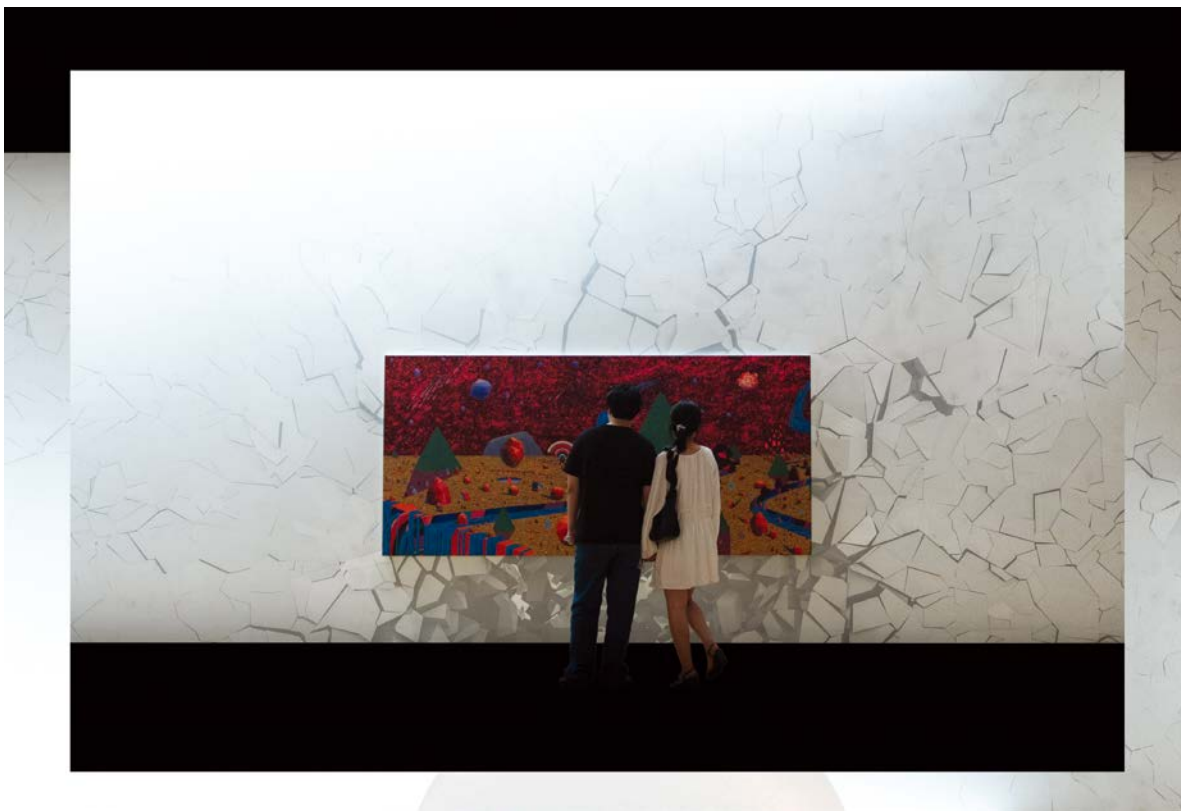


©김상수_비밀완성 50×90cm

어두운 터널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새어 나오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술의 세계가 우리를 위무해서다.
예술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영혼을
일깨워 어둠에서 몸을 일으켜
빛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김상수_빛을 따라서 완성 90×50cm, Archival Pigment Prin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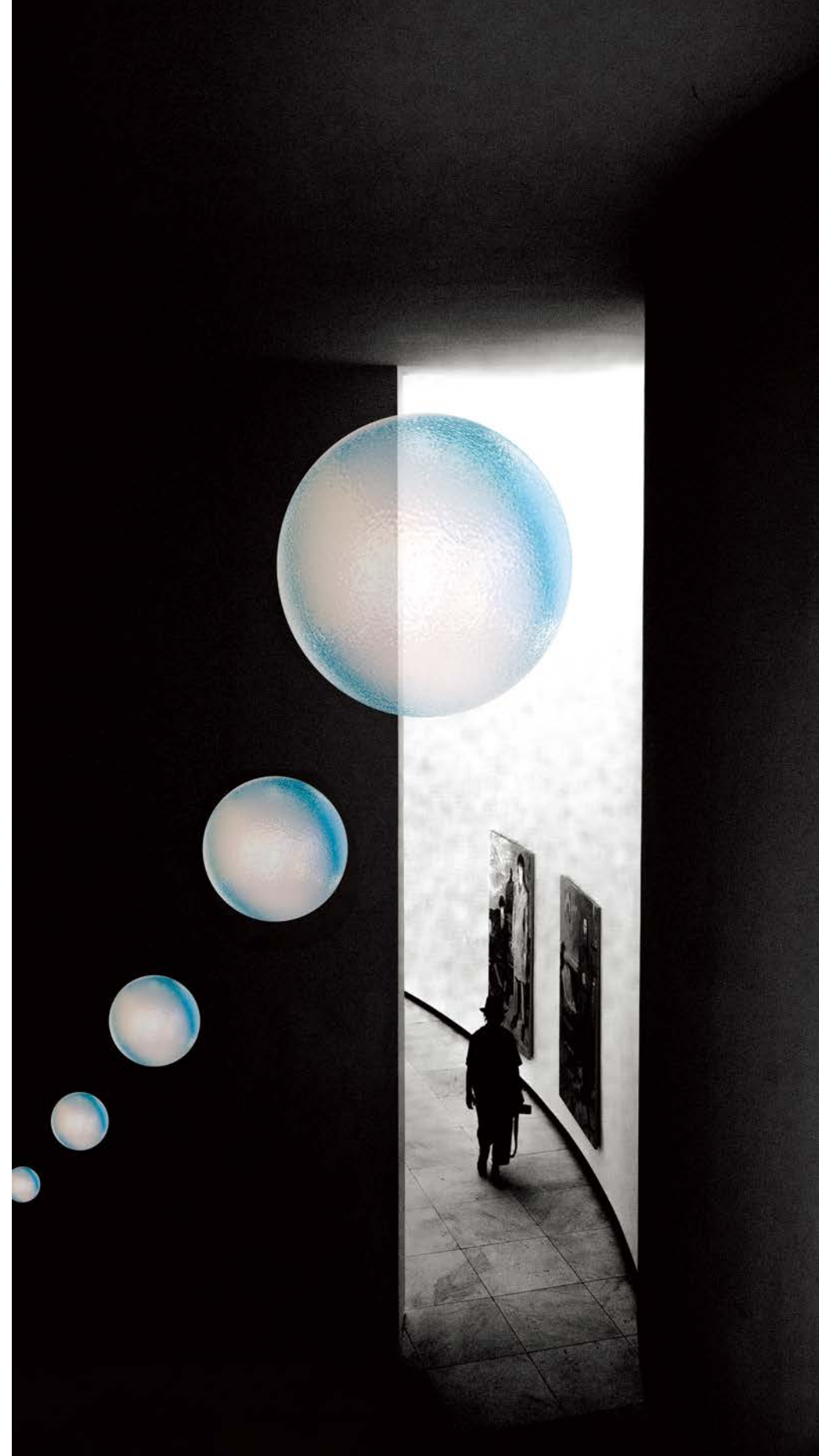


©김상수_서로 다른 시선



©김상수_감성의 차이

예술의 시대적 관점은 종교를 떠나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다양한 종교와 예술의 상호 작용은 현대 시대에까지 미치므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간 내면의 고뇌와 성찰에서 예술가들의 내면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예술의 역할과 가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와 예술이 서로 다른 영역 속에서도 다양하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복합적으로 공통된 창출을 해나가고 있다.
작업 과정 속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인간 내면의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끌어낼 수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의 디지털 각도에서 감성과 자아의 발견을 해보고자 한다.



©김상수_어둠 속에서 내 안을 들여다봐 90x50cm, Archival Pigment Print, 2024

고요한 울림 따라가는 끝 없는 여정
디자인의 감성과
사진의 직관이 만나다

서 상 철(송파구)



©서상철_끝나지 않는 길



©서상철_기억의 말뚝



©서상철_바다의 풍문

“관객이 나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서서, 잠시라도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작업을 지속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산업미술(디자인)을 전공하며, 대학 시절 두 학기 동안 사진학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 시간이 내 사진 작업의 시작 점이 되었고, 이후 30년간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면서 ‘보는 법’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사물을 관찰하는 시선, 공간의 균형감, 빛과 형태의 대화에 민감한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사진은 종종 한 장의 이미지라기보다 시간의 단면이며, 정지된 감정의 파편입니다. 나는 피사체를 오래 응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적인 직감에 따라 셔터를 누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단지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나는 긴 노출을 활용하여 물 위의 질감과 흐름을 비물질화 시키고, 미니멀한 구성 안에서 흑백 또는 저채도 색감으로 절제된 감정을 전달하고 고요와 여백의 미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나에게 있어 시각적 명상이며, 나의 작품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시선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상철_불비불명

“내 사진은 장면이 아니라 감정의 지형을 기록한다.”



©서상철_겨울덕장

작업의 방향성

내 사진은 단순히 장면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그 장면이 품고 있는 감정의 결, 시간의 흐름, 혹은 사물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피사체는 나에게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며, 나는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 “침묵, 기다림, 공기 속의 떨림, 존재와 부재의 경계”를 시각화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나의 디자인적 훈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산업미술을 전공하며 공간과 형태, 비례와 여백을 바라보는 시각을 익혔고, 수십 년 간 디자인 일을 하며 시선의 절제와 균형에 대한 감각을 체화 해 왔습니다. 그 감각은 자연스럽게 사진 작업에도 스며들어, 나의 렌즈는 ‘보는 눈’이자 ‘느끼는 눈’이 되었습니다.



©서상철_고림의 평온



©서상철_노루부

‘디자인적 감성’과 ‘사진적 직관’의 경계에서 고요와 여백의 미를 탐구하고 있다



©서상철_연장의 선

©서상철_잡을 수 없는 너



나는 오래도록 피사체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프레임을 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찰나의 직관으로 셔터를 누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보다,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긴 노출은 사물의 실체를 흐리게 하고, 물과 하늘, 바람과 빛의 경계를 녹여내며 현실과 비현실을 이어주는 문턱을 만들 어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이미지는 고요하면서도 낯설고, 명료하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나는 그러한 시각적 여백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투사하길 바랍니다.

내 사진 앞에 선 누군가가 잠시라도 멈춰 서서,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이 고요한 울림으로 남는다면, 그것이 내가 이 작업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파동까지 담아내려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디자인적 구조 위에 깊은 감정의 굴절을 얹어, 누군가의 내면 풍경까지 닿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JR 크로니클 교토 2024 (JR Chronicle Kyoto 2024)

Scenographer : Hiromu Konishi (miso)

교토역 빌딩 북쪽 통로의 벽



©JR_교토 연대기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성은 이 모든 자질과 경험 등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교토그래피 2025의 주제인 "인간성(HUMANITY)"은 사랑, 공감,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의 힘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일본과 서양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을 통해 인간 삶의 복잡성을 조명합니다. 관계, 조화, 상호의존을 중시하는 일본에서 인간성은 타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집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성과 자유를 찬양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공동선과 보편적 도덕 원칙을 중시

JR

프랑스 출생. 파리 외곽에 사는 젊은이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 《Portrait of the Times》(2004-06)를 제작한 후, 그는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리장벽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초상화(2007), 키베라의 기차 칸에 나타난 여성의 눈, 케냐의 거대한 빈민가(2009), 미국-멕시코 국경의 울타리에서 엿

해 왔습니다. 2025 프로그램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을 비추고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진의 힘을 통해 인류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 교토국제사진페스티벌 공동 창립자 겸 공동감독
루실 레이보스(Lucille Reybose) & 유스케 나카니시(Yusuke Nakanishi)

보이는 거대한 아기(2017) 등 실물보다 큰 설치 작품은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내러티브를 확장하고 대화를 장려한다.

JR은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브루클린 미술관(2019년)과 유럽 사진박물관(2018년)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2022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2019년), NGV 트리엔날레(2020년)에서 작품과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jr_뉴욕시 연대기



교토 연대기, 클로즈업, 일본, 2024 © JR

프랑스 예술가 JR은 전 세계 공공 장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대형 초상화를 제작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브라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인도의 빈민가와 같은 빈민가의 건물 외벽에 부착된 여성 거주자의 눈의 생생한 이미지. 두 나라에 있는 같은 사람들의 거대한 초상화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벽에 나란히 부착되어 있다. JR의 작업은 정치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도호쿠를 방문하여 전용 트럭에 이동식 사진관을 설치하고 피해 지역 사람들의 초상화를 촬영하여 A0 크기로 인쇄하여 도호쿠 지방 각지에 주민들이 직접 전시했다.

JR의 작품을 통해 주민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 작품과 도시 경관을 '창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인식에 맞서는 질문을 던진다. JR은 그런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예술을 정력적으로 창작하고 있다.

KYOTOGRAPHIE 2025에서는 Chronicle Kyoto 2024가 전시되

었다. 2017년, JR은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 참여가 가능한 화려한 벽화 시리즈인 크로니클(Chronicle)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혼자 또는 그룹으로 사진을 찍고 콜라주하여 각 사람의 개성, 지역의 특성, 때로는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내러티브와 사실적인 구성을 만든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쿠바 및 기타 도시에서 일을 했다.

2024년 가을, JR과 그의 팀은 교토역 앞, 교토 시청 앞, 가모가와 삼각주, 데마치 마스가타 쇼핑가, 오히라 등 교토의 8개 장소에 모바일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505명의 인물 사진을 촬영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마이코, 다족, 승려, 장인, 드래그 퀸 등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야와 시조 거리와 같은 전통적인 거리 풍경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는 교토의 풍경에 콜라주되어 길이 5m, 너비 22.55m의 거대한 사진 벽화로 교토역의 벽에 작품을 설치하였다.



©JR_Le Cronache di Napoli_이탈리아

대표작

Le Cronache di Napoli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에서 영감을 받은 JR의 연대기 시리즈는 도시 전체가 예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2024년 9월, 프랑스 예술가 JR과 그의 팀은 연대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사니타 광장(Piazza Sanità), 단테 광장(Piazza Dante), 푸오리그로타(Fuorigrotta), 메르젤리나(Mergellina), 산 조반니 아 테두치오(San Giovanni a Teduccio), 카보우르 광장(Piazza Cavour), 보르고 디 산안토니오(Borgo di Sant'Antonio) 등 나폴리의 7개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교류했다. 각 참가자는 오디오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목소리를 녹음하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초대되었다.

그 결과 606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인상적인 사진 벽화인 Le Cronache di Napoli가 탄생하여 도시의 사회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친밀한 창을 제공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제작된 JR의 첫 번째 크로니클 프로젝트인 이 작품은 개인의 이야기와 집단적 표현을 통해 나폴리 정체성의 깊이와 다양성을 담았다.

마이애미 연대기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에서 영감을 받은 JR의 연대기 시리즈는 도시 전체가 예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상상한다.

2022년 11월, 53피트 길이의 트럭 안에 설치된 JR의 모바일 스튜디오는 마이애미를 구성하는 10개의 다른 지역을 방문했다.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초상화를 찍을 수 있었다. 각 참가자는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오디오 부스에서 목소리를 녹음하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질문을 받았다. 그 결과 1,048명의 이야기를 담은 매우 사실적인 사진 벽화가 탄생하여 마이애미 생활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역할에 대한 창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JR의 가장 복잡하고 장대한 벽화 중 하나인 마이애미 연대기는 2023년 12월 아트 바젤(Art Basel)에서 두 개의 파사드에 걸쳐 데뷔했다. 벽화를 둘러보고 마이애미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예술가, 서비스 종사자, 사업주, 해변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라스 크로니카스 데 쿠바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에서 영감을 받은 JR의 연대기 시리즈는 도시 전체(이 경우 국가)가 예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2019년 12월, JR과 그의 팀은 이동식 사진 스튜디오를 가지고 쿠바 전역을 여행하며 12개 도시를 방문하고 각계각층의 수백 명의 쿠바인을 만났습니다. 각 참가자는 오디오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목소리를 녹



©JR_라스 크로니카스 데 쿠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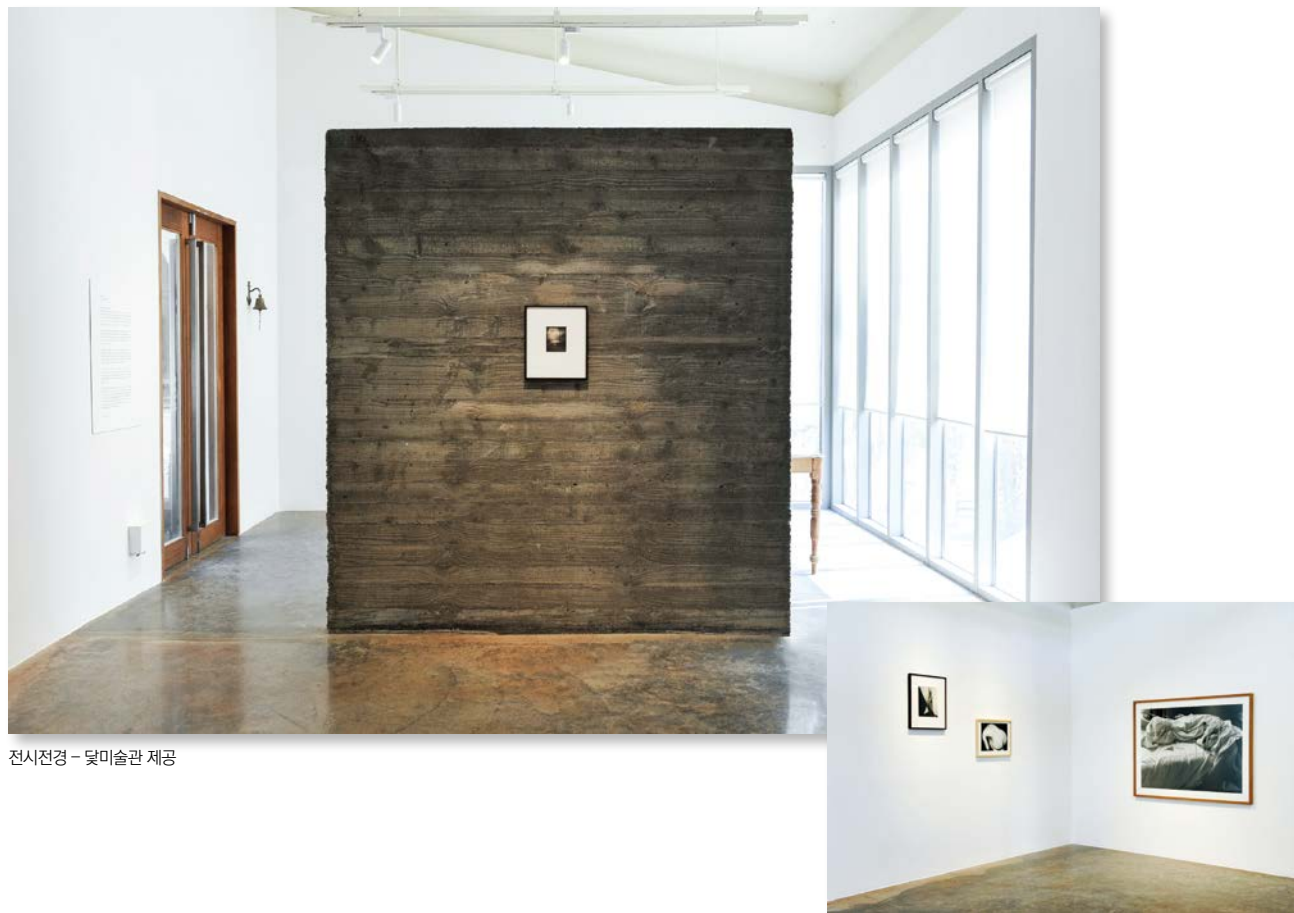
음하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845명의 개인이 등장하는 인상적인 사진 벽화인 Las Crónicas de Cuba가 탄생하여 국가의 사회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친밀한 창을 제공합니다. 스페인어로 제작된 JR의 첫 번째 크로니클 프로젝트인 이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집단적 표현을 통해 쿠바 정체성의 깊이와 다양성을 포착합니다.



©JR_마이애미 연대기

흑백 계조에 담은 ‘투명한 울림’ 관객 앞으로 이모젠 커닝햄 사진전 – Stillness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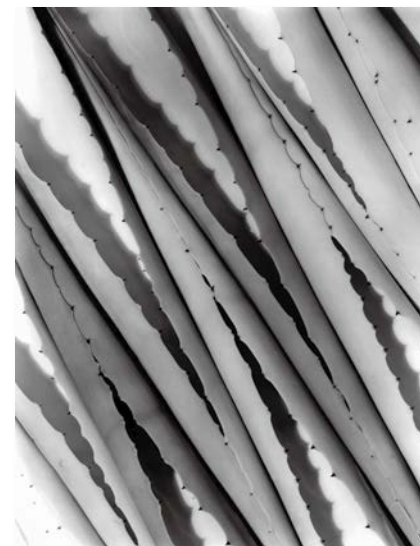


전시전경 - 닷미술관 제공

사진계에서 세계 3대 여류 사진가로 손꼽히는 이들이 있다.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한 도시인들과 이주 농업 노동자 가족들의 참상을 대중에게 알린 다큐멘터리 사진가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 1895~1965)’, 최초의 여성 전쟁 특파원이었던 포토저널리스트 ‘마가렛 버크 화이트(Margaret Bourke White, 1906~1971)’, 20세기 현대 사진 미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이모젠 커닝햄(Imogen Cunningham, 1883~1976)’이 그들이다.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닷미술관에서는 3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2025년의 첫 전시로 이모젠 커닝햄의 사진전 〈Stillness〉를 선보이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조명하고 있다.

깊은 흑백의 계조에 담긴 그녀의 이야기가 투명한 울림으로 이곳을 채웁니다. 때론 그림처럼, 꿈처럼, 무엇보다 선명한 사진의 묘사력과 재현을 믿었던 그녀에게 촬영이란 또렷한 인식의 실천이자, 직관적 반응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Agave Design 2, c.1920s. archival carbon print, 15 5/8×12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Two Callas, c.1925. archival carbon print, 15 11/16×12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Magnolia Bud, 1920s. platinum print, 6 5/16×4 15/16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Magnolia Blossom, Tower of Jewels, 1925. archival carbon print, 16 3/16×12in

입니다. 한순간도 같지 않은 시간을 멈추는 작업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라봄’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며, 그녀는 이러한 ‘존재의 의식’으로 ‘사진’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진寫眞’에는 사물의 진실을 담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외관을 담으면서 동시에 그 외관을 벗기고 본질에 닿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대상과 나의 경계, 이름과 형태가 지워지고 용도가 사라진 후, 그 고유함 속에 선명하게 남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를 매혹시킨 정원의 식물들, 음악이 흐르는 계단, 고유한 존재의 표정과 움직임… 각각의 피사체 속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작가의 자화상. 세월에 변해가는 자신의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Self-Portrait, 1906. archival carbon print, 12×15 7/8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The Unmade Bed, 1957. archival carbon print, 36×46 7/16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Wall in San Francisco, No. 11, undated. vintage gelatin silver print, 7 1/2×9 7/16in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 눈은 렌즈의 작은 구멍, 그 속의 아득한 검은 우주를 응시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 기획자 주상연

이모젠 커닝햄은 18세 때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통신판매로 4x5 뷰카메라를 사서 독학으로 사진을 시작했다. 사진작가로서의 과학적 배경지식을 위해 화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 회화주의 사진의 대가 ‘게르트루드 카세비어(Gertrude Käsebier)’의 사진집을 보고 사진에 매진하게 된 그녀는 대학졸업 후 ‘에드워드 커티스(Edward S. Curtis)’의 스튜디오에서 백금인화와 네거티브 필름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1910년에 초상사진 스튜디오를 열고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해 유럽 회화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시작된 회화주의적 예술사진과 초상작업으로 명성을 쌓아갔다. 결혼 후 어린 아들 셋을 키우느라 아이들과 정원의 식물들에 국한되었던 사진작업은 몇 년 후 이사를 가서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과 같은 지역 예술가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다시 제대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21년부터 식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으로 그 안의 패턴이나 디테일한 형태, 질감 등의 추상적인 식물 이미지를 묘사하며 오늘날의 대표작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후 마사 그레이엄, 프리다 칼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등 예술가들의 초상사진과 함께 뉴욕 스트리트 다큐멘터리 사진작업 등 리얼리즘을 탐구하며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자리매김했다. 1932년에는 ‘안셀아담스(Ansel Adams)’, ‘에드워드 웨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Hands and Aloe Plicatilis, 1960. archival carbon print, 14 5/8×12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Stairway in Old Art Building, Mills College, 1920. archival carbon print, 15 3/8×12in



©이모젠 커닝햄 Imogen Cunningham, Shells 2, 1930. archival carbon print, 8 7/8×11 3/4in

스턴(Edward Weston)’ 등과 함께 ‘f/64’ 그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카메라의 기계적인 재현능력과 사실적인 특성을 수용해 극사실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형식주의 미학을 통해 당시 미국 사진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진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적 특징을 띤 스타일을 최초로 표현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스트레이트 사진이라는 새 장르를 열기도 하였다. 1947년 스튜디오를 오픈한 그는 사진 강의를 하면서 많은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아우구스트 쟈nder(August Sander), 만 레이(Man Ray)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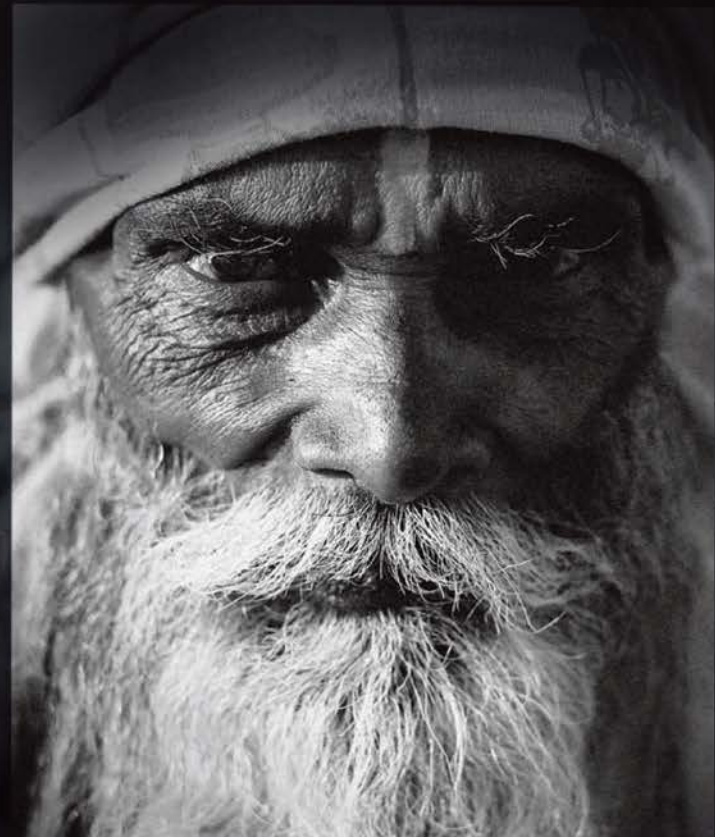


전시장 전경 - 닷미술관 제공

사진, 유럽 거리의 다큐멘터리 작업 등 활발한 사진 활동과 작업을 이어나갔다. 1975년 92세의 나이에 90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초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미완성으로 다음 해 삶을 마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례적이었던 사후 작품관리를 위한 'Imogen Cunningham Trust'를 설립해 그의 선각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아흔 살이 넘은 나이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은 이모젠 커닝햄은 사진 예술에 대한 고요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현재까지도 세계 사진사에서 중요한 작가로 연구되고 있다. 현재 그의 작품들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 구겐하임미술관을 비롯해 세계의

주요 미술관들에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부지속에서 자연과 공명하는 닷미술관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사진가의 길을 개척하고 세 아들의 어머니이자 사진교육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진에 그대로 담아낸 커닝햄의 작품 속에서, 고요한 울림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영감을 전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많은 작품들에 관심이 생겼다면 'www.imogencunningham.com' 을 방문해 보자. 전시장의 오리지널 프린트보다는 못하겠지만 'IMAGE ARCHIVE'라는 잘 정리된 방대한 아카이브가 있어 이모젠 커닝햄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벅빔한 사진이
진짜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자유 평등 평화 실현할 곳 어디일까? 民國이나 vs 王國이나

글 사진제공_최승언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한다. 자유롭고 차별받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꿈꾼다. 그러나 인류 사회는 한 번도 정의를 실현했던 때가 없었다. 완전히 평화롭고 평등했던 때가 없었다.

누군가는 좋은 세상이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정의롭지 못했고 자유를 구속당했던 악몽같은 삶의 현상이었다. 왜 그랬을까? 권력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그 권력은 누구나 가질 수 없도록 한정되어 있어서다. 이 한정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지구촌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권력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인해 약자들의 목숨이 희생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세계 각국의 국민은 권력에 억압되어 부자유 불평등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할까?

“선진국이 되면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선진국이라도 그 정도가 덜할 지언정 완전한 자유 평등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다. 거기다 권력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의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인간 역사는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소수와 다수 국민간 대립이었다. 오랫동안 소수가 권력자가 우위에 있었지만, 근세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아직도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구는 다수 국민에게 권력이 실제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를 저지하려 한다.

국가에 필요한 이유는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다. 개인이 집단을 이루어 살면 이점에서 이롭다.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군집을 이루는 초식동물처럼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와 형제들의 보호를 받고 자라



태양왕 루이 14세, 왕권신수론을 주장했다



다윗 왕. 성경에서도 왕은 하늘에게 정해준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419 혁명



419 제왕적 권력과 싸운 어린 학생들

서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 이런 가족 단위의 집단이 씨족 부족으로 발전했다가 마지막으로 이룬 것이 국가이다.

개인이 힘 있는 왕에게 의지하며 보호받으며 잘 살고자 한 것이 국가와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탄생한 배경이다. 그러나 큰 기대를 걸었던 왕에게 그 백성들이 수천 년간 착복 당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왕권에 저항했다. 그 결과로 오늘날 많은 왕국이 무너지고 백성이 주인인 공화국(민국)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위태롭게 하는 백성은 역도로 몰아서 죽여왔다. 그 권력을 자손만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권력을 맞본 자의 속성이다.

왕권이 왕가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 영국의 제임스 왕은 권력은 신에게 받은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을 들고나왔다. 프랑스 루이 14세도 짐이 국가다 하며 왕권신수설을 옹호했다.

이보다 먼저 동양에서는 “하늘이 한 사람을 지정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왕을 선택한다”고 보았으니 이 역시 왕권신수설과 닮았다. 신에게 받은 이 권력에 대적하는 자는 하늘의 이름으로 처단하여 왕권을 오래도록 누리려 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서 이들은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 쿠데타에 성공한 자는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 고려의 왕 씨를 무너뜨린 조선도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는 그들이 용의



2024년 한국의 계엄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손임을 강조했으므로 이 또한 왕권신수설과 결이 같다 하겠다.

고려 무신시대 노비 만력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면서 왕권 신수설에 정면 도전했다가 진압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서양에서의 왕 권신수설은 위로는 로마 교황 및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견제하고 아래로는 봉건 제후가 국왕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서양권에서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이들은 장 보댕(Jean Bodin), 프랑스의 루이 14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 등이 있다. 보댕의 이론은 프랑스 절대왕정 확립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의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데 이바지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는 지나친 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저항이 높아지자 국왕의 권력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자 이 왕권신수설을 주장했다. 그는 제왕도에서 “군주제는 신이 명령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이 비판할 권리가 없다. 국민은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뿐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고 설파했다.

그는 의회에서 왕정 비판하는 것은 왕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의 정치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들은 왕권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프랑스 혁명에서 민중들이 일어나 왕권에 저항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프랑스 시민들이 피흘려 맛본 짧은 성취감이 다시 왕정의 복고로 되쳐기당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었기에 이 시대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국민들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공화정도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이 되었다. 그 민주주의 정신은 세계에 파급되었고 그 여파로 한반도에서도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케 했다.

국가의 권력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국가이고 국민에게 있으면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레스퍼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직역하면 '공공(publica)의 것(res)'이라는 뜻으로 공공의



홍콩의 시민 시위대



홍콩의 우산 혁명. 중국의 압제에 저항한 시위 사례로 꼽힌다

일, 행사, 재산 등의 의미로 쓰인다.

영어로는 리퍼블릭이지만 중국에서 민국(民國), 일본에서는 공화국으로 번역되었으므로 왕의 국가가 아닌 민국(백성의 국가)이며 바로 공화국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했다면 이 말은 대한은 국민의 나라이며 백성이 주인인 공동으로 소유한 나라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이름만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들이 많다.

북한의 국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름만 보면 국민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김씨 세습왕조 국가이다. 대한민국도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실제로 민주국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길었다. 저항하는 민중의 피가 필요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권력을 손에 쥐여 주면 권력을 쥔 독재자들이 스스로 왕이나 된 듯 착각하고 오히려 그 권력을 준 국민을 억압해왔다.

이에 국민이 일어나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권좌에서 끌어 내렸다.

네 명이나 감옥에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이 실천에 옮기는 나라임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이제 세계 각국에 파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다른 모든 국가가 권력자들도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전쟁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뒤쳐진 듯 보였던 한국의 정치가 올바르게 선다면 여러 나라가 만국이 대한민국을 다시 볼 것이다.

정치만 잘되면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들 해왔다. 이제 한국은 대통령보다 국민이 강하고 헌법에 적힌 대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그 정치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발전해야 한다. 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세계로 수출되어 주인을 지배하려는 권력자들은 축출되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중복지 되겠다는 이들을 잘 판별해서 일꾼으로 세워야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잘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지구촌에서 자유평등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 AI 시대의 새로운 사진 예술

글 사진제공 _ 조주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레교육원 <특별한 사진>Ai와 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원 주임교수)

“사진을 찍지 않고도 사진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러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Midjourney나 DALL·E 3와 같은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가 등장하며, 카메라로 실제 장면을 포착하지 않아도 마치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진 예술의 개념과 경계를 흔들며 전통적인 사진가와 예술계에 미학적, 사회문화적, 철학적 도전을 던지고 있다.

무엇이 사진을 예술로 만드는가?

AI 이미지의 예술성을 논하기에 앞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술로서의 자리를 쟁취해온 사진의 예술성을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진은 19세기 중반 등장 이후 오랫동안 ‘기계적 복제물’로 여겨지며, 회화 중심의 예술 담론 속에서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사진은 과학적 기록이나 보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창작보다는 사실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며 사진은 점차 미술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단순한 현실 재현을 넘어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했다. 현대 사진가는 주관적 해석과 미학적 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창조하며, 사진의 예술성을 확장시켜왔다.

이러한 변화는 사진이 단순한 기록 매체에서 벗어나 예술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사진을 독립된 예술 장르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진을 예술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작가의 의도성과 창작 행위가 사진을 예술로 만든다.

회화가 물리적 수작업을 통해 이미지를 창조하듯, 사진 또한 작가의 심미적 선택과 개입을 통해 하나의 시각적 표현물로 구성된다. 구도, 프레임, 노출, 색감, 인화 방식 등의 결정은 모두 창작 행위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사진은 단순한 현실의 복제가 아닌 해석과 사유의 결과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둘째, 수용자와의 상호작용과 감정적 반응은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구성한다.

예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며, 수용자의 해석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사진이 인간의 감정, 기억, 사유를 자극하며 내면적 경험을 유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예술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언급한 ‘아우라’ 개념과도 연관되며, 사진이 단순히 대상을 복제하는 기술을 넘어 존재와 시간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진이 시대성과 예술적 지속성을 내포할 때, 그 예술성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예술은 단기적 유행을 넘어서 역사성과 맥락성을 포함한다.

사회적 사건, 문화적 기표, 시대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포착하고 해석하는 사진은 회화나 조각 못지않은 예술적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개념 사진은 특정 시기와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사진의 예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사진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를 넘어서 작가의 주체성, 관람자의 반응, 그리고 시대와의 관계성이라는 복합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미지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술로서의 사진은 여전히 의미를 창출하고 성찰을 유도하는 시각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사진은 더 이상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창조적 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 Midjourney와 DALL·E 3의 등장

21세기 들어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창작 방식이 현실이 되었다. Midjourney(2022년 공개)나 DALL·E 3(OpenAI가 2023년에 선보인 최신 버전) 같은 모델들은 거대한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생성형 AI로서, 사용자가 상상력을 동원해 입력한 텍스트(prompt)를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도구이다. 카메라로 빛을 포착해 현실을 기록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이제는 렌즈 없는 카메라가 등장한 셈이다.



©Michael C. Brown/ AI 이미지/ 일부 쿠바인들이 시도하는 하바나에서 플로리다까지의 위험한 90마일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Michael C. Brown/ AI 이미지/ 피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AI 이미지

〈90마일〉, Michael C. Brown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토보그 페스티벌 2023에서 마이클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AI 리포타주 이미지 실험인 〈90마일〉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 작업은 쿠바인들이 하바나에서 플로리다로 향해 90마일의 바다를 건너게 된 배경이 된 쿠바 사회의 역사적 사건과 현실을 AI 이미지를 통해 탐구하는 포스트 포토그래피 실험이다. 브라운은 직접 촬영이 어려운 이민 여정을 Midjourney 기반 AI를 활용해 다큐멘터리적 분위기의 이미지로 시각화하였고, 일부러 기술적 미완성의 흔적을 남기며 AI의 발전 과정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제 저널리스트 출신 사진가 마이클 크리스토퍼 브라운(Michael C. Brown)은 쿠바의 역사를 다룬 프로젝트 〈90 Miles〉에서 카메라 대신 Midjourney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선보였으며, 그는 AI의 극사실적 이미지 생성 능력과 손쉬운 활용 덕분에 이제 누구나 렌즈 없이도 원하는 주제의 사실적인 보도 이미지를 창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축적된 사진사의 역사와 협업하듯 과거, 현재, 미래의 현실을 시각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만큼 텍스트 기반 AI는 이미지 생산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사진가의 창작 도구 상자에 전혀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고 있다.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의 정체성과 미학적 딜레마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진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가는 원래 세상의 한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사람이나, 이제 키보드로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이미지를 만드는 창작자가 등장하였다. 한 사진 평론가는 전통적 사진이란 사람이 세상 속으로 나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한 순간을 포획하는 일인 반면, AI 이미지 생성은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 단어들을 이미지로 형태화하는 일이라고 비유하였다.

존 사코우스키(John Szarkowski)가 과거 사진 행위를 “카메라로 겨

냥하는(act of pointing)” 것으로 정의하였다면, 이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act of prompting)” 것이 새로운 사진 행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키보드로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이 사진가인지, 아니면 다른 범주의 예술가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현재 논쟁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용어도 생겨나고 있다. 페루의 사진가 크리스티안 빈세(Christian Vince)는 AI 이미지 생성자들을 가리켜 “프롬프트그래퍼(promptographer)”, 즉 프롬프트(문장)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독일 예술가 보리스 엘다그센(Boris Eldagsen)도 이 용어에 공감하며, AI로 만든 사진같은 이미지를 사진과 구분하기 위해 “프롬프트그래피(promptography)”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AI는 의지가 없기에 모든 생성은 인간의 프롬프트로 시작된다.”고 하며, 마치 “사과와 감자는 다르듯(Apple is not potato)” AI 이미지와 사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사진(Photography)”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빛으로 그리기(drawing with light)”를 뜻하며, AI 이미지는 빛이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용어의 어원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래서 AI 생성 이미지를 “합성 사진” 또는 “컴퓨터이셔널 포토그래피(계산사진술)” 등으로 부르자고 제안하고, “신토그래피(synthography)” 같은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AI 이미지 창작이 전통 사진과 철학적으

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AI로 만든 이미지는 겉보기에는 실제 사진처럼 극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필름 카메라로 찍은 빈티지 사진의 질감까지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카메라 없는 사진”은 현실의 존재를 index(지표)로 삼는 전통 사진의 본질적 특성을 결여하고 있다. 사진이 그동안 현실의 한 단면을 포착한 증거이자 기록으로 신뢰받아 왔다면, AI 이미지에는 애초에 현실과 직접 맞닿은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적으로는 장면의 실재성과 인덱스적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AI 이미지와 사진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존재한다. 결국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라는 등장은 예술 철학과 미학의 기본 개념(사진이란 무엇인가, 예술 창작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통 사진가들의 반응: 비판과 수용 사이에서

컬러필름, 폴라로이드, 포토샵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진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왔다. 전통적인 사진가들, 특히 카메라를 오랜 시간 다뤄온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강한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AI는 사진이 아니다” – 전통 사진가들의 거부감

다수의 사진가들은 AI 생성 이미지를 사진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독일 사진가 보리스 엘다그센은 AI로 만든 이미지로 2023년 소니 월드 사진상(Open 부문)에서 우승한 뒤, 고의로 수상을 거부하며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는 “사진계가 AI 이미지를 어디까지 사진으로 받아들이지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이미지와 사진은 다르며, 같은 사진 대회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 AI는 사진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엘다그센처럼 사진과 AI 이미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은 사진 고유의 가치와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사진 공모전이나 언론 사진 분야에서는 AI 생성 이미지가 진실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크다. 뉴스 보도용 사진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AI 이미지는 사실 여부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저널리즘 윤리와 충돌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력 사진 공모전과 기관들은 AI 이미지 출품을 제한하거나 명확한 라벨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동료 사진가에 대한 박탈감도 존재한다. “카메라로 피담 흘려 찍은 사진과 책상 앞에서 글로 만든 이미지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억울하다”는 심경이다. AI가 값싸고 손쉽게 콘텐츠를 대량 생산함에 따라 이미지 홍수와 사진가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현실적 우려도 존재한다. 요컨대 전통 진영의 비판은 예술적 순수성, 진정성, 그리고 경제적 생태계에 대한 걱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보리스 엘다크센Boris L. Dawson이 출품한 Ai이미지./2023년 소니 월드 사진상(Open 부문)에서 우승한 뒤, 고의로 수상을 거부하며 논쟁을 촉발시켰다.

“새로운 도구이자 기회” – 변화에 적응하는 사진가들

반면 변화를 수용하며 AI를 활용하려는 사진가들도 존재한다. “AI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분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명확히 존재한다. 이들은 AI를 창의적인 도구로 간주하고, 사진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실험을 시도한다. 일부 사진가들은 AI를 또 하나의 예술적 도구(tool)로 간주하며, 카메라와 포토샵 등에 이어 새 매체를 자신의 작업에 통합하고 있다. 또한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에도 AI 기술이 접목되어, 배경을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물체를 제거·보정하는 등 사진가들의 후보정 작업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진가들은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있으며, 일부는 AI와 사진의 융합 지점에서 새로운 창작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진 예술의 경계: 사회문화적 의미와 담론

AI 이미지 생성의 부상은 사진 예술의 정의와 경계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사회문화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예술 개념의 확장과 충돌

AI의 등장으로 “예술가란 누구이고, 창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도 작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창의성의 정의를 어떻게 재규정해야 하는지, 인간 예술과 기계 산출물 사이의 균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담론이 예술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는 저작권 개념, 진정성(진짜 예술인가에 대한 믿음), 창의성의 정의 등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촉진하고 있다. 기술이 주는 가능성은 인상적이나, 인간의 예술적 고유성에 대한 존중과 기계의 잠재력 사이에서 새로운 윤리와 미학의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결국 사진 예술뿐 아니라 예술 전반의 철학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사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인식 변화

“보는 것이 믿는 것(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격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들이 인터넷에서 실제 뉴스처럼 유통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람들은 사진 한 장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는 시각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사진의 증거로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보도사진 분야에서는 이미지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투명하게 밝히는 윤리 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AI 생성 이미지에는 명시적으로 라벨을 붙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진작품 시장에서는 AI 작품인지 여부를 표시하거나, 인간이 카메라로 찍은 “순수 사진”임을 인증하는 배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진짜 사진’의 가치 재발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사진가들은 아날로그 필름이나 대형 카메라 등 옛 방식으로 회귀해 작품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진 예술이 현실과 허구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술계의 담론과 융합 시도

예술 및 사진계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토론과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유럽 월간사진 페스티벌(EMOP)의 일환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RIVALS – Photography vs. Promptography」 전시에서는 전통 사진 작품과 AI 생성 이미지 작품을 각각 18점씩 한 자리에 배치하여, 두 매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직접 비교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전시는 사진을 “빛·시간·물질의 상호작용”으로 현실을 기록하는 매체로 정의한 반면, AI 이미지는 “텍스트와 인간의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지휘·연출하는 행위”의 산물이라 소개하며, 두 창작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전시를 기획한 엘다그센은 “사진 페스티벌과 기관들이 사진과 프롬프트그래피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해줄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진이 지닌 AI 대체 불가능한 강점은 무엇이고, AI가 할 수 있지만 사진이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전시의 취지라고 밝혔다.

〈참고 사이트〉
<https://museemagazine.com/culture/2025/2/17/photo-journal-monday-rivals-photography-vs-promptography>

맺음말: 끝없는 논의, 그리고 새로운 예술의 지평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의 등장은 기술 발전이 예술 세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카메라의 등장 이 회화 예술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듯,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사진 예술의 개념과 제작 방식, 나아가 예술가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전통과 혁신의 충돌 속에서 누군가는 위기를 말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창조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사진 예술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미학적·철학적 성찰과 사회문화적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사진가와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결국 사진이든 AI 이미지가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창작자의 의도(intention)와 이야기(story)이다. 기술은 바뀌어도 예술로서 감동을 주는 이미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될 것이며, 사진 예술의 지평은 AI 시대에도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AI 시대에 사진은 더 이상 서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문장을 조합해 생성된 이미지가 현실보다 더 생생해 보이기도 하며, 어떤 장면은 인간의 기억처럼 왜곡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들이 사진 예술을 대체하는가가 아니라, 사진 예술의 ‘언어’를 얼마나 확장시키는가에 있다. 우리는 지금, 카메라 뒤가 아닌 키보드 앞에서 새로운 시각 예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 자료〉
Eldagsen, Boris – “AI는 사진이 아니다”: 소니 세계사진상 수상 거부와 촉발된 논쟁theguardian.com theguardian.com
Fast Company – Promptography: AI 생성 이미지를 구별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와 정체성fastcompany.com fastcompany.com
FOMU (Fotomuseum Antwerp) – The Role of the Photographer in the Age of AI: AI 시대 사진가의 역할과 윤리fomu.be fomu.be
Digital Camera World – Photojournalist uses Midjourney…: 사진가 Michael C. Brown의 AI 활용 사례와 논란digitalcameraworld.com digitalcameraworld.com
Hyperallergic – Viral “Photographer” Reveals His Images Were AI-Generated: AI 이미지로 촬영한 책한 사례와 그 창작 과정hyperallergic.com hyperallergic.com
Fstoppers – The Great AI Debate…: 사진 커뮤니티의 견해 – AI를 위협보다 기회로 보는 시각fstoppers.com
EMOP Berlin – RIVALS – Photography vs. Promptography: 사진과 AI 작품을 동시에 다룬 전시 기획 의도digitalcameraworld.com digitalcameraworld.com
Xpert.Digital – AI와 이미지 제작의 윤리: AI 창작물 확산이 촉발한 저작권·진정성 논쟁

2025년 제2차 이사회 결과

일 시 : 2025년 5월 22일(목) 오후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6명, 출석 62명, 위임 13명

출 석 : 유수찬 이사장, 선종백, 백만중, 이항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곽준석,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삼택, 김서윤, 김양호, 김영록, 김윤정, 김재업, 김정금, 김철수, 김화연, 도성만, 박건태, 박경서, 박석관, 박승호, 박인호, 백승의, 손병호, 손석윤, 송인호, 신경애, 오만태, 오명숙, 오상관, 윤보상, 윤판문, 이내교, 이막래, 이명수, 이상영, 이성록, 이연숙, 이윤순, 이재수, 이종석,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장창근, 전태만, 정연수, 정재문, 정종관, 정홍선, 조월신, 최복수, 최연근, 최영태, 하봉걸, 한용상, 황익출 이사

위 임 : 최차열 부이사장, 권영익, 김춘도, 김동철, 김옥진, 박해선, 서진중, 설병갑, 우기곤, 이문균, 이창훈 , 최성용, 최임순 이사

참 석 : 이경래, 이덕만 감사

1. 성 원 보 고 - 총원 86명 중 출석 62명, 위임 13명으로 성원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3. 전차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이종석, 임만덕 이사 / 경과보고 : 사무처장

[경과보고]

2025. 04. 07. 정관개정 승인

2025. 04. 15. ~ 18. 제43차 대한민국사진대전 접수 및 심사

2025. 04. 23. 중국예술사진학회 방문 / 전국 지회장단 회의

2025. 04. 29. 한국사진작가협회 - 을지대학교 MOU 체결

2025. 05. 01.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5. 05. 10. 2025 서울신록 사진촬영대회

2025. 05. 13. 대한민국사진대전 동강 사진박물관 전시

2025. 05. 19. 2025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전체 회의

2025. 03. 22. 2025 PASK KOREA 국제공모전 심사

4. 안 건

1) 정관개정 승인 결과 보고

- 정관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 승인되었으나, 일부 조항의 반례 및 권고
 - 반례사항 : 권리를 갖지 않는 청소년 회원 등 신설 조항 (제4조, 제5조)
 - 권고사항 : 감사 선출 관련 사항 명확화,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및 대의원 선출기준

· 권고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개정에 협의

·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전국 지회, 지부장단 회의를 거쳐 개정 방안 수립 예정

2)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결과 보고

- 총 1850점 출품 중 370점 수상작 선정
- 전시기간 : 5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 동강사진박물관(공모), 영월문화예술회관(추천)
- 5월 31일(토) 2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2025 PASK AWARDS에서 시상

3)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보고

- 일 시 : 25년 5월 1일(목)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박수현,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국회의원
- 주 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

4) 2025년 서울신록촬영대회 결과 보고

- 일 시 : 25년 5월 10일(토) 10시 / 장 소 : 남산골 한옥마을
- 촬영대회 약 700여명 참석

5) 규정 개정의 건 - 원안 승인

■ 사진작품 심사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보고 및 조치) 해당 지회(지부)장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수상자 명단 및 출품자 명단을 심사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아래의 각항을 준수해야 한다.(2020.10.29 개정) ① 지회 지부는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임원(감독관)에게 심사와 관련된 출품자 명단, 공모요강, 심사위원의 지역이 나타나는 명단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진행중 발생하는 규정의 해석 및 긴급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임원(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임원(감독관)은 발생된 모든 조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 사항에 관련된 책임은 임원(감독관)에게 있다.	제12조 (보고 및 조치)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감독관은 입선 이상 전체 수상작 뒷면에 반드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사 유 : 심사 후 조치에 대한 상세 명시	
부 칙 1. 본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2017년 12월 31까지 시도 사진대전에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국 심사자격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좌 동 2. 좌 동 3. 이 규정은 2025년 5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6)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 및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 사진축전 개최를 승인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에게 위임
 - 2025 서울시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에 선정
 - 일 정 : 25년 12월 4일(목) ~ 7일(일) / 장 소 : aT센터 제1전시장

7) 사업 인준의 건

- ① 제18회 강남구전국사진공모전 (재인준)
 - 관광분야와 자유창작 분야 별도 심사하는 조건으로 승인
- ② 2025 제주 물 사진 공모전 (신규)
 - 승 인
- ③ 2025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제1회 상주전국사진촬영대회 (신규)
 - 승 인
- ④ 대회 명칭변경 - 승 인

변경전	변경후
평창 축제·전통 사진공모전	평창 관광·축제사진 전국공모전

- 8) 장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금 모금운동 진행의 건
- 장학기금 관리위원회가 설립 추진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전 회원 대상 모금운동을 진행하기로 함.

9) 윤리조정 위원회 보고의 건

- ① 안동지부 공모전 관련 진정 건
 - 피진정인 오상관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 피진정인 권선자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 ② 안동지부 사업 관련 진정 건
 - 피진정인 김종팔 : 징계규정 제20조 ③항에 의거 추후 공지
 - 피진정인 윤태하 : 징계규정 제20조 ③항에 의거 추후 공지
 - 피진정인 권영익 : 당시 지부장으로서 해당 사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 결과 사건의 진행에 직접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그간 협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비밀투표를 통해 경고 조치를 의결함.
 - 피진정인 강성안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10)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임 원〉

강원도지회 :	기획간사 - 김종홍	진행간사 - 엄춘식
	섭외간사 - 이해영	운영간사 - 박용국
강남구지부 :	지 부 장 - 조치호	부지부장 - 최영규, 한경자
	지부간사 - 김하성, 박승중	사무국장 - 김석한
	기획간사 - 한현	사업간사 - 김현숙

강북구지부 : 재무간사 - 김종순

금천구지부 : 사업간사 - 강영미

송파구지부 : 홍보간사 - 김태영, 오건호 사업간사 - 김학수

부산지회 : 진행간사 - 최성옥

제주지회 : 섭외간사 - 박정미

양산지부 : 부지부장 - 김종선

목포지부 :	지 부 장 - 강재언	부지부장 - 김수원, 한양옥
	지부감사 - 조로옥, 이운도	사무국장 - 김은정
	재무간사 - 이숙	기획간사 - 조규운, 서현호
	사업간사 - 이연이, 김재일	홍보간사 - 고경희
	정보간사 - 김동철	섭외간사 - 박종훈
	기록간사 - 박순옥	
제천지부 :	사무차장 - 안숙현	국제간사 - 이종현
	기록간사 - 엄명희	

태안지부 : 진행간사 - 김성혜

〈입 회〉 - 27명

강 남 구 : 김도훈(정)

강 서 구 : 김석원(정)

은 평 구 : 류형석(정)

광 주 : 박창원(정)

대 구 : 이성숙(정)

부 산 : 김유준(정)

울 산 : 허철구(정)

인 천 : 송영애(정)

제 주 : 김은애(준)

과 천 : 김인자(정), 원대연(정)

남 양 주 : 홍승원(정)

양 주 : 오경희(정)

의 정 부 : 김경희(정)

상 주 : 주선동(정)

산 청 : 오형규(정)

진 해 : 김태수(정)

창 원 : 박창섭(정)

목 포 : 김수현(정), 김해성(정), 홍희숙(정)

옥 천 : 이은현(정)

제 천 : 이명준(정), 임영태(정)

계 룡 : 박광룡(준), 장민정(정)

세 종 : 김혜진(정)

〈승 격〉 - 2명

제 주 : 박선유

김 제 : 이수진

〈복 권〉 - 1명

성 남 : 조문기 - 장기회비미납 제명 / 완납복권

11)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번호	강 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 역	강 좌 명	시 수
1	오만태	지도3기-28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흥	포토아카데미	12주/32시간
2	이상일	지도3기-37호	포토담사진학교	대전	디지털사진과 후보정	15주/30시간
					디지털사진 아카데미	15주/30시간

12) 기타의 건

① 신입 회원 입회관련 논의

- 협회나 각 지회, 지부에 대한 비방이나 피해를 입힌 행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회원 입회 신청자를 반려하는 것을 불가능함을 고지

② 공모전 및 촬영대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입회 점수 조정, 낙선자에 대한 일부 점수 인정 등을 포함한 방안에 대하여 임원 및 지회·지부에서 의견을 접수 받아 추후 논의하기로 함

③ 영월 전시장 방문 독려

정관개정 승인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개정 신규대조표

-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임이사 배택수 -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사업) ①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0.04.11) 1. 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시행 2. 국제사진문화 교류 3. 사진전시회, 공모전 및 촬영대회 개최 4. 사진 관련 서적 출판 5. 사진관련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6. 사진문화상 운영 및 장학사업 7. 사진저작권 및 유통 관련 사업 8. 기타 본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 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사진 관련 서적 출판. 사진문화 홍보를 위한 신문발간 및 예술회지발행 5. 사진관련 교육 및 교육기관 의 설치 6. 좌 동 7. 좌 동 8. 좌 동 ② 좌 동
사 유 : 온라인 뉴스 및 출판 사업 진행기능 조항 삽입	
제12조(선출) (개정 2023.02.18)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런닝메이트제로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며 종다수로 결정 한다. 1. 선거는 해당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2. 선거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장소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3. 이사장 꺾위 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선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이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 총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한 후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 총원의 1/3 이상을 지회 지부장. 각 지역 예총회장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④ 결원된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선출) ① 좌 동 1. 선거는 해당 정기 총회 및 대의원회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2. 좌 동 3. 삭제 ② 좌 동 ③ 좌 동 ④ 결원된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⑤ 좌 동
사 유 : 대의원회 신설에 따른 개정	
제13조(임기) (개정 2023.02.18)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②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이사장 임기와 같이 한다.	제13조(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이사장 임기와 같고 횡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사 유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임기 연장 및 부이사장 임기 명시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결위 시 입회 일자가 빠른 순으로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15조(부이사장) ① 이사장은 선출된 부이사장 중에서 수석부이사장을 임명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결위 시 수석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승계하고, 수석부이사장이 부재한 경우 입회일자가 빠른 순으로 승계한다.
사 유 : 수석 부이사장 제도 도입, 이사장 결위시 승계 순위 명시	
제17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는 ①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7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①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사 유 : 대의원회 도입에 따른 개정	
제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기 관 제18조(구성) 협회 운영을 위하여 협회 내에 다음의 기관을 설치하고 각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총 회 ② 대의원회 ③ 이사회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 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회원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다. ⑥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 ① 좌 동 ② 정기총회는 연 1 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당해년도 총회에 제20조의 1에 해당하는 부의 안건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정기 총회를 대의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대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다. ④ 이사장은 개회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㉞3항과 통합 ⑤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2.24) ① 정관 제정 및 개정 ② 감사선출 ③ 법인의 해산 ④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⑥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⑦ 결위된 이사장의 선출 ⑧ 이사회가 총회를 대행한 의결 사항의 승인 ⑨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의 1 (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⑤ 기타 회원총회에서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1조(정족수) (개정 2013. 02.24)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20조의 2 (총회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하는 위임장에 총회 안건의 가부에 대하여 명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좌 동
사 유 : 대의원회 도입에 따른 개정	
	제21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정관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통상적인 사업 및 예결산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대의원은 협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정기 대의원회는 연 1회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개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 대의원회는 부의 안건과 관련 이사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대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다. ⑥ 대의원의 선출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⑦ 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대의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2조의 1 (대의원회 부의사항) ①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②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③ 감사 선출 ④ 정관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적 안건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 2 (대의원회 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대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22조의 3 (대의원선출 기준 및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 ① 지회·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지회·지부 대의원의 수의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회원 수에 따른다. 1. 지회·지부 총회에서 선출되어 인준된 지회·지부장 2. 지회·지부별 회원 수에 따른 대의원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회원수</th><th>대의원수</th><th>회원수</th><th>대의원수</th></tr><tr><td>1명 ~ 100명</td><td>1명</td><td>401명~500명</td><td>5명</td></tr><tr><td>101명~200명</td><td>2명</td><td>501명~600명</td><td>6명</td></tr><tr><td>201명~300명</td><td>3명</td><td>601명~700명</td><td>7명</td></tr><tr><td>301명~400명</td><td>4명</td><td>701명~800명</td><td>8명</td></tr></table>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현·직전의 구분은 본회 임기개시 총회 종료일로 한다. 1. 이사장단 및 본부 이사 2. 운영자문위원장 1인, 대외협력위원장 1인, 장학기금관리위원장 1인, 초대추천작가위원회 위원장 1인,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1인 ③ 지회·지부별 선출직 대의원 명단은 대의원회 개최 2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의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원수	대의원수	회원수	대의원수	1명 ~ 100명	1명	401명~500명	5명	101명~200명	2명	501명~600명	6명	201명~300명	3명	601명~700명	7명	301명~400명	4명	701명~800명	8명
회원수	대의원수	회원수	대의원수																		
1명 ~ 100명	1명	401명~500명	5명																		
101명~200명	2명	501명~600명	6명																		
201명~300명	3명	601명~700명	7명																		
301명~400명	4명	701명~800명	8명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거나 이사 재적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및 재적 이사의 과반 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02.24.)	*기존 제22조와 제23조를 제23조 (이사회)로 병합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2.24)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② 총회 부의 안건 심의 ③ 고문, 자문위원 추대, 결원된 부이사장 보선 및 분과위원 선출 ④ 사무처장의 인준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⑥ 차입 또는 대출의 결정 ⑦ 회원의 각종 부담금 심의 결정 ⑧ 임원 및 회원의 징계심의 ⑨ 회원 자격 심의 및 입회 인준 ⑩ 회원의 권익 증진 사항 ⑪ 긴급한 총회 부의사항의 대행 ⑫ 재산 관리 ⑬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⑭ 위촉에 관한 사항 ⑮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부의사항) 좌 동 ①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 심의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좌 동 ⑦ 좌 동 ⑧ 좌 동 ⑨ 좌 동 ⑩ 좌 동 ⑪ 긴급한 총회 및 대의원회 부의사항의 대행 ⑫ 좌 동 ⑬ 좌 동 ⑭ 좌 동 ⑮ 좌 동
사 유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의원회 도입, 이에 따른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 정리	
제6장 재 정	제5장 재 정
제7장 사무처	제6장 사무처
제8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3조(특별의결) (개정 2013. 02.24)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해산은 재석회원 과반수 출석과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 02.24) ③ 전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서면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특별의결)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해산은 재석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좌 동 ④ 좌 동
사 유 : 민법에서 보장하는 총회 위임출석 회원의 의결권 보장	

지난 2024년 5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주무관청 승인 단계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주된 요지는 효율성을 위한 대의원 제 도입엔 찬성하나, 당시 변경 안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를 통해 회원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쳐 보완된 정관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일) 개최된 제64차 정기총회에서 3호 안건 ‘정관 개정의 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총회 재석회원 873명 중 871명 (99.7%)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5년 4월 7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권리 보호

우선 대의원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일반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가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유지되며, 신설된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통상적인 예산 및 결산 항목만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정관 변경, 법인 해산, 주요 자산의 처분, 대표자 선출은 반드시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서만 승인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일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자 선출은 정관 제12조 ①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며,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와 별도로 정·부이사장 선거일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사업 확대 및 회원 구분 구체화 (제4조)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사업)에서는 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 및 교육사업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임기 조정 및 임원관련 개선 (제12조 ~ 제17조)

제12조(선출)는 정·부이사장 선거는 전체 회원 직선제로 진행함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의원제 도입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 결원된 임원의 보선 방식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임기)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의 임기를 4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간 명시되지 않아 해석의 논란이 있던 부이사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 해선 총회에서 현 임원 및 전임 부이사장을 역임한 자도 개정에 따른 규정 적용이 소급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정관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으며, 문체부 승인시에도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5조(부이사장)에서 수석 부이사장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사장 결위 시 명확한 승계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감사)는 대의원제 도입에 따른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관의 구분과 역할 명시

기존 제4장(총회)과 제5장(이사회)을 제4장(기관)으로 병합하여, 협회의 의사결정 기관을 ‘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협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정관 변경, 법인해산, 주요 자산 처분은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만 승인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안건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총회를 대의원회로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며, 비용적·행정적 부담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4장(기관)에 포함되는 제18조(구성)부터 제23조(이사회)는 새로운 기

관의 구분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소집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제19조(소집)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21조(대의원회) 소집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의원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각 지회, 지부 회원 수에 비례해서 100명당 1인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총회 위임 출석자의 의결권 보장

마지막으로 제20조의 2(총회 정족수)와 제33조(특별의결)에서 기존 재석회원 이었던 부분을 모두 출석회원 으로 변경하였고, 제20조의 2 ②항을 통해 위임 출석자의 의결권을 서면 의결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73조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위임 출석자의 의결권의 보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위임장 제출 시 총회의 성원 정족수에만 포함되고, 의결 시에는 제외되어 위임 출석자의 의사 반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위임 출석자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중대한 사항이 소수의 현장 참석자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문체부 일부 반려조항과 권고사항

총회에서 승인받았던 조항 중 제5조, 제6조의 회원구성의 다각화를 위한 조항의 경우 사단법인 사원으로서 권리를 갖지 않은 청소년 회원 등의 구분을 신설하여 정관에 명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회원의 구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아울러 감사 선출 절차에 대한 명확화와 대의원회 운영에 따른 대의원 선출기준 보완 등을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하반기 개최예정인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도적 개편입니다. 특히, 총회가 여전히 최고 의결 기관으로 협회의 정관 개정을 포함한 주요 사항은 전체 회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단 선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원님들의 직선제로 진행됩니다.

변경의 주 요지는 대의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임 출석자의 의결권을 보장하여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협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이 그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예술사진학회 대표단 협회 내방

한·중 사진예술 교류 확대 논의



지난 4월 23일, 중국예술사진학회 주홍위 부주석을 비롯해 중국전력 사진가협회 선웨이춘 회장과 우리 부회장, 중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양옌강 선생 등으로 구성된 중국 촬영단이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 간 사진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고 양국 사진단체 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협회 측에서는 유수찬 이사장을 비롯해 이향룡 부이사장, 이덕만 본부

감사, 배택수 상임이사 등이 직접 방문단을 맞이하였으며, 환담을 통해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역사와 주요 활동, 전국 조직망, 국제 교류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대표단도 각 소속 단체의 역할과 최근 주요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

특히 양측은 지난 대한민국사진축전과 베이징사진주간을 통한 성과를 확인하고, 그 역할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제도적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중 대표 사진단체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향후 공동 기획전 개최, 사진가 상호 초청 프로그램, 청년작가 교류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이 검

토되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사진예술의 상호 이해를 증진 시키는 의미있는 만남이었으며, 향후 더 넓은 범위의 국제 협력을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교류는 국경을 넘어 서로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는 통로이며, 협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개최

우중에도 7백여 사진인 참가 '열기'

글, 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_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개최식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촬영지도위원들과 모델 촬영에 대해 의논을 하는 이성록 본부이사(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

5월 10일(토)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충무로역 인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 주최, 창작사진본과위원회(위원장 정창완) 주관으로 2025년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를 700여 명의 사진인들이 참가하여 김형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비가 계속 와서 주최측에서 우의를 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김형준 사무처장이 내빈을 소개했다. “유수찬 이사장,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 정재문 경기지회장, 임성동 전남지회장, 윤판문 광주지회장, 조선일 인천지회장, 송인호 대전지회장, 전태만 울산지회장, 백승의 사진예술대학 총동문회장.” 유수찬 이사장은 “곳은 날씨에도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에 협회와 사진예술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성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성록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촬영지도위원과 모델을 소개했다. 촬영지도위원: 김규중, 김장현, 박흥신, 서성광, 선순남, 오원석, 이승주, 최영태, 허경삼 등 9명과 모델: 홍민욱 외 8명을 소개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멈추지 않아서 비를 피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촬영대회를 실시했다. 중앙무대 앞에 있는 오른쪽 객석에서 지도위원

이 모델에게 각종 포즈를 요청했고 촬영대회 참가자들은 카메라 렌즈에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같은 무대 왼쪽에선 부채춤을 추고 대금을 연주하는 모델이 연기하며 촬영하고 있었다. 우중이지만, 참가자들은 저마다 멋진 모습을 찍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중앙무대 객석 오른쪽 건물에서는 지도 위원이 손전등으로 조명하며 촬영지도하고 있었다. 햇빛이 없는 우중이라 손전등으로 조명하는데도 역시 조명발이 먹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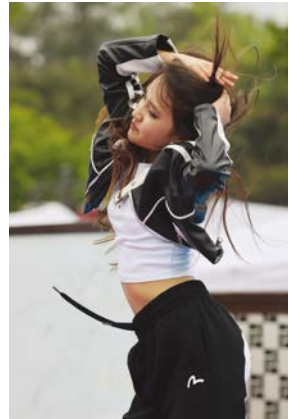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하고, 이성록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 주도로 내빈으로 하여금 경품을 추첨하여 푸짐한 상품을 나눠주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촬영대회를 진행했다. 오후 2시엔 비가 그쳤다. 중앙무대에서 2025 서울시 태권도 상설 공연을 20여 분 동안 실시했다. 관람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태권도 상설 공연을 한다고 했다.

오후 2시 30분에 서울천년타임캡슐광장에서 촬영대회를 하는 팀을 촬영했다. 입구 도로의 곡선미를 살려 촬영대회를 하는 모습이 새로웠다. 지도위원과 모델이 열심히 연기하고 참가자들은 한 컷이라도 좋은 사진을 얻으려고 열심이었다. 오후 3시경에 촬영대회를 마쳤다.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출연 모델들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출연 모델 촬영을 하는 참가자들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출연 모델들

AI 무단 학습은 작가 권리 침해

창작자 단체들 저작권 보완 입법 촉구



AI 시대, 창작자의 권리 수호 공동 성명 발표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창작자 단체들이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 15개 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란 명분 아래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에 나서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창작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기본법'에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미술, 방송, 문학, 영화, 음악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5개 창작자 단체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학습 행태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월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AI가 학습한 창작물에 대해 투명한 공개 의무를 'AI 기본법'에 조속히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대해, 이들은 "AI가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행위를 제한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에 나서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창작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저작권법 준수 의무화,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작자 단체들은 특히, "AI 산업의 단기적 진흥에만 몰두한 나머지, 창작 그 토대인 창작물 보호를 소홀히 한다면 창작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국제펜한국본부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심재안 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재단 설립 해야"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전체회의서 논의



인사말을 하는 심재안 위원장



장학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유수찬 이사장

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월) 예술인센터 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심재안 위원장을 비롯한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유수찬 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장학기금에 대한 운영 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일회성 기부나 일시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이고 공익적인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정했다.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운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 전원이 장학금 기탁을 선도적으로 약속하며, 실질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이끌

었다. 회의에서는 기탁자에 대한 공로 포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장학기금 기탁자 명단 공개, 감사패 수여, 명예의 전당 등록 등 다양한 포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도 장학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2025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선정 기준 등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재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학재단 설립은 우리 협회가 예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후대의 작가들이 더 큰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곧 협회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라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회, 을지대학교 맞손, "문화 평생교육"

교육, 의료, 사진예술 문화 발전에 협력 약속
올 하반기 "전문가 육성과정" 개설 예정

글,사진제공_강돈영(본부이사, 의정부지부)



업무협약식 후 양기관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
(사진 왼쪽)과 본 협회
유수찬 이사장(사진 오른쪽)



4월 30일, 을지대학교 일현관 8층 회의실에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와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는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 김관복 부총장, 임숙빈 간호대학장, 안혜영 임상간호대학장, 김숙영 평생교육원장, 강미정 대학원교학과장, 황영성 지역협력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정재문 이사(경기도지회장), 강돈영 이사 등이 참석하여 양 기관의 협력을 돈독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약속했다.

협약식은 사회를 맡은 을지대학교 최고위과정 김성일 책임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을지재단 대학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성희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이 을지대학교의 교육 및 의료 역량과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의 풍부한 사진예술 가치를 융합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사진예술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찬 이사장은 "을지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진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보건·의료·사진예술·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지도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양 기관 시설 이용 시 상호 할인 혜택 제공 노력 △기타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2025년 하반기 강남을지대학교병원에서 2년 과정(60주), 30명 정원의 '사진문화예술전문가 최고위과정(가칭)'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협약식 후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상호 소개 및 자유로운 교류 시간을 가지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을지대학교 김관복 부총장은 "이번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의 업무협약은 교육, 의료를 넘어 사진예술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다각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 을지대학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지회 “제6회 전통 공연 촬영회” 개최

글,사진제공_최정규(홍보위원회 위원, 보령지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한용상)에서는 5월 17일 토요일, 충남 서산의 대표 역사 문화유산인 해미읍성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내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제6회 전통 공연 촬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서산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문화예술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과, 유수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최차열 협회 부이사장,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이경성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이용국 충청남도의회 의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임원 및 충남도내 16개 지부장과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전통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으며 회원간 친목을 강화하고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쾌청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용상 충청남도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뜻깊은 날, 역사적인 해미읍성에서 전통예술과 사진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전날까지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되었다. 앞으로 충남의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더 많이 기록하는 데 충남도지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해미읍성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통과 예술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이다. 해미읍성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하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가 널리 전해지길 바라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유수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오늘 촬영회는 단순한 예술행사를 넘어 한국문화의 뿌리를 조명하고 예술로 승

화하는 자리이다.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의 정성과 열정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전통문화의 예술적 기록을 통해 지역과 세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며, 사진 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사진예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만 회원의 위상과 정당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한용상 지회장은 충청남도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용국 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충남사진대전 초대작가회 이학렬 회장은 충남사진대전 초대작가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최차열 부이사장에게도 특별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촬영회 무대에서는 우리의 전통 공연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부채춤을 시작으로 한복 모델 퍼포먼스, 승무, 경고춤, 사자춤, 봉산탈춤, 뜬쇠 사물놀이 공연 등 정통성과 예술미를 겸비한 무대가 펼쳐져 촬영회에 참여한 수 많은 사진작가들의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없었다.

이번 촬영회는 단순한 촬영행사를 넘어 한국사협 충남도내 회원들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록하고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진예술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충남의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회마다 알차게 준비하는 이 행사는 충남도 내 모든 회원들이 즐거움과 보람으로 성원을 이룬 멋진 촬영회였다.

한용상 충청남도지회장은 폐회사에서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과 예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콘텐츠 촬영회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김시묵 부이사장, 카이로 예술선언 한국측 인사로 참석

한 이집트 30주년 기념 행사서 '주제 발표'

글 사진제공_김시묵(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조강훈)와 함께 2025년 4월 3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대학교(AUC)에서 “오천 년 문명의 대화”를 주제로 ‘한-이집트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본 협회에서는 유수찬 이사장을 대신하여 김시묵 부이사장이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및 한국이집트 발전협회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행사는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를 심화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가들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부 “오천 년 문명의 대화” 심포지엄, 2부 “카이로 예술 선언”, 3부 “Colorful Korea”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다.

1부 “오천 년 문명의 대화”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 한-이집트 심포지엄은 “오천 년 문명의 대화”를 타이틀로 6개 세션이 열렸다. 한국과 이집트의 예술가들이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세션을 이끌었으며 본 협회에서는 김시묵 부이사장이 「디지털시대의 사진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2부 '카이로 예술 선언' 및 Asia-Africa Artists' Alliance 출범

특히, 이날 한-이집트 양국 예술가들의 연대 의지를 담은 '카이로 예술 선언(Cairo Arts Declaration)'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인 'Asia-Africa Artists' Alliance(A3A)'의 출범이 공식화되었다.



심포지엄 주제(디지털시대의 사진역할) 발표를 하는 김시묵 부이사장



카이로 예술선언

'카이로 예술 선언'은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 존중, 문화 교류와 공동 창작 강화, 예술교육 및 미래세대 육성, 사회적 역할 증대, 기술과의 융합,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붙임 1 참조).

본 선언에는 조강훈, 김시묵, 손정우, 한영근, 유재현 등 한국 측 인사와, Hisham Ibrahim, Nadine Abdel Ghaffar, Mazen El-Gharabawy, Seif Allah Alnaga, Alaa El Basha 등 이집트 측 인사가 참여하였다.

3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Colorful Korea' 공연

아메리칸대학교(AUC) Ewart Hall에서는 축하공연 'Colorful Korea'가 열렸다. 이번 공연은 K-컬처를 이집트에 알리고 한류의 예술적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한국 전통예술과 현대 대중문화의 정수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에는 Saengdonggam Crew (생동감 크루)와 Fusion Gugak Group QUEEN (퓨전국악그룹 퀸)이 참여하여 공연을 이끌었다.

문화예술을 통한 우정과 협력의 미래를 열다

이번 '한-이집트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예술교류행사'는 예술을 매개로 양국의 문화적 접점을 확장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연대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카이로에서 울려 퍼진 예술 선언은 미래 세대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이며, 한-이

집트 양국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함께 나아가는 예술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용현 주이집트 한국 대사는 “이번 심포지엄이 양국 청년 세대 간 문화예술 교류와 인적 연대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대사관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문화예술 협력을 통해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시묵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일몰



김용현 주 이집트 한국대사 초청 만찬1



김용현 주 이집트 한국대사 초청 만찬2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폴란드 사진가 마르친 리체크 초청 사진 특강

글_김은영 기자 key66@busan.com



강의를 하는 마르친 리체크



특강 강의장 현장 모습

마르친 리체크(폴란드) 사진작가

- Marcin Ryczek(Polish) Photographer

마르친 리체크는 1982년 8월 18일 폴란드 루블린 (Lublin)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크라쿠프(Cracow)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세부터 여행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친 리체크 대표작 - "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

마르친 리체크 대표작 - "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

"눈 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라는 이 장면에서 마르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적 이분법을 포착합니다. 그에 따르면 "백설과 어두운 물의 자연이 만들어낸 대비를 설명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물가의 직선으로 분리된 이 두 가지는 상반되지만 상호 보완적인 힘이라는 음양의 상징을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네이션 파리 2016에서 전시된 이 사진은 크라쿠프의 그룬발트 다리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밝은 배경에 어두운 실루엣의 남자와 검은 오리떼로 둘러싸인 어두운 물 위의 하얀 백조가 사진을 보완하여,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편적인 상징성이 스며든 이 간단하고 강력한 프레임은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모호함은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여 주관적인 해석과 성찰을 장려합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강종관)는 "마르친 리체크" 초청 사진 특강 'Harmony in Photography'(사진의 조화)를 지난 5월 2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

개념 사진작가인 "마르친 리체크"는 폴란드 출신으로 <더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세계 유수 매체에 작품이 소개됐다. 리체크는 주로 미니멀리즘과 심볼릭 사진을 전문으로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기하학과 심볼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부조화'라는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지만,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인간이고, 삶의 조화를 주제로 다루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웹사이트 <하핑턴 포스트>는 그의 사진을 2013년 세계 최고의 사진 5장 중 하나로 인정했다. 이 사진은 '눈 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폴란드 실레시아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2017년에는 데이비드 김슨이 쓴 책 <위대한 거리 사진 100선> 표지에 그의 사진이 실렸다.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5년 5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5월말) : 105,698,840
계 : 1,215,588,526 (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28,200,000 (3,255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⑤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 2021년 계 : 27,700,000
⑦ 2022년 계 : 32,200,000
⑧ 2023년 계 : 16,900,000
⑨ 2024년 계 : 25,900,000
⑩ 2025년 계 : 19,100,000
▷ 2024년01월(50명): 5,000,000
▷ 2024년03월(36명): 3,600,000
▷ 2024년05월(14명): 1,400,000
▷ 2024년07월(50명): 5,000,000

▷ 2024년09월(39명): 3,900,000
▷ 2024년11월(70명): 7,000,000
▷ 2025년01월(108명): 10,800,000
▷ 2025년03월(56명): 5,600,000
▷ 2025년05월(27명): 2,700,000

○기타 계 : 89,387,060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34,751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35,764,089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15,588,526 (a-b)

2025 전국 사진강좌 안내(6월)

사진강좌	지회.지부	강좌일시	장소
구미전국사진강좌	구미지부	6월 07일(토) 오후1시~5시	구미 성리학역사관
의왕전국사진강좌	의왕지부	6월 28일(토) 오후1시~5시	계원예술대학교 정보관 B1공동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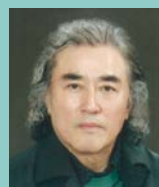
신비의섬제주

제주도 촬영 가이드 권가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촬영 안내

제주도 촬영 : 계절별 하루 10시간 기준 차량 5인승 4명까지 포인트 안내 기름값 포함 20만 원
여름철 : 6월~9월 오전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일몰까지 (하루 시간이 긴 관계로)
촬영 오실 때 : 삼각대 4대까지 무료 대여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 4명 이상 차량 11인승(30만 원)
제주도 장노출 촬영 및 스토리 작업 (초보자 및 전문가 별도 촬영 지도) "촬영 전문 지도위원"

축하합니다 (5월 입회자)



김도훈(강남구, 정)



김석원(강서구, 정)



류형석(은평구, 정)



박창원(광주, 정)



이성숙(대구, 정)



김유준(부산, 정)



허철구(울산, 정)



송영애(인천, 정)



김은애(제주, 준)



김인자(과천, 정)



원대연(과천, 정)



홍승원(남양주, 정)



김경희(의정부, 정)



오경희(양주, 정)



주선통(상주, 정)



오형규(산청, 정)



김태수(진해, 정)



박창섭(창원, 정)



김수현(목포, 정)



김해성(목포, 정)



홍희숙(목포, 정)



이은현(옥천, 정)



이명준(제천, 정)



임영태(제천, 정)



박광룡(계룡, 준)



장민정(계룡, 정)



김혜진(세종, 정)



동일액자

<http://dongilframe.alltheway.kr/>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 하드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양천우체국

07995

30만원으로 전시초대도, 사진작품도 게재

2023. 12. 06. PM.15:00

I · N · V · I · T · E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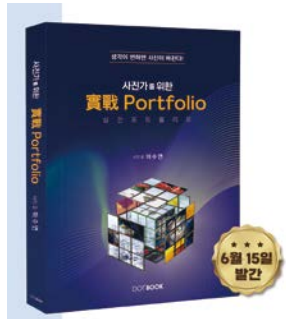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사진가를 위한 實戰 Portfolio

이수연 출판기념 저자 특강



특강일시 2025년 6월 28일(토) 14:00
특강장소 평택시 평택학습센터 대강당
(경기 평택시 이충로 84-6)
특강저자 이수연(010-3363-8187)

출판기념 저자 특강(무료)
평택 바깥전 포트폴리오 리뷰 선정작과 경기도 향토작가 초대전 선정작 중심으로
당장 활용 가능한 실전 기법 강의!

사진 포트폴리오 기법의 이론과 실재를 담은 최초의 책!
개념 중심의 난해한 현대사진이 유행하는 오늘날,
전통적 사진 양식에 집중한 방향성 제시, 주제 발견과 주제의 시각화
그것을 언어로 엮어내는 실제 방법론 수록
반복과 훈련 관찰과 편집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수록한 책.
〈작가노트 중에서〉



The Earth, 사진이 그림을 품다

조영신 사진전

지금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우연히 카메라를 든 그 순간, 제 삶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꿈꿀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
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고,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략〉

이번 전시는 사진과 회화의 경계가 통합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풍경과 순간들을 담은 사진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채화와
유화의 감성을 덧입혔습니다.
'사진이 그림을 품다'라는 부제처럼 렌즈로 포착한 현실 위에 회화
적인 해석을 더 함으로써 익숙한 장면이 낯선 울림으로 다가옵니
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6월 12일(목) ~ 6월 18일(수)
전시장소 무등갤러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18-1)
개 전 식 2025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전시작가 조영신(010-9603-2321)

잊혀가는 골목길에서 찾은 시간의 선물

연도흙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7월 5일(토) ~ 9월 4일(목)
전시장소 에스티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402)
전시작가 연도흙(010-8759-3696)

어느덧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를 매료시켰던 낡고 조용한 골목
길들은 이제 모습이 바뀌거나 사라져 버렸지만, 그 순간들은 여
전히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찍어온 수많은 골목길 사진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현대
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작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략〉

이 작품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우리가 과
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옛날 골목길
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그리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위로
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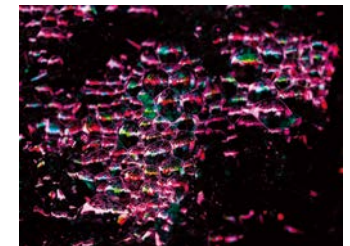
천상의 산꽃을 찾아서

김남호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6월 24일(화) ~ 7월 6일(일)
전시장소 박인환 문학관 2층 갤러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2F)
작가와의 만남 2025년 6월 28일(토), 6월 29일(일), 7월 5일(토), 7월 6일(일)
전시작가 김남호(010-6373-2603) ※ 매주 월요일 휴관

『천(天)상(上)』은 많다, 여럿이라는 의미와 1,000m 이상의 높은 곳을 뜻하며, 이
는 백두대간과 DMZ 생태축이 교차하는 인제에 자라는 다양한 식물을 의미한다.
또한 『산꽃』은 우리의 강산에서 살아가는 생명이고, 『찾아서』는 나의 발길이 닿았
고, 땀과 노력을 담아 하늘내린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과 자생식물을 찾아 작업을 하
였다.

1992년 인제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틈틈이 담은 자료를 모아 인제의 꽃을 주제로
보임 마당을 펼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현상 및 출력

- ▶ 월포현상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59-9 예림빌딩 2F Tel. 02)2273-5301~2 Fax. 02)2275-5301
- ▶ 포토랜드 -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4(필동1가, 중앙빌딩2층) Tel. 02)2273-9321 Fax. 02)2273-9339
- ▶ 포토랩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707번길 31-2 Tel. 031)312-0971 Fax. 031)312-0973
- ▶ 도솔 스튜디오 -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7 Tel. 041)546-5550
- ▶ 삼오사진 - 광주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금남로3가 1-5) Tel. 010-3622-4249
- ▶ 동양포토샵 현상소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87-1 Tel. 042)626-2500
- ▶ 대한포토 현상소 - 대구시 중구 태평로 273 Tel. 053)423-9003
- ▶ 김포토샵 - 대전시 대흥로24번길 10 Tel. 042)221-9853
- ▶ 로알칼라 현상소 - 대전시 동구 정동 14-17 Tel. 042)255-4122 Fax. 042)221-4122

기자재

- ▶ 브이티지엠피 - 경기 파주시 산업단지길 130번지 Tel. 02)3444-3800 Fax. 02)3444-3830
- ▶ 포토클랩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6번길 21 Tel. 031)488-9111 Fax. 031)488-9119
- ▶ 신지스튜디오클럽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20 삼승빌딩 Tel. 02)790-1310 Fax. 02)792-1310
- ▶ 벤로코리아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11 흥국생명 1호별관 1층 Tel. 02)775-6621 Fax. 02)773-9724
- ▶ 썬포토 - 서울시 중구 소공로 3길 47 Tel. 02)319-0303 Fax. 02)776-5939
- ▶ 코리아 포토프로덕트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43 2F Tel. 02)3436-6775 Fax. 02)3436-6776
- ▶ 무한미디어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2, 영한빌딩 1층 Tel. 02)518-7808 Fax. 02)6455-5808
- ▶ 강산컴퍼니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7길 25 청림빌딩 103호 Tel. 02)771-9891 Fax. 02)2265-0714
- ▶ 줌인 - 부산시 중구 광복로 95-1(광복동 36-2) Tel. 051)255-0300 Fax. 051)256-2211

액자

- ▶ 아트룩스 총판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대한민국예술인센터) 1603호 Tel. 02)2653-9007 Fax. 02)2654-9007
- ▶ 두진아트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신천동 496번지) Tel. 031)314-1085
- ▶ 아프래 -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9길 21(대천동) Tel. 1544-2188
- ▶ 동일액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1-8 Tel. 063)282-6444 Fax. 063)231-6443
- ▶ 갤러리 예담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33번길 40 Tel. 1588-4286 Fax. 051)311-7791
- ▶ 공간액자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44-2 Tel. 042)222-2245
- ▶ 포토천지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929 Tel. 063)712-5509
- ▶ 삼원종합액자 - 대구시 남구 대봉로19길 28-2 Tel. 053)476-8959
- ▶ 한양액자 - 대구시 중구 태평로 51길 5-9 Tel. 053-428-1216
- ▶ 스마트액자 - 대구시 중구 종로 69(대안동) Tel. 053-426-8806
- ▶ 동진액자 -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077번길 6 Tel. 031-311-6575~6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광고게재 요청시 본 협회 및 전국지회, 지부 행사참여가 가능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광고문의 : 02-2655-3132

새 희망 구미시대

2025
구미를 담다

풍경

제34회 『아름다운 한국의 산하』 구미관광 풍경 사진대전

『아름다운 구미』 『이름다운 경북』 『아름다운 한국의 산하』 『전 세계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사진과 아름다운 축제 등 우수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 확보하여 각종 홍보 및 관광으로 “아름다운 구미” “생동하는 구미” “새희망 ☆ 구미시대”를 널리 알리고자 제34회 『아름다운 한국의 산하』 구미관광 풍경 사진대전을 개최하오니 사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요강

- **공모대상** : 대한민국 사진인 누구나(핸드폰 사진 출품가능)
- **공모내용** : 구미관광 사진 및 경북관광 사진(50%)
지구상 아름다운 풍경사진, 애국애족 나라사랑 축제 사진 (50%)
- ★ **자연경관** : 『금오산과 약사암 비경』, 『구미의 숨은 비경』 - (가산점 20% 적용)
- 구미의 명소를 아름답게 표현한 사계절 모습
- 구미보와 낙동강수변, 지산샛강 및 도심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4계절
- ★ **문화예술** : 구미의 **라면축제, 푸드축제 『2025 아시아 육상경기대회』** 등 축제 행사 및 역동성을 담은작품
- **문화재** : 구미의 문화재, 유적지, 등 각종 유무형 문화재
- 신라불교초전지, 동락공원, 지산샛강, 산동생태공원, 선산영남유교문화진흥원 등 구미관광 홍보자료

- ★ 경상북도 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숨어있는 비경
-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순수자연을 소재로 한 생동하는 이미지
- ★ 전국의 명소와 각종 축제, (국제경기)와 행사 - 나라사랑 애국애족
- ★ 지구상 아름다운 풍경과 신비로운 환경 생태계

출품방법

- 출품종류** : 디지털 사진, 핸드폰사진 출품가능 (사협 입회 점수 있음)
- 출 품 수** : 1인 6점 / 핸드폰사진 : 1인 4점
- 작품규격** : 11" × 14" (장변의 길이 충족) 핸드폰 사진(8 × 10인치) 장변의 길이 충족
- 출 품 료** : 1인 40,000원 // 핸드폰사진 : 1인 10,000원
- 접수기간** : 2025년 8월 12일(화) 도착분
- 파일제출** : 입상 및 입선작 파일 (4MB)이상 (gmpask@daum.net)
- 접수방법** : 작품 뒷면에 출품표 (**다운로드 양식 상세히 작성**)
- 접 수 처** :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218 (구미예총 1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
- 문 의 처** : (지부장) 010-3544-8572 / (사무국장) 010-3805-1678

시상내역 총상금 : 2,440만원

- 대 상** (1점) - 경상북도지사 상장 및 작품저작권 **매입비 600만원**
- 최우수상** (1점) - 구미시 시장상 상장 및 작품저작권 **매입비 300만원**
- 우 수 상** (2점) - 구미시의회 의장상 및 작품저작권 **매입비 각 100만원**
- 특 선** (10점) - 한국예총 구미지회장상 및 작품저작권 **매입비 각 50만원**
- 입 선** (120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상 및 작품저작권 **매입비 각 7만원**



2025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제1회 상주전국사진촬영대회

행사일시 2025년 9월 25일(목) ~ 28일(일)까지
(9월25일 17시부터 상주시내 일원 거리퍼레이드 및 전야제)
행사장소 2025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축제장
(경북 상주시 삼백로 323, 경상감영공원내)

공모요령

- **작품내용** : 2025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기간 중 모든행사
- **참가비** : 3만원(중식제공)
- **작품규격** : 11" x 14" 컬러 및 흑백사진(장정불요)
- **접수마감** : 2025년 10월 20일 소인유효
- **출품수** : 1인당 4점 이내
- **출품방법** : 11R 로 인화 후 작품 뒷면에 접수증 부착(복사 사용) 출품
- **접수처** : 경북 상주시 중앙로 130 1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상주시부 (지부장. 010-6529-3355, 사무국장. 010-3222-0824)
- **심사일시** : 2025년 10월 25일 예정
- **심사장소** : 추후공지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심사발표** : 2025년 10월 27일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시상식** : 2025년 10월 30일 오후1시 예정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축제 홍보용 사진 가점부여**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참가자 전원 작품집 제공
- 출품된 작품은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입상, 입선작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사용권은 주최, 주관측에 있으며 홍보물 도서출판 등 공익 목적에 사용 할 수 있음
- 기 발표작이나 합성사진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 발견시 상권이 취소되고 상장과 상금은 반환 하여야 함은 물론 기타 문제작은 한국사진작가협회규정에 의거 제재됨
- 입상자 시상식 불참자는 상금을 상주시부 발전 기금으로 사용됨 (대리 참석 가능)
- 입상 입선작은 심사발표 후 5일 이내 원본 이미지 파일(3,000픽셀이상)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이 취소 될 수 있음 (E-mail : lyn0124@hanmail.net)

시상내역

- ▶ **금상 1점**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 **은상 2점**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50만원 (*거리퍼레이드부문 1점 포함)
- ▶ **동상 4점**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장려상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상주시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시부장 상장(출품작의 20% 이내 입상작포함) *시상금 원천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
- ▶ **가작 5점** (사)한국예총상주시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주최 : 상주시 **주관** :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상주시부
후원 : 상주시의회,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상주시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회 평창

관광·축제

사진공모전

접수
기간

2025. 10. 21 ~ 10. 25

도착분에 한함 (시험 입회점수 있음)

응·모·방·법

공모분야 ■ 평창군 관광부문

오대산, 월정사, 양떼목장, 삼양목장, 발왕산, 알펜시아, 태기산, 청옥산 육백마지기, 팔석정, 허브나라, 이호석 문화관, 바위공원, 백룡동굴, 광천선굴, 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등

■ 평창군 축제부문

- ① 축제
효석문화제, 평창백일홍축제, 평창더위사냥축제, 노산문화제, 오대산 문화축전, 평창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평창대관령 음악축제 등
- ② 전통놀이
노산축성놀이, 평창아라리, 방림삼베삼굿놀이, 봉평메밀 도리깨질, 평창둔전평 농악, 월정사 탑돌이, 황병산 사냥놀이 등

응모자격 전국 사진작가 및 사진애호가

작품규격 11" x 14" 사진(흑백 또는 컬러)

출품수 1인 6점 이내 / **출품료** 1인당 2만원

접수기간 2025. 10. 21(화) ~ 10. 25(토)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우 2536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찬샘내길2길 99-78 (주진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평창지부

문의처 사무국장 : 010-8760-368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성명, 제목,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촬영장소 기재

심사일시 2025. 10. 29(수) 11시

심사장소 추후결정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발표 2025. 10. 31(금)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금상 1점	평창군수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2점	평창군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한국예총 평창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한국사진작가협회 평창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 5점	한국사진작가협회 평창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입선 60점	한국사진작가협회 평창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시상일시 및 장소 추후결정

전시기간 및 장소 추후결정

기타(유의)사항

- ① 수상작품은 주최, 주관처에서 필요한 비영리적 목적의 홍보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② **입상·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있음.**
- ③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으로 입상 및 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시험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자격이 유보됨.
- ④ 출품작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 ⑤ 컴퓨터 그래픽 등 조작작품, 과도한 후보정 작품은 수상이 취소됨.
- ⑥ 작품집은 시상식 후 개별발송 됨. (단, 낙선작은 반출하지 않음.)

주최 (사)한국예총 평창지회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평창지부

후원 평창군, 평창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접수기간 2025. 10. 1 ~ 10. 31일까지 (10월 31일 소인분)

작품내용 삼척의 전반적인 관광자원을 소재로 하되, 삼척 관광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미발표 작품
 • 기존 관광명소 외 숨겨진 비경
 •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
 • 외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덜 알려진) 삼척시의 문화자원 등
 • 기타 숨은 비경(아름다운 삼척의 사계 중 "설경") 및 삼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작품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촬영시기 : 2024. 1. 1. ~ 2025. 10. 31. 까지 촬영한 작품
 • 작품규격 : 칼라사진 11x14(inch)장정불요 - 원본파일 4,000x3,000픽셀, 1200만화소, 파일크기 5MB이상
 • 출 품 료 : 1인 최대 6점(4점까지 20,000원 / 1점추가시 10,000원)
 • 출품요령 : 작품이면에 (성명, 연락처, 도로명주소, 작품명, 촬영장소 반드시 기재) 출품표부착
 ※ 디지털 사진은 촬영정보가 있어야 하며 원판과 동일해야하고, 합성 및 원판 미제출시 상권 취소 됨

기타사항 • 입선 및 입상작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인정
 • 입상, 입선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사진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사용권은 삼척시에 있으며, 삼척사계절관광 사진첩제작 등 삼척시 홍보자료로 활용됨
 • 입상, 입선작은 인화파일을 심사발표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 취소됨
 • 수상작의 초상권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합성, 조작, 변형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상권 취소됨
 • 타공모전에 발표된 동일작, 유사작품으로 출품하여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취소됨
 • 드론 촬영 사진은 입상권 제외되며, 드론 촬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낙선작은 반송하지 않고 작품집만 발송
 •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구성, 심사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모전에 출품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접수기간 2025. 10. 1 ~ 10. 31일까지 (10월 31일 소인분)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삼척지부
 (우)2594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49-8(석공명랑사택) 4동 2호
 • e-mail : ds2umj@daum.net
 • 문의처 : 지부장(010-3875-8384) / 삼척시청(033-570-3077)

심사일시발표 2025. 11월 중 예정 공개심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게재

시상 및 사진작품 전시(예정) • 기간 : 2025. 12. 13(토) ~ 12. 17(수)
 • 장소 : 삼척문화예술회관(제1전시실)

시상내역 금상(1점) 상장 및 상금 300만원 가작(5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은상(2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입선(70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동상(3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입상포함 출품작의 30% 이내 세제공과금은 본인부담)

주최 / 주관 삼척시·(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삼척지부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삼척예총



제30회 홍천관광사진공모전



접수 :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당일 소인 유효)



홍천관광사진공모전



본 공모전은 홍천을 『새롭게, 다르게, 낯설게』표현한 관광 홍보용 작품을 구매할 목적이므로 주제는 관광 자원 개발/ 홍천의 사계/ 새로운 비경(나만이 알고 있고, 알리고 싶은 홍천의 숨은 명소를 발굴한 작품 우대) 등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함



■ 응모조건 : 분야별(카메라, 휴대폰) 중복 응모 가능하며, 조건은 동일함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촬영시기 : 2023년 8월 1일 이후 촬영한 작품
- 작품규격 : 11*14 컬러사진(2500*3200픽셀이상, 해상력290dpi이상)
- 접수요령 : 작품명,성명,주소,우편번호,연락처,촬영장소,은행계좌,생년월일을 기록,우편 또는 방문
 ※ 입상작은 원본파일과 후 보정 파일 동시 E-mil로 제출하여야 함.(파일명 : "작가명-작품명")
- 접 수 처 : (우 25122)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64(우리측량) 홍천지부지부장
 ※ 파일 : <3696sin@hanmail.net>
- 작 품 수 : 1인 6점 이내 (4점까지 20,000원, 추가 1점당 5,000원)
- 입금계좌 : 농협 301-0331-5650-21 예금주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지부

■ 카메라 부분

금상(1점) 200만원(홍천군수)
 은상(2점) 70만원(의회위원장)
 동상(3점) 50만원(예총회장)
 가작(5점) 30만원(사협지부장)
 입선(70점) 각10만원(사협지부장)

■ 휴대폰 부분

금상(1점) 30만원
 은상(2점) 20만원
 동상(3점) 10만원
 입선(30점) 5만원

■ 심사 및 전시 (홍천문화예술회관)

* 심사 '25년 9월 7일 공개심사
 * 발표 '25년 9월 8일 지부·본회 홈페이지
 * 시상 '25년10월13일(월)
 * 전시 '25년10월13일 ~ 17일(금)

■ 운영기준

- 수상작(카메라, 휴대폰)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함(입상작 수는 사진작품심사 규정에 의함)
- 수상작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 측에서 협회 및 도서출판 등 공익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일반카메라, 휴대폰 사진을 구분하여 응모하여야 함
- 디지털 합성, 과도한 후처리(조각, 변형), 규격미달, 기 발표작, 유사작, 운영기준, 응모조건 위반, 타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심사 후라도 발견 시 상권취소와 아울러 출품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의 문제 작 심의규정에 따라 조치 되고 수령한 상장과 상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불법촬영 및 초상권 등 작품으로 발생 되는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 입상작(금, 은, 동, 가작) 수상자는 시상식에 의무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상금 미지급(대리 참석 가능)
- 낙선작은 반송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기간 중 개별 발송 예정
- 본 공모전에 출품하여 접수한 출품자는 공모전 운영기준에 동의한 것으로 사업 완료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 거부 시 출품할 수 없음.

✓ 연락처 : 지부장 : 010-5368-5666, 사무국장 : 010-9058-1268 ♥

주최 | 홍천군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지부 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025 보성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입회접수있음 · 접수마감 2025. 11. 24 소인유효]

■ 출품자격 : 제한없음

■ 작품내용

- 보성을 주제로 한 국내외 미발표된 사계절 사진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고, 보성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사진
- 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축제, 문화 및 예술제, 체육행사, 생활상 등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

주요관광지(대한다원, 득량만바다낚시공원, 보성비봉공룡공원, 보성비봉마리나, 붓재, 우종미술관, 울포늪차해수센터, 울포해수풀장, 전남권환경성질환경관리센터, 제암산자연휴양림, 태백산맥문학관, 티벳박물관, 한국차박물관, 강골전통마을, 군립백민미술관, 대원사, 득량역 추억의거리, 방진관, 벌교금웅조항, 벌교월곡벽화마을, 서재필기념공원, 윤제림, 울포해수욕장, 판소리성지, 홍암나철기념관, 해평저수지 등)

주요축제(보성세계차엑스포,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소리축제, 보성불꽃축제, 벌교교막축제, 보성차밭빛축제, 햇빛이행사, 보성벚꽃축제, 득량청보리축제, 동로성축제, 전어축제 등)

■ 작품규격 : 11" × 14" 칼라 및 흑백

■ 출품수 및 출품료 : 1인 6점 이내 / 20,000원

※ 출품작품 뒷면에 아래 내용을 기록한 출품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촬영장소, 촬영일시)

■ 문의처 : 지부장(010-2684-0100) 사무국장(010-7101-5524)

■ 접수처 : 우 59324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 34 (사)한사협 장흥지부

■ 접수마감 : 2025년 11월 10일~2025년 11월 24일(소인유효)

■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 : 2025년 11월 29일(토요일 / 공개심사)

■ 심사장소 : 보성군청 회의실(4층)

■ 심사발표 : 2025년 12월 1일(월요일), (사)한사협 홈페이지

■ 시상내역

- ◇ 금상 1점 : 보성군수 상장 및 작품매입비 1,000,000원
- ◇ 은상 2점 : 보성군의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500,000원
- ◇ 동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300,000원
-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200,000원
- ◇ 입선 3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100,000원

■ **작품반송** : 낙선작은 3개월 이내에 폐기함. 다만, 출품자의 반환 요구 때 5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출품자에게 있음.

■ 일반사항

- ◇ 수상작품은 주최, 주관처에서 필요한 '비영리적 목적'의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 출품자에게는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및 민형사상의 법적책임 등 모든 책임이 있음.
- ◇ 입상(선)된 작품은 저작자와 협의하에 보성군의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입상 및 입선된 자는 가로 3,000픽셀 이상 원본파일과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발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상권 취소, 제출처 ah7600@naver.com)
- ◇ 각종 공모전에서 동일작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조치하며 비회원은 입회를 7년간 유보함.
- ◇ 작품집은 발행하지 않음.

■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

■ 후원 : 보성군, 보성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남도지회



제7회

화성

전국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화성지부에서 사진문화예술의 발전과 사진동호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7회 화성 전국 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모 방법

출 품 내 용 : 국내, 외 미발표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자유작 (컬러, 흑백)

접 수 기 간 : 2025년 8월 1일(금) ~ 2025년 8월 30일(토) 마감일 소인유효

작 품 규 격 : 컬러 및 흑백 11R (11"x14")

출 품 수 : 1인당 4점 이내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출 품 료 : 1인당 30,000원

출 품 요 령 : 작품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 작품뒷면에 부착하여 접수(우편번호 필히 기재)

접 수 처 : 우18587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297번길15 신성미소지움@205-1402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화성지부

문 의 : 지부장 : 010-8901-7424, 사무국장 : 010-9168-0078

심사 전시

심 사 일 시 : 2025년 9월 5일(금) 13:00~17:00

심 사 장 소 : 화성문화원 대강당 (공개심사)

심 사 발 표 : 2025년 9월 8일(월) 화성지부 홈페이지(http://cafe.net/paskhs, 사협홈페이지: www.pask.net)

원 본 제 출 : wonway1004@naver.com ※ 수상자(입선자포함)는 결과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필름, 디지털의 경우 300픽셀 이상(RAW, TIFF, JPG)을 우편이나 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됨

시 상 식 : 2025년 10월 14일(화) 16:00 / 화성문화원 전시실(2층)

작 품 전 시 : 2025년 10월 14일(화) ~ 10월 17일(금) / 화성문화원 전시실(2층)

시상 내역

금 은 동 가 장 입

상 : 1점. 화성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상 : 2점. 화성시 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상 : 3점. (사)한국예총 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만원

작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화성지부장 상장

려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화성지부장 상장

선 : 출품수의 20%이내(입상작포함)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화성지부장 상장

- 입선이상의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자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에게 입상작이 중복되었을 경우 상위 입상권만 인정함.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지며, 입상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작품 수상 취소 및 상금이 회수됨.
- 타 공모전과 중복 공모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기발표작, 디지털 합성사진으로 판명시 상권은 취소되고 시상금은 회수됨. (※ 기발표작 : 개인전, SNS, 관련도서 등에 공개되었던 작품류)
- 송금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 할 경우 입상자 및 입선자 본인 부담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입상작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기타 사항

주최 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화성지부

후원 | 화성시

화성시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

FACO

한국예총

화성지회

화성문화원

2025년 진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진도군의 주요 관광지의 테마를 소재로 촬영한 작품



공모내용

- 진도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문화유적지, 비경 등
- 관매도 유채꽃 축제 등 생동감 넘치는 진도군의 각종 축제, 행사, 스포츠
- 진도군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관광지 등 관내 명소
- 지역특산품 및 일상생활 속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사진
※ 진도군을 주제로한 미 발표작으로 다른 곳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5. 10. 31. 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우)58926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6-4 진도향토문화회관 별관 진도생활문화센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응모방법

응모자격 | 제한없음

작품기준 | 2023년 11월 1일 이후 진도군 지역 촬영 사진

작품규격 | 11"×14"칼라사진(장정불요) 메모리 4MB이상 파일 4,000×2,500픽셀 이상

출 품 료 | 없음

출 품 수 | 1인당 6점 이내

출품요령 | • 사진 뒷면에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E-메일을 기재하여 출품

• 입선 이상 작품은 반드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을 JPG 파일로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미제출시 상권 취소)



심사일시 | 2025년 11월 중

심사장소 | 진도군(추후 공지)

결과발표 | 2025년 11월 중

- 진도군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시

시상내역

수상	작품 수	부 상	
금상	1점	진도군수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2점	진도군의회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진도예총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입선	50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출품 유의사항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출품 및 입상 작품에 저작권·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상금 반환 및 입상 무효와 함께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가 지게 됩니다.
-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컴퓨터 그래픽 합성작, 과도한 포토샵, 타 공모전 입선 및 입상작, 타 지역 작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상권 취소 및 시상금 반환을 의무로 합니다.
- 입상·입선작품의 사진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주관 측은 공익적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작 유사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 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됩니다.

제7회 경기 광주전국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있음

2025. 7. 1 - 8. 14 (소인유효)



수어장대

응모방법

응모자격 | 제한없음

작품내용 |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경기광주의 관광명소 및 전통문화 (자연경관, 광주8경, 문화유산/유적, 축제행사)

작품규격 | 11×14" (흑백 및 컬러, 장정불요)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우편이나 택배로 제출 (직접접수는 불허)

출 품 료 | 1인당 20,000원 (4점 이내,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접수기간 | 2025. 7. 1(화) ~ 08. 14(목) 소인유효

접 수 처 | (우) 12758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35, 9층 (경안동 황백빌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 광주지부

연 락 처 | 지부장 010-3762-2695, 사무국장 010-8308-8215

행사일정

심사 일시 | 2025. 8. 24(일),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심사 발표 | 공개심사 후 사협 홈페이지(www.pask.net) 발표

시상식 및 개전식 | 2025. 9. 24(수) 오후 3시

전시기간 | 2025. 9. 24(수) ~ 9. 28(일) 12시까지

시상 및 전시 장소 | 경기도 광주시문화재단 예술의전당 갤러리 (구) 남한산성아트홀 갤러리

구분	시 상 내 역
금상 1점	경기 광주시장 상장 및 작품 매입비 100만원
은상 2점	경기 광주시의회 의장 상장 및 작품 매입비 50만원
동상 3점	경기 광주의예총 회장 상장 및 작품 매입비 30만원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상장 및 작품 매입비 10만원
장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부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부장 상장(출품작의 20%이내)



기타 · 주의사항

- ① 입상 및 입선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 측에 있으며 도서출판, 홍보간행물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② 타 공모전에 유사작 및 동일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취소와 함께 상금은 반환되며, 사업규정에 따라 징계 및 7년간 입회자격 유보.
- ③ 출품작 초상권의 민, 형사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④ 금상은 20x24 그 외의 입상작품은 16x20으로 프린트하여 원본파일과 함께, 심사발표 후 10일 이내 제출하고(미제출시 상권은 취소됨)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입선작의 원본 파일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사무국장 whk8215@hanmail.net)
- ⑤ 출품된 입상 입선작은 본 지부에 귀속되며, 낙선작은 전시 종료 후 작품집과 함께 개별 송부함.

제39회 밀양전국사진공모전 요강

(사협 입회 점수 있음)

접수마감 2025년 8월 21일(목) 18:00 도착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에서 참신하고 의욕 있는 사진예술인들의 창작품을 공모하는 제39회 밀양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사진애호가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자격 : 전국사진 애호가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 칼라 및 흑백 11× 14 inch

출품수 : 1인 4점 이내 출품료 : 1인당 20,000원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바람.



접수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2025년 8월 21일(목) 18시까지 도착분

접수처 : (우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254-21(가곡리 810-1)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

문의처 : 지부장 하영삼 010-3054-2837 사무국장 손희권 010-3800-6968

심사일자 : 2025년 8월 23일(토) 10:00 예정 심사장소 : 밀성제일고등학교 강당(밀양시 밀양대로 2078)

심사발표 : 2025년 8월 26일(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발표 예정

전시기간 : 2025년 10월 21일(화) ~ 10월 26일(일)(예정) 전시장소 :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전시실 예정

시상식 : 2025년 10월 21일(화) 18:30 예정(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전시실)

시상내역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점 : 밀양시장 상장, 밀양시의회의장 상장 상금 각 50만원

동상 3점 : 밀양문화원장, (사)한국예총밀양지회장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도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장 상장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장 상장

입선(출품작품수 20%이내, 입상작품 포함)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장 상장



유의사항

- 입상자는 심사 후 3일 이내 원본파일 제출(미제출시 입상·입선이 취소됨)
- 동상 이상 입상자는 심사발표 후 3일 이내 계좌번호, 은행명, 신분증 사본 제출
-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 취소와 동시 상금 반환 조치되며, 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 자격이 유보 됨.
- 초상권을 비롯하여 작품내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작품제출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제공 동의로 간주하고 공모전 행사를 진행함.
-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으나 주최 측은 그 사용권을 가지며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상·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이상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미참석시 상권 취소함(대리참석 가능)
- 낙선작 및 상장, 상금, 작품집은 전시종료 후 개별 반송

제7회 밀양요가 전국사진공모전 요강

(사협 입회 점수 있음)

접수마감 2025년 9월 4일(목) 18:00 도착분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형·무형의 문화재 그리고 깊은 역사의 향기가 베어 있는 밀양을 홍보하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 관광 도시로 발전하는 밀양에서 **요가페스티벌(요가시연·경연대회·컨퍼런스)** 개최에 즈음하여 **제7회 밀양요가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국내·외 사진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작품내용 : • 밀양시가 주최·후원하는 요가 관련 행사 사진 • 밀양을 배경으로 한 요가 관련 사진 등

작품규격 : 칼라 또는 흑백 11인치 x 14인치 (입상자는 원본 파일 제출, 미제출 시 입상 취소)
칼라·디지털 사진은 원본파일 장축 3,000픽셀 이상인 jpg파일로 촬영 정보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름의 경우 스캔하여 장축이 3,000픽셀 이상인 jpg 파일 (원본파일) 제출
메일주소 hays5407@hanmail.net

출품수 : 1인당 4점 이내

출품료 : 1인당 20,000원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촬영장소 및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

접수기간 : 2025년 8월 1일(금)~ 2025년 9월 4일(목) 18시까지 도착 분

접수처 : (우 50409) 경남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254-21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

문의처 : 지부장 하영삼 010-3054-2837 사무국장 손희권 010-3800-6968

심사일자 : 2025년 9월 6일(토) 10:00 심사장소 : 밀양시 밀성제일고등학교 강당(밀양시 밀양대로 2078)

심사발표 : 2025년 9월 9일(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시상식 : 2025년 10월 19일(일) 18:30예정(선사인 밀양테마파크)

전시기간 : 2025년 10월 19일(일) ~ 10월 25일(토) (예정) 전시장소 : 선사인 밀양테마파크 예정

시상내역 : 금상 1점 : 밀양시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2점 : 밀양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7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밀양지회장, 밀양문화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장 상장

입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장 상장, 출품작품수의 20%이내 (입상작품 포함)



유의사항

- 입상자는 심사 후 3일 이내 원본파일(미제출시 입상·입선 취소) 및 계좌번호, 은행명, 신분증 사본제출
-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 취소와 동시 상금 반환 조치되며, 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 자격이 유보 됨.
- 초상권을 비롯하여 작품내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작품제출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제공 동의로 간주하고 공모전 행사를 진행함.
- 입상, 입선 사진작품은 밀양시에 귀속되며, 밀양시에서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입상 이상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미참석시 상권 취소함(대리참석 가능)
- 낙선작 및 상장, 상금, 작품집은 전시종료 후 개별 반송
- 입상·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부여서동연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촬영대회 개최식 2025년 7월 5일(토) 10시

촬영대회 기간 2025년 7월 4일(금) ~ 6일(일) 연꽃축제기간(3일간)

응모방법

촬영장소 부여서동공원(궁남지) 일원

작품내용 부여서동연꽃축제기간(7월 4일~6일)에

촬영한 행사에 관한 사진

• 2025년 6월 28일~8월 3일 기간에 각종행사 및 궁남지 연지와 연꽃에 관한 사진

참가대상 누구나

참가비 3만원(작품출품시 납부)

단, 7월4일~6일 촬영대회 참여자(중식권 및 출품표 제공)

작품규격 11×14" 디지털사진 1인당 4점 이내

출품방법 우편접수(작품 뒷면에 작품명, 촬영일시, 성명,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촬영대회(7월4일~6일)에 참여한 작가님은 일련번호가 기재된 대회장에서 발행된 출품표 부착)

저작권 귀속 및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및 입선작은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고 저작물의 사용권은 주최 측에 있으며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출력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제출된 파일을 체크하여 부여서동연꽃 이외의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은 작품은 상권이 취소되니 주의 바람.
(해상도 300dpi, 3,000pixels이상 jpg파일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여지부 E-mail "bypask@naver.com"으로 제출)
 - 모든 출품자에게 작품집 증정하고, 출품자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으며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음.
- ※ 추후 사정에 따라 공모 세부요강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행사일정

접수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22일

접수처 우)33168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9(신안빌라) 203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부여지부 사무국(010-8653-5027)

접수문의 지부장 010-3408-8390 / 사무국장 010-8653-5027

심사일시 2025년 8월 28일

발표일 2024년 8월 29일(사협본협회홈페이지, 부여군홈페이지)

전시기간 2025년 10월 3일 ~ 10월 5일

전시장소 궁남지 연꽃갤러리

시상식 2025년 10월 3일 14:00시(장소:궁남지연꽃갤러리)

시상내역

사상	점수	상금
금상	1점	부여군수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은상	2점	부여군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부여군예총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사협부여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	5점	사협부여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입선	출품작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사협부여지부장 상장

※ 시상금은 작품매입비로 지급

- 상금은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여지부 명의로 통장으로 지급
- 입상 수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여하여 함

2025년



진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문화와 관광의 도시 진주를 널리 홍보하고 진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 등 숨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 진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공모를 부탁드립니다.

접수마감 2025년 11월 12일(수) 도착분

공모주제 "시즌 II 진주, 사계를 품다"

구분	기존 관광지
관광자원 및 자연환경	진주성, 남강, 진양호, 금호지, 경상남도수목원, 강주연못, 월아산숲속의진주, 용호정원, 진지령터널, 일호광장 진주역, 문산성당, 지수승산마을, 진주의 야경(유등공원, 물빛나루터, 남가람별빛길, 철도문화공원,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등 진주의 관광명소 내 사계절 자연경관 또는 야경이 어우러진 작품
축제 및 문화행사	진주 논개제, 진주 M2페스티벌 등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 시책을 담은 작품
생활상	마을풍경, 도시전경, 전통시장 등 진주의 다양한 모습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
기타	진주의 숨은 명소 등 사계절 다양한 진주의 모습을 담은 작품

※ 단순 인물 위주의 모습을 담은 작품 제외

※ 기존 수상작들과 동일한 주제 및 촬영구도 지양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만 14세 미만의 참가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작품규격 : 11"x 14" 칼라사진, 테두리가 없을 것

(네가티브, 슬라이드 필름사진 판별 불요)

• 출품작 : 1인당 4점 이내

(진주시 2024년 1월 이후 촬영사진으로 타 공모전 미발표작)

• 출품료 : 없음

• 접수기간 : 2025. 10. 20.(월) ~ 11. 12.(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mrlee1970@naver.com)

• 신청서류 : 응모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품 및 출품표

※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

• 출품표 : https://www.pask.net/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출품요령 : 사진 뒷면에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기재하여 출품용 인화파일 (jpeg와 사진원판 디지털, 네가티브, 슬라이드)을 동시에 제출 (미제출 시 접수불가)

기타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 작품이 아니더라도 연사 작품의 일부가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합성/조작/변형사진은 입상 취소 및 향후 3년간 진주관광사진 출품을 금지합니다. 다만 파노라마 사진은 허용합니다. • 입상작품은 입상작 전시회 및 입상작 도록 등의 제작에 활용되며, 국내외 한국(진주)을 소개하는 각종 홍보활동과 홍보를 제작에 사용됩니다.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자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을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하여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합니다. • 낙선작품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발송하여 응모를 위해 제출한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항공법을 준수하여 촬영한 사진의 EXIF에서 촬영지 위치정보와 고도 촬영 시간 등 관련정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추후 비행 허가 및 촬영승인 내역 등 자료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심사 후에는 입선 인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심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입상자 본인 부담합니다. • 출품 작품의 규모 및 품질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의견에 따라 결정하며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기타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 지부장(010-4924-5894)에게 문의바랍니다.

시상내역

구분	시상	수량	상금	훈격
필름 사진	금상	1점	300만원	진주시장
	은상	2점	각 100만원	진주시의회의장
	동상	3점	각 50만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장
	가작	5점	각 30만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장
	입선	25점	각 10만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장
휴대폰 사진	입선	25점	각 10만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장

※ 시상내역 중 휴대폰 미달 시 필름디지털에 포함예정

심사 및 전시

- 심사 일시 : 2025. 11. 15.(토) 13:00 예정
- 심사 장소 : 진주시 동진로 183, 태웅빌딩 8층 예정
- 심사 발표 : 2025. 11. 17.(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진주지부 홈페이지 등재예정
- 전시 일자 : 2025. 12. 01.(월) ~ 12. 05.(금) 예정
- 전시장소 : 진주시청 2층 '갤러리 진심 1949'
- 시상식 : 전시일자 기간 중
- 시상장소 : 진주시청





2025 고창군 역사·문화·민속 촬영대회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촬영대회

8.29~8.31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간직한 세계유형유산인
고창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록으로
보존하고자 아래와 같이 촬영대회를 개최하오니,
사진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요강

- 촬영대회 기간 : 2025. 8. 29. ~ 8. 31. (고창농악꽃대림축제)
- 부대촬영기간 : 고창농악상설극단 (2025년 4월~7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7:30)
- 참가자격 : 전국민(참가자격 제한 없음)
- 대회장소 : 고창농악전수관 일원(고창군 성송면 향산1길 106)
- 개최식 행사 : 없음
- 참가비 : 30,000원(사진출품시 납부)
- 촬영내용 : 제6회고창농악꽃대림축제 공연행사 및 2025년에 고창농악 보존회가 주관하는 농악공연에 관한 내용

사진 출품 안내사항

- 작품 규격 : 11"×14" 컬러 및 흑백 인화지
- 출품수 : 1인 4매 이내
- 작품 접수기간 : 2025.9.01~9.30
- 접수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수월길 104-1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 출품표에 촬영대회명칭, 작품명,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번호, 촬영장소, 촬영일자 필히 기재(각 출품작 뒷면에 부착)
- 연락처(문의처) : 지부장 010-3653-9905, 사무국장 010-2651-3127
- 심사일시 : 2025. 10. 3. (예정) ○ 시상 및 전시 : 추후통보
- 심사장소 : 고창군청 5층 회의실(예정)
- 심사결과 발표 : 심사 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에 공고 및 개별 문자메세지로 통지
- 입상 및 입선작은 7일 이내 원본 파일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이메일 : dolmens@naver.com)

●주최·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고창군·고창군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시상내역

- 금상 1점 : 고창군수 상장, 및 작품매입비 100만원
- 은상 2점 : 고창군의회의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50만원
- 동상 3점 : 고창지부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30만원
- 가작 5점 : 고창지부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20만원
- 장려 5점 : 고창지부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10만원
- 입 선 : 총 출품수의 20% 이내, 고창지부장 상장

기타(유의) 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와 고창군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10년간 고창군 홍보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인쇄물 제작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수상 결정 후 선정 취소)
-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수상자 및 출품자에게 있으며, 타공모전의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할 경우 심사제외 및 시상을 취소되며, 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입회가 유보됨
- 작품매입비는 세금 공제 후 지급, 수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요망
- 낙선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후 출품자 전원에게 개별 발송

2025 고창 관광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2025. 07. 01
당일도착분 ~ 07. 30

작품내용

고창군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관광지, 자연경관, 문화유산, 축제, 민속행사 등 고창군 홍보에 적합한 미발표 자유작

행사일정

심사일·장소 2025년 8월 2일(토) 예정/ 장소 추후 확정
심사발표 2025년 8월 4일(월) / 고창군청 및 한국사협 홈페이지
전시·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응모방법

응모자격 전국 사진 애호가
작품규격 흑백 및 컬러 인화 11"×14"(장정 불요)
출 품 수 1인 6점 이내
출 품 료 20,000원
출품요령 각 작품뒷면에 출품표 부착(작품명,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촬영장소, 촬영일자 정확하게 기재)
문 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지 부 장 010-3653-9905
사무국장 010-2651-3127
접 수 처 (5645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수월길 104-1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시상내역

금상 (1명) 작품저작권료 2,000,000원 (고창군수상)
은상 (2명) 작품저작권료 각 1,000,000원 (고창군수상)
동상 (3명) 작품저작권료 각 500,000원 (고창군의회의장상장)
가작 (5명) 작품저작권료 각 200,000원 (한국사협 고창지부장상)
입선(50명) 작품저작권료 각 100,000원 (한국사협 고창지부장상)

일반사항(응모조건)

-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입상 및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와 고창군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30년간 고창군 홍보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인쇄물 제작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 선정후이라도 선정 취소)
- ◆ 동일 작품으로 타 공모전 입선, 입상작은 중복 참여 불가하며, 타 공모 수상작 또는 대리작·표절의 경우, 심사와 시상에서 제외되고 수상 이후에도 확인될 경우 시상이 취소될 수 있음.
- ◆ 디지털 합성, 과도한 후처리(조작 및 변형), 규격미달 작품은 심사제외
- ◆ 심사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수상자 및 출품자에게 있으며, 타공모전의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할 경우 심사제외 및 시상을 취소되며, 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 ◆ 수상작으로 선정된 출품자는 7일 이내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요구받았을 경우 제출해야 함.
- ◆ 작품매입비는 원천세 공제 후 지급, 수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해야 함
- ◆ 모든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후 출품자 전원에게 개별 발송

- 주 최 | 고창군
- 주 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 후 원 | 고창군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접수마감 : 2025년 7월 1일~ 7월 15일 소인 유효
(방문 및 우편접수)

제17회 아름다운 **괴산**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요강

- 주 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
- 주 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
- 후 원 : 괴산군, 괴산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괴산지회, 괴산문화원

1.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진 동호인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괴산의 아름다운 명소, 특산물, 문화유산, 축제나 행사, 괴산의 발전상을 표현한 작품 포함.
- 출품규격 : 컬러 및 흑백 11"x14" (장정불요)
- 출 품 료 : 1인 2만원(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출품작은 반송하지 않음.
- 출 품 수 : 1인 6점 이내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출품표에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장소 표기해서 접수
- 접수마감 : 2025년 7월 1일~ 7월 15일 소인 유효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우)28044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원소로명덕길 191
- 기타문의 : 010-5490-8330 (지부장), 010-6409-3899 (사무국장)
- 심사발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http://www.pask.net>)

2. 시상내역

- 금상(1점) : 괴산군수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은상(2점) : 괴산군의회 의장, 괴산문화원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동상(3점) : (사)한국예총 괴산지회장 상장 및 각 50만원
- 가작(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장 상장 및 각 20만원
- 장려(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장 상장 및 각 10만원
- 입선(50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장 상장 및 각 10만원
- 시상 및 전시 : 2025년 8월 말경 - 9월 초 (추후통보)
- 전시장소 : 추후공고

3. 기타(유의)사항

- 본 공모전에서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되었을 경우 상권 취소는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이내의 기간동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수상작중 국·내외 상표출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상금 회수 및 상권은 취소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또는 지회, 지부, 도지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가작 이상의 수상자는 16X20사이즈 사진인화 및, 입선 이상의 선정된 작품은 3000 X 2000 픽셀 이상의 JPG원본파일을 10일 이내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 취소,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짐.

제20회 전라남도 사진대전

접수마감 : 2025년 7월 19일(토) - 현장접수(입회접수 있음)

- ▶ 출품자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남도 지역내 지부소속 회원
-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전라남도 미술대전 수상자는 접수 인정함
- ▶ 작품내용 · 국내외 발표되지 않은 사진작품,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은 작품으로 예술성이 있어야 함
· 자유작
· 포트폴리오(신설) : 전라남도 지역 풍경 및 관광자원, 생활상 등을 소재로 한 작품
- ▶ 작품규격 · 자유작 : 20"×24", 20"×30" 우드락(대지)을 포함하여, 한 변이 90cm를 초과할 수 없음
- 초대·추천작가, 출품자 : 도록제작용 8"×10" 광택지 각 1매 동봉 제출
· 포트폴리오 : 8"×10" 규격의 작품 9매로 구성하고, 긴 면이 90cm 이내로 우드락 1매에 부착하여 출품하며, 도록제작용 8"×10" 광택지 각 1매 동봉 제출
- ▶ 원서배부일 · 2025년 5월 1일 ~ 7월 19일 까지
- ▶ 원서배부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남도지회 및 전남도내 시·군지부 회원에게 우편 발송
웹하드 아이디: hmc_color / 비번 2258 내리기전용→전남사진대전 출품원서→다운로드
- ▶ 출품수 및 출품료 · 1인당 4점 70,000원 (출품자에게 작품집 증정)
- ▶ 작품접수 및 장소 · 2025년 7월 19일(토) 10:00 ~ 17:00 / 장흥군민회관 3층 회의실
- ▶ 문의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전라남도지회 (지회장 010-9884-2258 / 사무국장 010-9758-0550)
- ▶ 심사일 및 장소 · 2025년 7월 20일(일) / 장흥군민회관 3층 회의실 (공개심사)
- ▶ 심사결과 발표 · 2025년 7월 21일(월) 사협 홈페이지에 발표
- ▶ 시상내용 · 초대작품상 1점 - 전라남도지회장상 (상패 및 작품매입비 100만원)
· 추천작품상 1점 - 전라남도지회장상 (상패 및 작품매입비 50만원)
· 대 상 1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상패 및 작품매입비 300만원)
· 최 우 수 상 1점 - 전남예술단체총연합회장상 (상패 및 작품매입비 100만원)
· 우 수 상 2점 - 전라남도지회장상 (상패 및 작품매입비 각 50만원)
· 특 선 - 전라남도지회장상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20만원, 입선작의 10%)
※ 포트폴리오 작품에 특선 1점을 우선 선정함
· 입 선 - 전라남도지회장상 (상장, 출품수의 20%)
※ 단,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작품매입비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남도지회에서 지급
- ▶ 전시기간 · 2025년 8월 19일(화) ~ 8월 23일(토) (5일간)
- ▶ 시상일시 ·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시
- ▶ 시상 및 전시장소 ·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전시실
- ▶ 수상작 전시작 제출 ·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작품은 30"×40" 액자를 제작하여, 8월 19일(화) 전시장 현장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권을 취소하고, 제출된 작품은 전라남도지회에 귀속함
- ▶ 작품반출 · 초대·추천작품은 8월 19일(화) 전시장에서 현장 접수하며, 액자포함 90cm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상·입선 작품은 전시 마감일 당일 전시실에서 반출하고, 낙선작은 심사발표 후 3일 이내에 인근 시·군지부에서 반출하되, 찾아가지 않은 작품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 ▶ 기타사항 · 응모작품의 초상권 및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동일 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입선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고, 사협회원은 징계하며,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입상·입선작품의 사진저작물 사용권은 주최·주관하는 단체에 있으며, 협회 또는 지회·지부·전라남도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주최·주관_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남도지회

후원_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전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45회 대구광역시 사진대전

접수마감 2025. 6.18(수) 도착분에 한함

응모방법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고 국내·외에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
- **작품규격** : 11×14inch 컬러 및 흑백사진
- **출품절차** : **작품접수마감 : 2025년 6월 18일(수) 도착분에 한함**
출품료 : 출품료 5만원 (1인 4점 이내)
일반공모 : 출품표를 지회 홈페이지 지회 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사무실에서 배부 받아서 사용
초대·추천작가 :
▶출품원서(홈페이지 자료실)-심사용 8R 사진은 사무실 (6월18일) 제출 및 도록 제작용 파일을 E-mail로 제출
▶초대작가·추천작가 작품전시 여부는 추후 공지(전시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합니다.
- **출품자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자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대구광역시사진대전에 입선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대구지회 회원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주민등록 초본 제출)

시상 및 심사 . 전시

• 시상내용 :

구 분	선정작수	시상내용
대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패
최우수상	1점	대구광역시사진대회장 상패
우수상	2점	대구광역시사진대회장 상패
특선		대구광역시사진대회장 상패 (입선작 10%이내)
입선		대구광역시사진대회장 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초대작가상	2점	대구광역시사진대회장 상패
추천작가상	1점	대구광역시사진대회장 상패

- **작품규격** : **대상 입상자** 전시용 76×102cm (긴변의 길이가 102cm이내)
특선 이상 입상자는 전시용 60×90cm 크기의 유리 없는 액자(긴 변의 길이가 90cm이내)
입선 수상자 전시용 50×60cm 유리 없는 액자(긴 변의 길이가 60cm)
제작하여 8월 18일(월) 9시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10전시실로 제출

유의사항

- 입상, 입선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합니다.
- 입상, 입선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발표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이나, 유사한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고 회원은 징계 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가 유보되고, 작품 내용 중 초상권 침해 관련사항 일체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다수 입상, 입선작 중 1점이라도 상권 포기 또는 취소될 시에는 해당 작품과 관계없이 모두 상권이 취소됩니다.
- **낙선한 작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 후 개별 발송합니다.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후원 | 대구광역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이메일
dgpask06@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gpask.net

문의사항
053)254-3268~9

제19회 광주사진대전

접수마감 2025. 7. 7.(월) 10:00 ~ 17:00 (도착분)

응모방법

- **출 품 자 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소속회원
③ 광주광역시 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자
- **출 품 료** | 7만원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5만원 (수상작품의 인화 및 마트비) 접수시 납부. (단 낙선자는 반환함)
- **작 품 내 용** | 국내 · 외 미발표 작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
- **작 품 규 격** | ① 11" × 14" 4매 출품
② 출품작 파일 20" × 24" 와 증명사진을 파일로 제출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 한하여 본인이 30" × 40" 인화, 액자 제작하여 제출
- 추천 · 초대작은 액자 포함 80cm를 초과 할 수 없음(유리 불가)
- **원서배부일** | 2025년 7월 1일(화) ~ 7월 7일(월)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www.kjphoto.or.kr에서 다운로드
- **작 품 접 수** | 2025. 7. 7.(월) 10:00 ~ 17:00 (도착분) (예정)
- **출 품 수** | 1인당 4점
- **접 수 처** | 광주예총회관 1층 전시실 (예정)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20,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내 광주예총 1층
- **문 의 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062-228-4774)
- **심 사 일 시** | 2025. 7. 10.(목) (예정)
- **심 사 장 소** | 광주예총 회관 1층 전시실 (예정)
- **심 사 방 법** | 공개심사
- **심사결과발표** | 2025. 7.11.(금) 홈페이지 발표 (예정)
(광주사협 http://www.kjphoto.or.kr 및 한국사협 http://www.pask.net)
- **전 시 기 간** | 2025. 8. 6.(수) ~ 8. 11.(월)(예정)
- **시상일시 및 장소** | 2025. 8. 11.(월) 오후 2시 / 광주예총1층 전시실 (예정)
- **작품 반출** | 수상 작품은 시상식 후 당일 전시장에서 반출 함.
- **낙선작 반출** | 낙선작은 시상식 후 반출하되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은 폐기 처분함.

시상내역

- **대 상** | 1점,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상금 200만 원
- **최 우 수 상** | 1점,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상금 100만 원
- **우 수 상** | 2점,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 **특 선** | 수상작품 수의 10%이내,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 **입 선** | 출품 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 **초대작가상** | 1점,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대회장 상패 및 상금 50만 원
- **추천작가상** | 1점,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대회장 상패

기타사항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수상작 중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확인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유보됨

주 최 · 주 관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후 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6회 부산사진대전 작품공모요강

부산의 사진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유망한 신진작가를 발굴하고자
제36회 부산사진대전을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출품자격** ①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②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
③ 부산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수상경력이 있는 자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자
- 공모영역** 국내외에 미발표된 작품(단사진 및 포트폴리오)으로서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는 작품
- 출품규격 (일반공모·추천·초대작품)**

작 | 품 | 접 | 수
2025년 6월10일(화)
10:00 - 17:00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장
(당일 한함)

- (1) 일반공모: ① 단사진-작품규격은 11in x 14in로 인화하여, (긴변의 길이만 맞춰도 됨) 출품
※ 인쇄용 2400x3000픽셀(해상도:300dpi)의 작품파일 동시 제출(이메일, USB 등 이용)
② 포트폴리오: 11in x 14in 중 6매의 사진을 각각 인화하여 출품
※ 인쇄용 3300x4200픽셀(해상도:300dpi)의 작품파일 및 작업노트 동시 제출 (이메일, USB 등 이용)
③ 입선, 입상작에 한하여 "전시작품반입"의 요령에 따라 작품 반입해야 함.
- (2) 추천·초대 작품: 작품규격은 40cmx50cm(16inx20in)이내, 긴 변의 길이가 70cm인 대지(우드락)에 작품을 부착하여 출품한다.
※ 인쇄용 2400x3000픽셀(해상도:300dpi)의 작품파일 동시 제출(이메일, USB 등 이용)
- (3) 공통사항: 파일 제출처-paskbs@naver.com

출품일자 및 내용

- ① 원서교부: 2025년 5월 12일(월) - 2025년 6월 10일(화) 오후 5시까지
② 원서 배부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홈페이지(http://www.paskbs.com (회원광장-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③ 접수일시 및 접수처: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당일 한함)
④ 접수처: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대연동)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실
⑤ 출품수 및 출품료: 단사진 - 1인 4점 이내, 10만원 / 포트폴리오 1인 6매, 10만원

심 사 2025년 6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공개심사)

심사발표 2025년 6월 16일(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홈페이지 게재 (http://www.paskbs.com)

- 시상내용**
- 대 상 1점: 부산광역시상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최 우수상 1점: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 2점 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특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상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수상작품 총 수의 10%이내)
 - 입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상 상장 (출품작 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 초대작가상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추천작가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 ※ 상금은 세전 금액임

전시작품반입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까지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 ① 입선작은 20 in x 24 in 크기로 인화하여, 한변의 길이가 80cm이내의 대지(우드락)에 작품을 부착하여 반입할 것.
② 특선 이상의 입상작품은 긴 변이 81cm 이상 130cm이내(액자포함)로 유리 없이 제작, 반입할 것.
③ 위 작품들은 미제출시 상권 취소

작품전시 2025년 7월 22일(화) ~ 7월 25일(금) (4일간)

전시장 부산광역시청 제1, 2, 3전시실

시 상 식 2025년 7월 22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제1전시실

- 작품반출**
- 낙선작반출: 2025년 6월 17일(화) ~ 6월 18일(수) 2일간 오후 5시까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사무국 (기일 내 미 반출 작품은 약정에 의거 지회가 임의로 폐기처분함)
 - 전시작반출: 입선, 입상, 추천·초대작품은 전시종료일 7월 25일(금) 오후 4시(시간엄수)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기타사항

- ① 반출시 작품의 파손 여부는 반드시 수령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반출기한 내에 찾가지 않은 작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지회가 지지 않으며 지회에서 임의 처분함
②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형회원은 징계조치,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7년간 유보됨
③ 초상권을 비롯한 작품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④ 입선·입상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⑤ 상세한 것은 http://www.paskbs.com 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무국 (051-631-4111)으로 문의

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해운대블루라인파크 / 센텀종합병원 / 대양기전 / 거성카메라



응모요령

출품자격

가.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회원
다. 타 지역 거주자 중 강원특별자치도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입선, 입상
경력이 있는 자

접수기간

2025. 7. 21 ~ 8. 1. (18:00까지 도착분)

출품료

강원특별자치도사진대전: 1인당 60,000원

입금계좌: 농협 351-1291-3496-53

작품내용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작품규격

11x14인치 (정정보음)

※ 디지털사진 화소수 긴쪽 3,000픽셀 이상

접수처

(2512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읍 홍천로 601-1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 우편(택배)접수, 사진작가협회 각지부(도내) 방문 접수

(각 지부에 접수된 작품은 8월 1일 18:00까지 도지회에 접수 완료해야 함)

Email: say9673@naver.com

문의처

010-9147-9673

출품요령

제목,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작품이면에 출품표 부착)

심사일시

2025. 08. 04. (시간·장소 추후 선정)

심사작품발표

2025.08.05. (예정) 사형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지회

(http://cafe.daum.net/kwpask)

시상내역

시상내용

- 대 상(1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상장 및 작품매입비 250만원
- 최우수상(1점): 강원특별자치도예총회장상 상장 및 작품매입비 100만원
- 우수상(1점): 강원특별자치도예총회장상 상장 및 작품매입비 50만원
- 특 선: (사)사형 강원특별자치도지회상장 (수상작품총수의 10%이내) 상장 및 작품매입비 30만원
- 입 선: (사)사형 강원특별자치도지회상장 (출품작품수의 20%이내/입상작포함) 상장

개전식 및 시상

2025. 9. 6. (토) 오전 10:00

전시기간 및 전시 장소

2025. 9. 5 ~ 9. 9 홍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상장·작품집 수령

출품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장 및 작품집은 전시장에서 수령 요함
(미 수령시 인근 각 지부로 일괄 송부)

기타사항

- 가. 유사작 또는 동일작을 출품, 입상시 상권 취소와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입회 유보
나. 타 지역에서 전입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확인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다. 작품 뒷면에 출품표를 필히 부착해야 함
라.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출품자가 책임을 짐.
마.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공익적·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바. 심사발표 후 원판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을 5일 이내에 제출 (미제출시상권 취소)
[제출처 메일: say9673@naver.com]
사.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입회 접수 인정함.
아. 강원특별자치도사진대전 추천·초대작가 접수 인정함.
자. 계획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차. 기타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로 문의 바람.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후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한국예총 강원도 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3회

강릉

전국사진공모전

2025. 6. 9월 ~ 7. 15화
[소인유효]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와 발전 및
사진애호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33회 강릉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작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전국 사진애호가
- 작품내용** ▶ 미발표 순수 창작 및 자유작
- 작품규격** ▶ 11x14, 10x15 inch 컬러 또는 흑백 (장정불요)
- 출 품 료** ▶ 1인 20,000원 (4점 이내)
- 출품요령** ▶ 제목, 성명, 휴대전화,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
- 접 수 처** ▶ [우:2547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강릉아트센터 3층 강릉예총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 심사발표** ▶ 7월 중순 예정 (개별통지 및 사협 홈페이지 게시)
- 시 상 식** ▶ 8월 말 예정
- 문 의** ▶ 지 부 장 : 010-5094-1237
사무국장 : 010-8850-8329

시 · 상 · 내 · 역	
금 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동 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가 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장 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입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출품작의 20%내외)

유의사항▶▶▶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입선작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작품 원본 파일 필히 제출 (jpg/긴변 3000픽셀 이상)
- 입선 이상의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선작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발송함.
- 입상, 입선작품은 주최·주관 측이 비영리적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 되었을 경우, 상권 취소되며 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유보됨.
- 작품의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긴급사태로 전시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전시로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에 문의 바람.

The 2nd

제2회 의왕전국사진공모전

마감 -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소인유효)

한국사진
작가협회
의왕지부입회점수
있음

공모요강

- 출품자격** | 제한없음 (전국민 누구나)
- 참 가 비** | 1인당 3만원
- 출 품 수** | 1인당 4점 (**핸드폰 사진도 출품가능**)
- 작품내용** | 미발표 자유작 및 의왕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
- 작품규격** | 11×14 컬러 및 흑백
- 접수기간** | 2025년 6월 16일 (월) - 7월 15일 (화)
-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기재, 의왕시 작품은 촬영장소 기재
- 접 수 처** | 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 - 경기도 의왕시 상직막길 420번지 (청계동645-4) (우 15500)
지부장 010-6398-9327 / 사무국장 010-3874-6057
- 작품심사** | 2025년 7월 17일 오후 1시 의왕시청대강당
- 심사발표** | 2025년 7월 18일 (예정)
- 작품전시** | 2025년 8월 18일 - 8월 23일 계원대학교 쿠마전시장 (예정)
- 개 전 식** | 2025년 8월 21일 (목) 오후 3시



시상내용

- 금 상 1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 2 점 | 의왕시장 상장 및 의왕시의회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 상 3 점 | 의왕예총회장 상장 및 상금 20만원
- 가 작 5 점 | 사)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장 상장
- 장려상 5점 | 사)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장 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입상작 중 은상 1점, 동상 1점, 가작 2점, 장려상 2점 의왕시 작품 심사)



유의사항

- ◎ 입상 및 입선작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사용권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 및 의왕시청에 있으며 비영리 목적의 홍보 및 출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입상, 입선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인정, 초상권은 출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 타 공모전 입상작, 유사작, 기발표작으로 판매되는 경우 입상, 입선 취소 및 회원 징계, 비회원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7년간 유보함.
-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 입상, 입선 수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원본파일 3,000pix 파일로 제출)
보내는곳 yjung0902@hanmail.net (미제출시 상권취소)
- ◎ 입상자는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함.

제35회 원주전국사진 공모전

제61회 원주예술제 일환으로
제35회 원주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전국의 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5년 8월 11일(월) ~ 9월 11일(목) 예정 도착분

응모 방법

- 작품내용 : 미발표 자유작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 작품규격 : 컬러 및 흑백 (11" x 14") 장정불요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를 필히 기재한 출품표 부착
- 출 품 료 : 1인당 3만원
- 출 품 수 : 1인당 5점 이내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접수기간 : 2025년 8월 11일 ~ 9월 11일(예정) 도착분
- 접 수 처 : (우)264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1길 39-14(단계동 915-8)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
- 연 락 처 : 사무실 033-748-7974 / 지부장 010-5362-7700 / 사무간사 010-9313-9866

심사 및 시상

- 심 사 : 2025년 09월 13일(토) 오후2시 (예정) (원주시청 지하 다목적실)
- 심사발표 : 2025년 09월 15일(월), 원주지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ASKWJ.COM>
- 전 시 : 2025년 10월 21일(화) ~ 26일(일)까지 (예정) 원주예술제 행사기간 내
- 시 상 식 : 2025년 10월 25일(토) (예정) 오후2시 치악예술관전시실

시상 내역

- 금 상 :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외 / 작품구입비 100만원
- 은 상 : 2점 (사)한국예총 원주지회장상 / 작품구입비 각 30만원
- 동 상 :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장상 / 작품구입비 각 20만원
- 가 작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장 상장
- 장려상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장 상장(출품작의 20% 이내 정관에 준함)

기타 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인정.
- 초상권은 출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입회가 유보됨.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협회 또는 지회, 지부, 도협의회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 할 수 있음.
- 입선,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5일 이내에 출력파일 3000픽셀이상 (원주지부 E-Mail : yyd5879@hanmail.net) 제출해야함.(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될 수 있음.)

주의

- 시상식 불참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천사운동 기금)으로 기부함. 출품작은 반송하지 않으며 상장과 작품집은 전시 및 시상 후 개별 송부함.
- 우편번호 미기재 시 반송우편물을 못 받을 수 있음을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드론 촬영 사진은 입상권 제외되며, 드론 촬영에 관한 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 • 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원주예총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인정

제37회

★ 접수마감 2025년 7월 17일 (목) 도착분 ★

양산전국사진공모전

본 지부가 사진예술의 발전과 창작의욕을 높이며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갖는
제37회 양산전국사진공모전에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모자격 전국 사진동호인 및 애호가

작품내용 자유작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 스마트폰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출품가능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x 14" (장정불요)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출품수 1인당 4점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 (출품표는 한국사협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한국사협홈페이지/사진정보/사진공모전요강/ "제37회 양산전국사진공모전"에서 다운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할 것)

접수마감 2025년 7월 17일 (목) 도착분

접수·문의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50620 경남 양산시 양주5길 23-8 하이얀 내)
010-9326-7561(지부장) · 010-6325-7561(부지부장)

심사일시 2025년 7월 19일 (토) 오전10시 공개심사

심사장소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심사결과발표 2025년 7월 21일 (월) (사)한국사협 홈페이지 게재 (<http://www.pask.ne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홈페이지 게재 (<https://cafe.naver.com/ysphoto56/14>)

시상내역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100만원

은상 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도지회 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3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예총 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지부장 상장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지부장 상장(800점 이상시 시상)

입선(총 출품수의 20% 이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지부장 상장

유의사항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본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

• 입상 및 입선작은 발표후 7일 이내에 출품 파일 (작품집 제작용 JPG파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상권 취소. E-mail : ysphoto56@naver.com

• 각종 공모전에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입선한 경우 상권이 취소되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7년간 유보됨.

•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전시종료 후 상장과 작품집만 개별 발송함.

• 가작 이상의 입상자는 전원 시상식에 참석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참석이 가능하며, 입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필히 지참 요망)

본 요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후원 양산시, 양산시의회, (사)한국예총 양산시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7회 김해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5년
6월 27일
도착분

◎ 작품 내용 | 가야문화축제 행사 및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 규 격 | 칼라 및 흑백사진 11" × 14"

◎ 출 품 요 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필히 기재)

◎ 출품료 및 수량 | 1인당 20,000원, 출품수 4점 이내(출품자 전원에게 수상작 도록 발송)

◎ 접 수 처 | 50911 경남 김해시 구지로 95(대성동 463-6)
(사)한국예총 김해시지회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
(지부장 010-4320-1005, 사무국장 010-4019-6083)

◎ 접 수 마 감 | 2025년 6월 27일(금)

◎ 심사일, 장소 | 2025년 6월 29일(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심 사 발 표 | 2025년 6월 30일(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전 시 일 자 | 2025년 8월 4일(월) ~ 8월 8일(금) 김해예총회관 2층 전시실

◎ 시 상 일 자 | 2025년 8월 8일(금) 오후 2시 김해예총회관 2층 전시실

◎ 시 상 내 역 | 금 상 1점 - 상금 1,000,000원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은 상 2점 - 상금 각 300,000원 및 김해시장 상장
동 상 3점 - 상금 각 100,000원 및 김해시의회 의장 상장
가 작 5점 - (사)한국예총 김해지회장 상장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장 상장
입 선 - 총 출품작품의 20%(입상작 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장 상장

◎ 기 타 사 항 |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 책임으로 함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동안 공익적인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및 입선작품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파일 제출(미제출시 입상 취소)
▶ 유사작 및 동일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징계 처리함
▶ 금, 은, 동상의 수상자는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 낙선작 및 작품집은 시상식 및 전시장에서 반출하며, 그 외 우편 발송함.



제34회

웅진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5. 6. 16.(월) ~ 21.(토) 도착분 (입회점수 있음)

작품내용 | 국내외 미발표작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창의적 자유작
작품규격 | 칼라 및 흑백 11"×14"(장정불요)
출 품 료 | 1인당 2만원(4점이내)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화제,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우 32563)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20 공주예술인회관 2층 (한국사협 공주지부)

문 의 처 | 지부장 010-3121-2058 / 사무국장 010-8811-2231
작품마감 | 2025년 6월 16일(월)~21일(토)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심사일시 |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심사장소 | 공주문화원 GALLERY (2층)
심사방법 | 공개 심사
심사발표 | 2025년 6월 25일(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공주지부 카페(<http://cafe.daum.net/potoGongju>)

시상내역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1점 : 공주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1점 : 공주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공주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장 상장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장 상장(출품수의 20%이내/입상작 포함)

시상일시 | 2025년 7월 26일(토) 오후 2시
시상장소 | 공주문화원 GALLERY (2층)
전시기간 | 2025년 7월 26일(토)~27일(일)
전시장소 | 공주문화원 GALLERY (2층)

기 타 (유의사항) | *입상, 입선자는 심사발표후 5일 이내 원본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photo2231@naver.com.)
*출품자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
*입상, 입선작의 사진사용권은 주최, 주관처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자격이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유보
*낙선작은 반출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 후 상장과 함께 개별 발송
*수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금, 은, 동, 가작 입상자는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를 필히 제출

주최 | 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

후원 | 김해시 김해시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김해지회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최 : 공주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

후원 : 공주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한국예총 공주지회

제11회 완주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 2025년 7월 15일 ※ 입회점수 있음

작 품 내 용

- 미풍 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작 품 규 격

- 11"x14" 컬러 및 흑백 (장정불요)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4점 이내 : 작품집 증정)

접 수 처

- 우)55093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90 G갤러리 4층 사)완주사협 (사무국장 : 010-4624-9253)
입상/입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성명/작품명 기록) 제출처 : wanjuphoto@naver.com

접 수 마 감

- 2025년 7월 15일 (당일소인유효)

심 사 발 표

- 한국사협 홈페이지

시 상

- 금 상 1점 : 한국사협 이사장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 2점 : 완 주 군 수 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완주군의회 의장 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동 상 3점 : 예총 완주지회장 상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가 작 5점 : 사협 완주지부장 상 (상장)
- 장려상 5점 : 사협 완주지부장 상 (상장)
- 입 선 : 출품수 20% 이내 완주사협 지부장 상 (상장)

기 타 사 항

- 사협 입회점수 인정됨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입선될 경우, 상권은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 입상/입선 작품은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의 초상권 등 민·형사상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짐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완주지부

후원 : 완주군·완주군의회·사)한국사진작가협회·사)한국예총 완주지회



제18회

홍성전국사진공모전

마감 : 2025년 7월 22일(소인유효, 입회점수 인정)

출품방법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 작품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작품규격** : 흑백 및 컬러 11" X 14"에 한함 (한 번의 길이는 정확한 규격이어야 함)
- **출품요령** : 출품표에 제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요망
-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작품집(CD) 및 반송료 포함)
- **출품수량** : 1인 4점 이내
- **접수마감** : 2025년 7월 22일(화) (소인 유효)
- **접 수 처** : 우)3223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2-1(무궁화사진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지부장 : 010-9417-0597, 총무간사 : 010-9412-5386)

심사, 전시

- **심사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14:00
- **심사장소** : 홍주문화회관 (예정)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심사발표** : 2025년 7월 28일(월) 한국사협 홈페이지 www.pask.net 에 공시
- **시 상 식** : 2025년 8월 30일(토) 14:00
- **시상·전시장소** : 홍주문화회관
- **전시기간** : 2025년 8월 30일 ~ 31일 (2일간)

시상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은상 1점** : 홍성군수 상장 및 상금 300,000원 (홍성군내 관광유적 및 명소사진에 한정)
- **은상 1점** : 홍성군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300,000원
-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홍성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0,000원씩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 (출품수의 20%, 입상작 포함)

기타사항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출품자 전원 작품집 또는 CD 증정
-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출판, 전시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상작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동일작, 유사작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된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사협규정에 따라 제재
- 입상·입선작은 심사발표 7일 이내(8월 4일)까지 원본파일(3,000픽셀 이상)을 E-mail : js6325386@hanmail.net으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됨).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는 시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함 [단, 대리출선은 가능]
- 낙선작은 작품집(CD)과 함께 개별 반송함

주관·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 후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홍성지회

2025년 제25회

여주전국 생태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2025. 7. 1(화)~14(월) 소인유효



사진예술의 진흥과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사진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5회 여주전국생태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

■후 원 : 여주시 · 여주시의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주지회

응·모·방·법

작품내용 생태계 사진으로 동·식물(꽃, 곤충, 새, 파충류 등),
(자연, 산, 강, 갯벌, 바다, 수중생태) 풍경 등 창작적
이며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국내·외 미 발표작

응모자격 제한 없음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x 14" (합성을 제외한 작품, 판별 불필요)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출 품 료 1인당 3만원(작품집 발송 및 반송료 포함)

※ 5만원 상당의 최고급 작품집 발송

출품방법 작품 뒷면에 작품명,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접수기간 2025년 7월 1일(화) ~ 7월 14일(월) 소인유효

출품장소 (우편번호 12622)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32번길 13
(창동) 2층 흥창회사진관

연 락 처 지부장 010-2644-1056 / 사무국장 010-8742-4521

심사일시 2025년 7월 20일(일)

심사장소 여주시청 대회의실

심사발표 공개심사 후 시험 홈페이지 발표 (<http://www.pask.net>)

시상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전시기간 2025년 8월 26일(화) ~ 9월 15일(월) 21일간

전시장소 여주시 금은모래 작은미술관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연양동 304-8)

시·상·내·역

금 상 1 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 상 2 점 여주시장, 여주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 3 점 (사)한국예총 여주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 작 5 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장 려 5 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장 상장

입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장 상장
(총 출품수의 20% 내외)

유·의·사·항

- 입선 이상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함.
- 입상, 입선작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나 주최 측은 수상
작을 협회 또는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조치, 비회원은
입회 자격이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보 됨.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요망.(불참시 상금은 본 지부에
귀속 함.)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정품무한잉크



4x6
2,100장
출력가능
엡손자료(L8050, L18050)

Wifi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엡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할계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원목액자  Natural, Brown 11R=6,600원	사진용지  SINJI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축제·행사 장비대여  현장에서 바로
--	--	---	--

제13회 구리국제

태극기 사진공모전

접수
기간 2025. 8. 11 ~ 9. 16 도착분(시험 입회접수 있음)

응·모·방·법

출품자격 제한없음
작품내용 국내외 미발표작품으로 태극기가 들어있는 사진.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 외국거주자가 해외에서 촬영한 태극기 사진 응모시 출품료 면제함.
(외국접수방법 ▶ E-mail : 031655@naver.com로 접수)
작품규격 국내는 흑백 및 컬러 11" x 14" (장정불요, 테두리없는 사진. 규격의 작품 심사제외) 외국주소지는 이메일로 원본파일 3,500픽셀 이상 접수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 출 품 료 1인당 2만원
접수기간 2025년 8월 11일(월) ~ 9월 16일(화)
접 수 처 우)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행정복지센터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리지부
문 의 처 지부장 010-2001-1003 / 사무국장 010-3365-2031
구리예총 사무실 031-557-0350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신주소, 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심사일시 2025년 9월 20일(토)
심사장소 구리시청 대강당 /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발표 2025년 9월 22일 한국시험 홈페이지 공고(<http://www.pask.net>)
개전및시상일 2025년 10월 21일(화) 17시 (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시상장소 구리아트홀 갤러리 (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전시기간 2025년 10월 21일 ~ 10월 27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전시장소 구리아트홀 갤러리
작품반출 입상, 입선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선작은 전시기간 이후 작품집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예정임.

시·상·내·역

금 상 1점	구리시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 상 2점	구리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동 상 3점	(사)한국예총 구리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가 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리지부장 상장
장 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리지부장 상장
입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리지부장 상장 (출품수의 20%이내)

가·타(유의)·사·항

- 수상작품은 주최, 주관처에서 필요한 '비영리적 목적' 의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자에게는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이 있음.
- 수상작품은 저작자와 협의하에 구리시의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입상(입선)된 수상자는 3,500픽셀 이상의 원본 파일을 7일 이내 성명, 제목형식으로 (제출 E-mail : 031655@naver.com) 제출해야 함. 또한 입상작 수상자는 필히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함.
- 각종 공모전에서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입선 될 경우 상권취소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조치하며, 비회원은 입회를 7년간 유보함.